

研究報告
1988. 12 174

地域農業構造의 特性과 發展戰略 ②

全北 地域農業事例

朴 正 根(全北大 教授)

蘇 淳 烈(全北大 教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研究報告 174

地域農業構造의 特性과 發展戰略 ②

全北地域 農業事例

要 約

앞으로 地方化時代를 전제로 地方自治制下 全北地域農業發展은 全北地域의 經濟的 立地, 賦存資源, 技術水準등의 經濟與件에 따라 全北地域農業關聯主體들이 市場信號 (market signal)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全北地域農業發展은 地域單位 農業構造의 特性을 市場變數와 관련하여 把握・分析하고 全北地域與件에 맞는 發展戰略을樹立하여야 한다.

本研究는 全北地域 農業生產與件과 變化動向을 巨視的으로 接近하여 全北農業의 發展水準을 살펴보고 全國農業에 있어서 全北農業의 位相을 定立하고자 하였다. 특히 全北地域農業의 生產과 成長構造를 分析하여 全北地域農業發展을 위한 地域的 特性을 把握하였다.

全北農業構造의 特性은 1975년과 1986년의 全北農業總生產額 및 市・郡別 農業生產額의 推定을 基礎로 하여 農業生產成長의 變化量 動態的으로 Shift - Share Analysis에 의하여 分析하였다. 全北農業地域을 自然條件 (경지율 및 담률)과 經營條件 (coppock 방식)에 의하여 地帶區分하고 그에 따른 圈域設定과 特化作目, 特化地域을 중심으로 地域的 特性을 파악하여 全北地域農業 開發計劃의 方向을 提示하였다.

地方自治制를 전제로한 地方化時代에 부응하여 全北地域農業發展을 위한 全北地方政府의 機能을 定立하기 위하여 農業開發의 地域 社會構造의 메카

니즘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全北地域開發을 위한 全北地方政府의 機能과 役割을 再定立하였다.

본 研究의 主要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

① 全北地域은 전체적으로 農業中心의 經濟이며 특히 米穀生產에 偏重되어 있다. 韓國經濟의 高度成長過程에서 食糧供給의 中추적 所任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國民經濟의 빠른 構造變化에 彈力的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따라서 全北經濟의 전반적인 沈滯을 보이고 있다.

② 全北地域農業의 變化動向은 1970년대 이래 農家戶數와 農業人口의 지속적인 減少趨勢를 보이며 그 速度가 全國平均減少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耕地面積의 趨勢는 全國과 대체로 비슷하며 畜面積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③ 全北 地域農業의 發展水準은 그 成長面에서 全國平均과 비교하여 볼 때 米穀部門을 제외한 다른 모든 農產物의 生產과 生產要素의 投入에 있어서 全國平均水準에 미치지 못한다.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의 農家所得 측면에서도 全北農家所得은 全國平均農家所得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全北地域內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階差를 보여주고 있다.

④ 全北農業의 成長地域은 西部平野를 중심으로 한 畜作地帶이며 東部山間地帶는 成長의 停滯를 보여 米穀生產의 成長이 全北農業成長의 安定的基調를 이루고 있다. 물론 全北農業生產에 있어서 果樹, 菜蔬, 特作, 畜產 등 成長部門의 成長速度는 빠르나 全體農業生產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작기 때문에 米穀生產의 比重이 큰 畜作地域 農業成長에 크게 의존한 사실에 기인한다.

⑤ 農業成長地域中 完州와 金堤는 全北平均農業成長보다 成長이 빠른 成長部門의 영향이 지역성장에 크게 나타났으며 이리, 정읍, 고창, 옥구, 익산, 부안은 全北成長部門의 영향보다 地域農業 자체의 成長效果에 의하여 成長農業地域으로 나타났다.

⑥ 農業停滯地域中 淳昌은 地域成長部門보다 全北農業의 停滯部門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全北의 成長農業部門 效果를 增大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주, 군산,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은 農業成長停滯

의 原因이 農業成長部門結合 여하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農業部門結合의 改善보다 새로운 地域農業成長을 위한 地域農業投資政策이 필요하다.

⑦ 全北農業의 地帶區分은 경지율에 의하여 西部平野地帶, 中部準山間地帶, 東部山間地帶로, 토지율에 의하여 西部畠作地帶와 東部混作地帶로 나눌 수 있다. 農業經營條件에 의한 地帶區分인 Coppock 方式에 의하면 西部平野地帶는 6 作目結合에 의한 複合營農, 中部準山間地帶는 3-4 作目結合, 東部山間地帶는 2-3 作目結合類型으로 나타나 米穀의 비중이 작을수록 所得作目에 特化함을 알 수 있다.

⑧ 全北農業의 部門別 地域的 연관성은 米穀과 麥類에 있어서는 지역간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며 豆類, 雜穀, 特作은 地域間 不均衡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果樹, 菜蔬, 畜產등 成長部門은 최근들어 대부분의 지역들이 같은 趨勢로 확대하고 있어 地域的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⑨ 全北農業의 作目別 特化地域이나 地域別 特化作目은 地帶別 特性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都市近郊에서는 菜蔬, 畜產, 果樹등 成長作目이 核心作目으로, 山間地帶에서는 雜穀, 豆類, 菜蔬, 畜產, 果樹등 成長作目이 核心作目으로, 平野地帶에서는 米穀이 核心作目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다른 作目은 非特化作目으로 分類되었다.

⑩ 全北地域農業開發方向은 湖南作物試驗場, 地域農科大學 및 研究所를 중심으로 湖南米의 質을 높힐 수 있는 研究投資를 擴大하고 糧穀都賣市場을 全北地域에 建設하여 全北이 米穀流通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生產과 流通에 있어서 湖南米의 商品價值를 높힐 수 있어야 한다.

⑪ 全北의 山間地帶에 草地造成을 통하여 畜產開發의 基盤을 다지고 肉加工, 乳加工과 같은 農產物加工工場을 擴大해야 한다. 또한 南原의 木器 益山의 石器, 全州의 韓紙등 全北地域의 傳統的 特產物과 연결된 農村工業副業團地, 觀光農業開發이 活性化되어야 한다.

⑫ 全北地方政府는 全北地域農業開發의 主體가 되어 全北地域住民의 開發需要를 수용하고 이에 부응한 全北農業技術開發을 위하여 全北地域의 大學과 研究所 및 流通情報機關의 相互連繫를 도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V

特化地域의 營農團地와 副業團地, 農工團地가 서로 有機的聯關係를 가질 수 있는 政策的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全北地域 一般經濟統計 및 農業統計의 整備, 全北地域 農業의 技術 및 市場情報體系를 위한 綜合電算網組織과 全北地域 農業經濟動向의 豫測作業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머리말

地方自治制의 本格的인 實施를 앞두고 地域經濟의 活性화를 위한 여러 가지 對策이 論議되고 있는 가운데 農業을 어떻게 成長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懸案課題로 등장하고 있다.

地域의 中心產業이 農業이고 따라서 地域住民 所得의 중요한 부문이 農業所得이므로 地域經濟의 活性화를 위해서는 農業所得의 增大를 위한 諸般所得의 增大를 위한 諸般對策이 우선적으로 檢討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一般化되고 있는 商業的 營農下에서 附加價值를 效果적으로 높이고 輸入開放과 관련하여 生產性이 높은 產業으로 農業을 育成시키기 위해서는 個別經營의 限界를 克服하여 生產, 流通 등 農業經營上의 문제에 効率的으로 對應하면서 農業成長을 기하기 위해서 農業의 地域的 接近의 必要性이 최근에 이르러 크게 強調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地方化時代의 農業發展의 方向은 첫째, 그 地域이 지닌 經濟的立地, 賦存資源, 技術水準 등 地域의 賦存條件에 適合한 어떤 生產作型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 둘째, 商業的 營農의 進展과 더불어 地域農業의 市場競爭力を 어떻게 높일 것인가? 세째, 이를 위해서는 그 地域이 가진 立地上의 比較有利性을 최대한 살리는 입장에서 作目的選擇과 관련부분의 組織化를 어떻게 그 地域 차원에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地域農業의 組織化가 體系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地方政府單位에서 地域農業資源에 대한 體系的인 調查를 바탕으로 한 地域農業開發計劃을 樹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當研究院에서는 道를 기준으로 全國을 9個地域으로 區分하고 4個年(1988~91)에 걸친 研究事業으로 「地域農業構造의 特性과 發展戰略」 연구를 추진계획하고 있

는바, 이 報告書는 第 1 次年度 결과로서 研究事例 地域인 3개지역 (충북 전북, 제주) 중 全北地域 農業事例를 중심으로 研究分析한 결과이다. 本研究의 結果가 향후 地方化時代에 副應하여 地域別 農業發展戰略을 提示하는 데 有用한 政策資料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本 研究를 담당하여 주신 全北大學校 朴正根, 蘇淳烈 教授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本研究의 結果는 연구담당자의 意見이며, 當研究院의 公式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1988.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1
2. 先行研究의 檢討	3
3. 研究範圍 및 方法.....	5

第 2 章 全北地域의 農業生產與件과 變化動向

1. 全北地域 農業의 成長分析	8
2. 全北地域의 農業變化 動向	14

第 3 章 全北地域 農業의 發展水準

1. 全北地域 農業의 成長	27
2. 生產要素의 投入 推移	32
3. 農業生產性의 成長	33
4. 農家所得構造의 變化	34
5. 全國農業에서 全北農業의 位相	38

第 4 章 全北地域 農業生產構造의 特性

1. 資料 및 農業生產額 推定方法	41
2. 部門別 및 地域別 農業生產成長의 變化分析	42
3. Shift-Share 方法에 의한 全北農業 成長構造 分析	54

第 5 章 全北地域 農業開發 圈域 設定

1. 自然條件에 의한 農業地帶 區分	69
---------------------------	----

2. 經營條件에 의한 農業地帶 區分	73
3. 農業生產에 의한 全北地域 農業特化 分析	78
第 6 章 全北地域 農業發展戰略 提示	
1. 全北地域 農業 開發方向	96
2. 全北地域 農業圈域別 開發方向	98
3. 全北地域 農村工業 開發方向	102
4. 全北地域 農業의 流通 改善方向	104
5. 全北地域 所得作物의 開發育成과 關聯產業의 連繫	107
第 7 章 全北地域 農業發展을 위한 全北地方政府의 機能 再定立	
1. 農業開發의 地域社會 構造的 메카니즘	109
2. 全北地域 農業開發을 위한 全北地方政府의 役割	113
第 8 章 要約 및 結論	115

表 目 次

第 2 章

表 2- 1	전북 주요 농산물의 수급실태, 1985	11
表 2- 2	전북지역의 인구변화, 1960 ~ 85	13
表 2- 3	전북 농가호수의 감소동향, 1981~86	15
表 2- 4	업태별 농가호수의 변화, 1961~79	17
表 2- 5	전겸업별 농가호수의 동향, 1966~86	17
表 2- 6	전북 경지면적의 변화, 1961~86	20
表 2- 7	농가인구 추이, 1961~86	22
表 2- 8	전북 농가인구의 감소동향, 1968 ~ 86	24
表 2- 9	전국·전북의 농기계 보유대수 비교(농가 100 호당) ...	25
表 2-10	전북 농기계 보급현황, 1971~86	25

第 3 章

表 3- 1	농업총생산의 성장률, 1956~83	29
表 3- 2	농산물 유별 연평균 성장률, 1956 ~ 83	30
表 3- 3	농산물 유별 생산액의 구성비	31
表 3- 4	생산요소의 연평균 성장률	32
表 3- 5	노동생산성 및 토지생산성의 성장률	34
表 3- 6	농가소득 추이, 1972~80	35
表 3- 7	전북 시·군별 농가소득, 1978~80	36

第 4 章

表 4- 1	전북의 품목별·지역별 농업생산액 추계, 1975	43
--------	----------------------------------	----

表 4- 2	전북의 품목별·지역별 농업생산액 추계, 1986	44
表 4- 3	전북의 부문별 농업생산액 구성비와 성장률	45
表 4- 4	농업성장에 대한 품목별 농산물 기여, 1975 ~ 86	46
表 4- 5	시·군별 농업생산의 구성과 성장률	46
表 4- 6	지역별 농업생산 구성비, 1975	48
表 4- 7	지역별 농업생산 구성비, 1986	49
表 4- 8	지역별 농업생산 성장에 대한 농산물 품목별 기여도	51
表 4- 9	지역별 농업생산 연관계수, 1975	52
表 4-10	지역별 농업생산 연관계수, 1986	53
表 4-11	전북 지역별 Shift- Share 계측결과	57
表 4-12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완주, 김제)	60
表 4-13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이리, 정읍)	61
表 4-14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고창, 옥구)	62
表 4-15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익산, 부안)	63
表 4-16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순창, 전주)	64
表 4-17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군산, 진안)	65
表 4-18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무주, 임실)	66
表 4-19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장수, 남원)	67

第 5 章

表 5- 1	지역별 경지율과 담률	70
表 5- 2	경지율과 담률에 의한 지대구분	71
表 5- 3	지역별 총투하노동시간에 대한 품목별 구성비 및 그 순위, 1975	74
表 5- 4	지역별 총투하노동시간에 대한 품목별 구성비 및 그 순위, 1986	75
表 5- 5	대표적 작목결합에 의한 지역구분	77
表 5- 6	전북 농업생산의 품목별 지역 구성비, 1975	80

表 5- 7	전북 농업생산의 품목별 지역 구성비, 1986	81
表 5- 8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연관계수, 1975	82
表 5- 9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연관계수, 1986	83
表 5-10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별·품목별 특화계수, 1975	84
表 5-11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별·품목별 특화계수, 1986	85
表 5-12	전북 농업생산의 작목별 특화지역	86
表 5-13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별 특화작목	91

第6章

表 6- 1	호남지방 쌀 생산량과 쌀 연구비의 비중	100
表 6- 2	전북 농공지구 현황	102
表 6- 3	양곡 위탁도매상의 지역별 분포, 1981	105

圖 目 次

第 2 章

圖 2-1	전북지역의 지리적 위치	8
圖 2-2	전국·전북 경지면적의 추이	19

第 3 章

圖 3-1	전북 농업생산지수와 연평균 농업성장률 변동	28
-------	-------------------------------	----

第 4 章

圖 4-1	전북 지역별 성장유형 분류	58
-------	----------------------	----

第 5 章

圖 5-1	경지율에 의한 지대구분	71
圖 5-2	답률에 의한 지대구분	72
圖 5-3	작목별 결합에 의한 지대구분	78

第 6 章

圖 6-1	전북지역 농업개발체계	97
圖 6-2	전북지역 농업의 3 대권역	99
圖 6-3	전북 정기시장 유통권	106
圖 6-4	전북지역 농업개발의 유기적 연계	108

第 7 章

圖 7-1	지역개발의 사회구조적 메카니즘	110
圖 7-2	계획수립 준비단계의 주요작업	111
圖 7-3	지역농업 개발계획의 순서	112
圖 7-4	지역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상호의존체계	113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1960 年代 이래 韓國經濟의 高度成長은 勞動集約的인 工產品의 海外輸出에 의한 工業化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工業化는 都市의 成長極(growth pole)을 중심으로 據點開發方式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따라서 經濟成長過程에서 工業에 대한 農業의 相對的 低位에 따른 產業間의 不均衡問題 뿐만 아니라 都市에 대한 農村의 地域的 不均衡問題가 극심하게 表出되었다.

事實 지속적인 高度經濟成長은 需要와 供給條件의 變化를 통하여 투입물과 산출물의 市場價格變化를 초래한다. 이에 따른 所得과 經濟的 機會의 地域的 不均衡은 價格變化에 의한 資源의 合理的 配分을 이루기 위하여 地域的 空間計劃의 필요성을 짐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韓國의 農業開發問題는 工業의 地方分散과 같은 空間概念을 導入한 農村開發問題로 轉換하게 된다.

더구나 급격한 都市化·工業化에서 온 外部經濟의 逆機能은 都市問題·資源問題·環境問題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適正한 價格으로 質的價値가 높은 安全한 食糧의 安定的 供給이나 工業化를 위하여 필요한 勞動

力의 安定的 供給이라는 農業의 役割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國土保全을 위한 空間的 均衡의 實現이나 高度의 經濟成長에 따른 不安定性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緩衝(buffer)의 役割을 農業이 담당해야 한다는 當爲性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實은 經濟發展이나 農業發展에 있어서 地域的 接近의 必要性뿐만 아니라 이러한 地域的 接近方法이 地域內의 特殊性에 한정되지 않는一般的 性格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農業問題의 地域的 接近인 地域農業問題는 中央政府의 財政·金融政策이나 農產物價格·所得政策 등一般的 經濟政策이나 農業政策에 의하여 調整될 수 없는 地域의 特殊性을 갖는다는 兩面性에 그 現實的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地域農業問題는 中央政府의 產業政策과 地方政府의 地域農業政策 각각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서 또는 양자의 단순한 結合에 의해서 극복할 수 없으며, 양자의 有機的 結合에 의한 상호 補完的 接近에 의해서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韓國經濟의 高度成長이 초래한 農業問題나 地域問題의 심각성은 이러한 認識의 결여에서 비롯되었으며 앞으로의 農村開發戰略을 통한 問題解決은 이러한 認識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問題點에 입각하여 地域의 空間計劃과 產業의 均衡的 接近에 의한 地域과 農業의 有機的 連繫는 市場經濟를 중심으로 地方政府, 地域住民, 地域聯關企業體의 상호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地方化時代를前提로 地方自治制下 地域農業發展은 그 地域의 經濟的 立地, 賦存資源, 技術水準 등의 與件下에서 地域農業關聯主體들이 市場信號(market signal)에 따라 發展의으로 對應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地域農業發展은 地域單位의 農業構造의 特性을 市場과 관련하여 把握·分析하여 地域與件에 맞는 農業發展戰略을 마련하는 地域的 接近을 위한 基礎的 協調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는 農業發展行政의 地方化時代에 부응하여 全北農業構造의 特性을 分析하여 全北地域農業의 體系를 整理하고 이를 바탕으로 全北地域 農業發展戰略樹立을 위한 基礎的 資料를 提供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研究目的을 둔다.

첫째, 全北地域의 農業生產與件과 變化動向, 全北 地域農業의 發展水準을 檢討하여 全國 農業에 있어서 全北 農業의 位相을 定立한다.

둘째, 全北 地域農業의 生產과 成長構造를 分析하여 全北 地域農業發展을 위한 地域的 特性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째, 全北 地域農業의 地帶區分을 바탕으로 全北地域 農業開發圈域을 設定하고 圈域別 發展戰略을 提示한다.

네째, 地方自治制를 전제로 한 地方化時代에 부응하여 全北 地域農業發展을 위한 全北 地方政府의 機能을 再定立한다.

2. 先行研究의 檢討

地域農業에 관한 研究分野는 크게 地域農業의 立地, 地域農業의 成長, 地域農業의 構造 및 地域農業開發에 대한 研究로 區分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分野에 있어서 全北 農業에 관한 研究는 全國을 대상으로 한 地域農業研究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全北地域農業을 대상으로 한 研究의 檢討에 限定하고자 한다.

韓國農業의 立地나 地域性에 관한 연구는 Lee Hoon Ku (1936), 印貞植(1940, 1949)으로부터 久間健一(1951), 徐贊基(1962, 1975, 1978, 1981) 및 金聖昊外(1973, 1974)에 이르기 까지, 또 최근 李正煥(1987)에 의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졌으나 全北 農業의 地域性에 관한 研究는 李東鎬(1978), 丁安聲·李東鎬(1988)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丁安聲·李東鎬(1988)는 全北地域의 155개 邑面을 대상으로 多變量分析法의 條件에서 主成分分析, 群化分析 및 判別分析의 적용에 의하여 全北 農業地域을 田作地域, 米作地域, 準混作地域, 混作地域, 特作地域, 菜蔬·果樹地域의 6개 類型으로 區分하고 이를 다시 16개 그룹으로 細分化하였다. 韓國農業의 地域性에 관한 研究는 李正煥(1987)外 대부분의 研究가 地域의 自然的 特性이나 農業經營指標 또는 農業生產 및 技術構造中 어느

한 가지를 基準으로 類型化한 데 대하여 丁安聲·李東鎬(1988)의 研究는 이러한 모든 要因을 綜合的으로 計量化하여 類型化한 것이다. 다만 農業成長에 따른 이러한 諸要因의 動態化가 類型의 分類나 變化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앞으로의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地域農業의 分析은 A.Keidel (1981), 劉永鳳(1987)에 의하여 이루 어 졌으며, 全北 農業生產의 成長分析은 朴正根(1977a,1977b)에 의하여 1985 ~ 75년의 農業生產 12 個 部門 生產額이 推定되었다. 그 結果에 의하면 全北 農業生產額은 1958 ~ 75년 사이에 全國의 年平均 農業生產成長率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生產性이나 投入物과의 상호연 관성에 대한 究明 없이 農業成長의 單一指標인 全北 農業生產額의 成長만을 論議하였다.

地域農業의 構造的 特性은 農業의 地域의 特化分析을 중심으로 한 姜奉淳外(1984)의 研究에 대하여 全北地域의 農業經營形態別 農家構成의 變化를 중심으로 한 朴正根(1976a,1976b)의 研究는 全北 農業이 米作 중심에서 成長部門인 果樹, 菜蔬, 特作 등으로 專門化하면서 전체적인 全北 農業構成이 多樣化하고 있다는 事實을 보여준다. 그러나 農業人口 移動이나 農業生產變化에 대하여 經營形態別 農家戶數變化는 그 性格이 明確하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 蘇淳烈(1985)은 全北 農業構造의 性格分析을 農地賣買와 農家所得規模의 變化를 중심으로 1971 ~ 81년의 11년에 걸친 4개 부락 146호 농가를 중심으로 행하였다. 全北地域의 경영규모의 확대는 所得規模에 의 해서 보다 借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結論이다.

全北 農業構造의 特性을 農業生產의 成長構造를 중심으로 全北 農業生產成長을 全體 韓國農業構造에 있어서 部門別 結合이 成長部門으로 擴大되는 效果와 全北 地域農業이 이러한 추세에 얼마나 적응하는 가를 나타내는 地域配分效果로 나누어 地域農業成長構造를 파악하는 Shift-share 分析에 의한 全北 農業構造分析이 朴正根(1977c)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이러한 農業成長構造分析을 기초로 한 全北 農業에 대한 예측(projection)이 姜昌容(1985)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보다 綜合的으로 2000

年代의 未來像을 향한 全北 綜合開發計劃이 全北大學校 產業開發研究所 (1982)와 國土開發研究院(1982)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이러한 綜合開發計劃은 土地利用 등 農業 뿐만 아니라 生活圈, 都市開發 및 農漁村開發을 포함한 定住空間利用體系, 工業, 農畜產業, 商業, 山林開發 등 產業振興基盤의 擴充整備, 交通, 通信 및 社會開發計劃을 포함한 종합적인 開發計劃의 樹立이다.

이 밖에도 全北의 畜產經營(李東鎬 1972)이나 農工團地(沈相銑, 張在右, 1987)에 대한 實態分析과 農業資源利用(李東鎬, 1975)에 관한 研究, 全北地域의 農村人口移動에 관한 社會經濟的, 社會心理的 要因分析 및 適應에 관한 研究(尹槿燮, 1973, 1984)가 있다. 그러나 1975년 이후의 全北 農業生產成長에 대한 分析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農業構造分析과 이에 대한 全北地域 農業開發戰略提示를 위한 研究가 요청된다.

3. 研究範圍 및 方法

本研究는 오늘날 韓國經濟의 高度成長에서 비롯된 農業問題와 地域問題를 全北의 地域農業問題로 接近하여 全北地域 農業開發方向을 提示하기 위하여一般的 農業問題와 全北의 地域의 特殊性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農村地域綜合開發과 定住生活圈에 기초한 全北農村地域의 空間計劃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全北의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諸條件와 全北住民의 生活樣態에 대한 광범한 자료수집이 요구된다. 그러나 全北 地域資料의 制約에 따라 全北의 市·郡別 農業生產額推定과 植付面積, 農業勞動投下量을 근거로 한 全北 農業生產資料에 依據하여 分析하였기 때문에 그 意味는 极히 限定될 수 밖에 없다.

本研究는 全北地域農業의 一般的 特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既存의 二次 資料를 사용하여 全國 農業에 있어서 全北 農業의 位相을 정리하였다. 全北 農業構造의 特性은 作目別 土地生產性과 質的 價值를 반영하기 위하여

市·郡別 農業生産額推定을 근거로 하여 特化係數, 地域聯關係數 및 Shift-share analysis에 의한 分析을 行하였으며, 耕地率·畠率에 의한 自然條件 및 Coppock 方式에 의한 經營條件에 의한 作目結合의 特性을 分析하여 地域性을 究明하였다.

全北 農業生産額推計는 時系列別 數量資料와 價格資料에 의하였기 때문에 制限된 品目에 불과했으며 地域資料가 완비되지 못한 價格資料는 全國 資料로 대체하였다. 1975年까지의 全北 農業生產의 推計와 成長構造分析은 이미 整理·發表되었기 때문에 本研究는 1975~86年에 限定하였다.

農業生產量統計는 行政統計와 標本調查에 의한 數量統計의 不一致로 말미암아 市·郡의 合計가 全北總計와 不一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資料의 一致를 위하여 市·郡行政統計에 依存하였다.

특히, 全北地域農產物의 地域間移動, 產地流通, 都·小賣市場 등에 대한 實證的 調查資料의 未備로 이에 대한 分析은 敘述的 方法에 의하여 概括的으로 나타낼 수 밖에 없다.

農業의 地域的 特性은 自然的 特性이나 經濟的 特性이 중요하기 때문에 行政單位인 市·郡보다 더 下位單位인 邑·面이나 마을단위에 기초한 地域 農業計劃樹立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資源爲主보다 技術爲主의 農業生產에 있어서 生產보다 市場中心의 流通體系定立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地域農業에 관한 研究方向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課題라고 본다.

第 2 章

全北地域의 農業生產與件과 變化動向

全北 農業의 發展戰略을 구상하려면 전북 農業의 현황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명하게 認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4 반세기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어떠한 메카니즘속에서 우리 나라 農業이 발달해 왔으며, 전북 農業이 우리 나라 전체 農業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가를 파악해야만 비로소 발전전략의 方向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章의 目的은 全北地域의 農業生產與件¹⁾을 파악하고 農業의 變化動向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全北 農業의 巨視的 動態를 파악하는데 有用한 2次資料들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것이 地域統計의 現實이지만 대체적인 흐름의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資料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여기서 말하는 生產與件이란 「토양, 지세, 지형, 기후 등의 자연적 여건 뿐만 아니라 도로, 시장과의 거리, 구입자재 및 생산물의 수급상태 등의 경제적 여건, 재배 또는 사육기술의 보급상태를 나타내 주는 생산 기술적 여건, 인구밀도, 경지규모, 농외취업기회 등의 사회적 여건, 그리고 관습이나 전통 등을 포함하는 문화적 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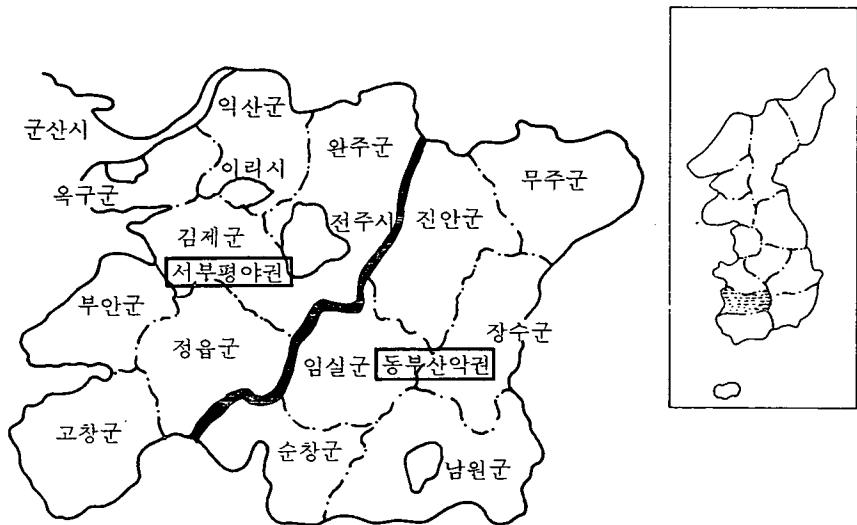
姜奉淳外, 主要生產調整指方向作目의 地域 特化에 관한 연구, 研究報告, 7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12. p. 9.

1. 全北 地域 農業의 成長分析

가. 自然的 與件

한반도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全北地域의 全面積은 805千ha로 韓半島全體의 3.6 %, 南韓全體의 8.1 %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全面積이 南韓의 9個 道중에서 일곱째이지만 耕地面積은 全國 耕地面積의 11.5 %인 246千ha, 畜面積은 全國畜面積의 13.9 %인 185千ha나 된다. 또한 전북의 耕地率은 전국의 21.9 %보다 10 %가까이 높은 31 %로 全國에서 두번째로 높으며, 全體耕地에 대한 畜의 比率은 75.2 %로서 우리나라 全體에서 가장 높다.

圖2-1 전북지역의 지리적 위치



1981년 7월 1일에 정주읍과 남원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전북지역은 5市 13郡 15邑 145面으로 되었는데 地形의으로 볼 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어 노령산맥을 경계로 서쪽을 西部 平野圈,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를 東部山岳圈으로 나눌 수 있다 〈圖2-1〉. 地形의 높낮이를 비율로 보면 100m 이하의 平野가 51%를 차지하여 비교적 많은 平野地帶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서부평야권은 호남평야지역에 들어 한국의 최대 곡창이기도 하다.

전북지역의 기후는 서부평야권은 남부해안형에 속하고 동부의 산악권은 남부내륙형에 속한다. 서부평야지대는 서해의 영향을 받아서 동부산악지대보다 기온의 연교차와 강수량이 적어 서부평야가 농업발전의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연간 일조시간은 2,166時間이고, 적산온도는 4,740°C이며 특히, 벼 生育期間(4.10~9.10)중 적산온도는 4,740°C로서 벼의一生中 필요한 3,364°C보다 162°C 가량 높아 벼 農事에 알맞는 기후 조건이다.²⁾

전북지역은 노령산맥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 진안고원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섬진강과, 소백산맥의 남서부줄기에 자리잡은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금강이 있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은 서해연안의 해류영향으로 하류쪽에 간석지(개펄흙)가 많아 농경지로 이용할 경우 염기를 씻어 낼 물이 풍부해야 한다. 1920년대의 간척사업, 1960년대에 시작된 동진강 농수로의 확장, 계획도 간척공사 같은 사업은 이러한 자연적 여건 때문에 실시되었다.

소백산맥의 동부산악권에는 산성인 갈색 산림토가 주로 나타난다. 이 지역에는 추위에 잘 견디는 감자, 호프, 옥수수 같은 작물의 재배지 또는 목초지와 고냉지 채소재배지로서 이용되는 데 동부산악지대의 고냉지농업이 발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서부평야지대의 토양은 적황색 흙으로서 밭, 과수원, 상전, 목초지로 이용하기 알맞으나 유기질의 부족 때문에 퇴비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호남

2) 全羅北道, 「農業과 氣象」, 1985. pp.15~16.

평야의 답은 퇴색흙으로 기름지기는 하지만 배수, 객토가 필요한 토양이다.

이와 같은 自然的 與件은 全北地域을 農業中心의 經濟, 穀 center의 農業이 되게 하였으며, 서부평야지대의 호남평야가 우리 나라의 최대곡창으로 그 소임을 다해 왔던 여건이기도 하였다.

나. 經濟的 與件

경제적 여건으로는 도로, 시장과의 거리, 농산물의 수급상태 등을 들수 있다. 전북지역의 도로총연장은 1985년 3,971km로서 이중 국도가 1,172km로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地方道와 市郡道가 각각 29.4%,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포장률은 42.5%를 보이고 있다. 도로포장률은 국도의 경우 76.9%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전북지역간 도로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도의 포장률이 23.5%, 郡道의 포장률은 8.2%로 낮아 지역간 운송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全北地域의 物動量중 많은 양이 수도권, 광주권, 충청권 등 외부지역의 물동량이며, 전북도내 지역간 물동량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군산·이리시·완주군과의 군산을 중심으로 한 익산군과의 物動量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³⁾

실제로 全北의 시장권조사에 의하면 상설시장을 이용할 경우 완주군내 주민들이 10km이상 거리의 시장에서 45분을 소요하고 있으며, 남원군의 주민이 12.2km 38분, 임실군의 주민이 14.7km 54분, 순창군 주민이 12.9km 51분, 진안군 12km 41분, 무주군 15.9km 54분 정도로 소요하고 있어 시장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⁴⁾

「전북통계연보」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邑面單位에서 개설되는 정기시장은 1966년 70개에서 1986년 54개로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편 전북의 농산물 수급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전북지역내 생산과 소비

3) 전라북도, 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1982~1991), 1982. 10, p. 380.

4) 전라북도, 앞의 책, p. 348.

表 2-1 전북 주요 농산물의 수급실태,* 1985

품목	생산량(A)	도내소비량(B) ¹⁾	도외 출하량 (C)=(A)-(B)	단위 : %, %
				도외 출하비율 ($\frac{C}{A}$)
쌀	872, 369	281, 975. 2	590, 393. 8	67. 7
보리	998	18, 564. 9	△ 17, 566. 9	△ 1, 760. 2
밀	812	68, 269. 5	△ 67, 457. 5	△ 8, 307. 6
옥수수	779	36, 601. 3	△ 35, 822. 3	△ 4, 598. 5
감자	5, 292	38, 186. 9	△ 32, 894. 9	△ 621. 6
고구마	15, 037	33, 297. 9	△ 18, 260. 9	△ 121. 4
대두	15, 197	20, 370. 7	△ 5, 173. 7	△ 34. 0
팥	1, 798	2, 290. 3	△ 492. 3	△ 27. 4
참깨	2, 808	704. 7	2, 103. 3	74. 9
채소류	634, 604	217, 075. 1	417, 528. 9	65. 8
과실류	46, 052	58, 491. 6	△ 12, 439. 6	△ 27. 0

*1985년 1인당 연간 소비량×1985년 전북 총인구(2,202,243).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19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년도 식품수급표」, 1987.

활동의 순환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즉, 지역내 생산량, 이입량, 이출량, 사료용·종자용·가공용 소비량, 임모량을 파악해야 하지만 여러 여건상 정확한 자료는 알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식품수급표에서 추정한 수급상태를 알아보면 <表 2-1>과 같다. 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북지역은 미곡의 공급기지로서 역할이 뚜렷하다. 따라서 전북의 경제는 농가경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농가경제는 미곡가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 생산기술적 與件

우리 나라의 農業技術은 1970년대까지 주로 多收穫 품종, 비료의 다량사용 철저한 방제기술 등을 중심으로 하는 生化學的 기술을 근간으로 토지생산 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단위면적당 수량

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특히, 1970년대 초 통일계 신품종의 출현은 주곡자급을 가능케 했던 다수확품종인데 전북지역의 신품종보급속도는 충북, 전남에 이어 높은 수준이었다.⁵⁾ 이러한 신품종의 보급으로 세밀한 물관리, 보온못자리 보급으로 인한 早植, 多肥技術 등의 재배기술이 일반 벼재배로 기술이전 함으로써 전북지역의 단위당 미곡수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⁶⁾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농업노임이 상승함에 따라 종래의 인력, 축력을 이용한 농기구중심에서 동력을 이용한 경운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에는 비교적 대형 농기계인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가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1986년 현재의 전북 농업기계 보유율은 경운기(25.2%), 바인더(0.63%)를 제외하고는 트랙터(1.28%), 이앙기(4.30%), 콤바인(1.21%)의 보급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북지역의 생산기술적 여건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북지역의 농업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라. 社會的 與件

1960년 전국인구가 25,012천명에서 1985년 4,056천명으로 25여년동안 64%가 증가하였으나 전북인구는 동기간 2,395천명에서 2,202천명으로 오히려 8%가 감소하였다. 그에 따라 전국에서 전북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역시 1960년 9.6%에서 5.4%로 감소하였다. 지난 1960~85년동안 전북인구의 변화를 보면 다음 <表 2-2>와 같다. 이같은 전북 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주로 경제적 원인에 의한 사회적 이동이 대부분인

5) 尹皓燮外, 主要農作物 種子生產 및 供給體系改善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104, KREI, 1985, p. 70.

6) 1986년 10a당 전국평균 미곡생산량(논벼)은 638kg인데 전북 10a당 미곡 생산량은 706kg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表 2-2 전북 지역의 인구변화, 1960~85

	인구(천명)			인구밀도(인/km ²)	
	전국(A)	전북(B)	점유율 (B/A × 100)	전국	전북
1960	25,012	2,395	9.6	253.9	277
1965	28,705	2,516	8.8	291.6	313
1970	31,435	2,434	7.7	319.2	302
1975	34,679	2,456	7.1	351.0	305
1980	37,449	2,288	6.1	378.4	283
1985	41,056	2,202	5.4	414.1	272.3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86.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1986.

데,⁷⁾ 1971 ~ 85년간 사회적 이동을 통한 전북인구는 1,131천명으로 연 평균 약 8만명 정도가 타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인구유출이 곧 타지역으로의 고급인력과 재산유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전북 농가경제의 더 나아가서 전북경제의 기반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마. 文化的 與件

전북지역은 예로부터 馬韓의 中心地, 後百濟의 都邑地, 朝鮮朝의 發祥地 그리고 甲午農民戰爭의 진원지로서 역사의 추동력을 가진 지역이다.

「農道」, 「藝道」로 상징되듯이 전북지역은 풍부한 農耕文化와 놀이文化의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文化는 ①맛의 文化 ②멋의 文化 ③소리의 文化로 집약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업화과정에서 사회발전의 歪曲現象으로서 지역 간, 산업간의 불균형심화에서 비롯된 전북인의 의식체계는

7) 김제군 만경면과 진안군 마령면내 300호의 인구이동 사례조사(유근섭, 농촌 인구의 이출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87. 8, p. 48)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총이출자 597명 중 52.4%인 313명이 경제적 원인(생계곤란, 돈을 벌기 위해, 취직, 취업, 기술습득)으로 인해 이주하였다.

상당히 轉倒되었다.

최근 全北人의 意識構造調查⁸⁾에 따르면 전근대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아직도 유교적 가치관 등의 전통적 성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전북인은 첫째, 합리주의 가치관보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둘째, 귀속주의 가치관보다는 업적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권위주의와 평등주의 가치관 가운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평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넷째, 특수주의 내지 과벌주의 가치지향보다는 보편주의 가치지향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개인주의 가치관보다는 집단(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그간 전북인이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보수성과 전통지향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진취적이고 근대적인 가치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주도의 공업화 우선정책의 결과 전북지역이 농업, 공업 등 제반부문에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2. 全北地域의 農業變化 動向

가. 農家戶數의 減少

전북지역의 농가호수는 1970년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증가하여 왔으나 1971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0년의 297,162호에서 1986년에는 204,278호로 그동안 82,884호의 절대적인 감소가 있었다. <表2-3>과 같이 농가호수는 1960년대까지는 증가하여 왔으나 1970년대부터는 감소하여 왔다. 특히, 1976~81년간에는 연평균 3.83% 씩의 감소가 이루어져 1971~86년간 감소된 77,086호 가운데 60%

8)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주문화방송, 전북인의 의식구조 가치관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1987.

表 2 - 3 전북 농가호수의 감소동향, *1981~86

단위 : 호, %

	총 호 수	경 지 구 모 별 농 가 호 수				
		0.5 ha 미만	0.5 ~ 1.0 ha	1.0 ~ 2.0 ha	2.0 ~ 3.0 ha	3.0 ha ~
1961	254, 079 (100. 0)	105, 315 (41. 4)	80, 847 (31. 8)	51, 095 (20. 1)	15, 704 (6. 3)	1, 118 (0. 4)
1966	280, 662 (100. 0)	102, 629 (36. 6)	91, 218 (32. 5)	65, 990 (23. 5)	14, 982 (5. 3)	5, 803 (2. 1)
1971	282, 084 (100. 0)	113, 384 (40. 2)	86, 002 (30. 5)	63, 577 (22. 5)	13, 160 (4. 7)	5, 961 (2. 1)
1976	265, 696 (100. 0)	103, 948 (39. 0)	83, 777 (31. 5)	58, 778 (22. 1)	12, 896 (4. 9)	6, 297 (2. 4)
1981	218, 550 (100. 0)	67, 140 (30. 7)	78, 440 (35. 9)	57, 060 (26. 1)	11, 110 (5. 1)	4, 800 (2. 2)
1986	204, 278 (100. 0)	62, 608 (30. 6)	70, 457 (34. 6)	56, 225 (27. 5)	11, 216 (5. 5)	3, 772 (1. 8)
연평균증감율						
1961 ~ 66	2. 01	0. 52	2. 44	5. 25	- 0. 94	39. 01
1966 ~ 71	0. 10	2. 01	- 1. 17	- 0. 74	- 2. 56	0. 54
1971 ~ 76	- 1. 19	- 1. 72	- 0. 52	- 1. 56	- 0. 40	1. 10
1976 ~ 81	- 3. 83	- 8. 37	- 1. 31	- 0. 59	- 2. 94	- 5. 28
1981 ~ 86	- 1. 34	- 1. 39	- 2. 12	- 0. 29	0. 19	- 4. 71

* 경종의 농가는 0.5 ha 미만에 포함.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각년도.

이상이 넘는 47,146호가 이 기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국과 비교할 때 전북의 농가호수는 좀 늦게 부터 그러나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⁹⁾ 이러한 농가호수의 절대적인 감소는 경지규모별로 본 전농가계층에서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0.5ha 미만의 영세 농가와 3.0ha 이상의 농가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지규모별 농가호수의 구성에 있어서 1971년과 1981년을 비교할 때 0.5ha 미만의 농가계층은 40.2%에서 30.6%로 낮아진 반면 0.5~1.0ha의 농가계층은 30.5%에서 34.6%, 1.0~2.0ha의 농가계층은 22.5%에서 27.5%로, 그리고 2.0ha 이상 농가계층은 6.8%에서 7.3%로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특히, 0.5ha 미만의 영세규모 농가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크게 감소되어 그간의 농가호수의 감소가 주로 영세농가층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1976~81년간 전체농가의 절대적 감소 시기에는 이러한 영세규모 농가의 감소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는 경제발전에 따라 현금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생산활동의 상업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상업농으로의 변화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업태별 농가호수의 변화를 보면 대체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表2-4>는 1961~71년과 1971~79년의 두 기간으로 구분된 업태별 농가호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¹⁰⁾

前期間(1961~1971년)의 업태별 농가호수의 변화를 보면 답작농가수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상업적 성격을 갖는 과수를 비롯하여 특용작물 및 채소, 축·잠부문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증가하였고 특히 특용작물이 급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급격히 증가한 업태는 특용작물로서 이를 경작한 농가수는 1961년을 기준으로 4.6배로 증가하였고, 축·잠농가가 약

9) 전국의 농가호수의 감소동향을 보면 1967년을 피크로 하여 1967~70년에는 연평균 1.4%, 1970~75년에는 0.9%, 1975~80년에는 연평균 2.0%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최양부외,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연구보고 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pp. 19~20).

10) 1980년대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지역통계의 미비에서 온 것이다.

表 2 - 4 업태별 농가호수의 변화, 1961~79

단위 : 호

구분	답 작	전 작	과 수	채 소	특 작	축 잠	기 타
1961	228, 571 (100. 0)	22, 432 (100. 0)	413 (100. 0)	854 (100. 0)	205 (100. 0)	661 (100. 0)	943 (100. 0)
1966	229, 321 (100. 3)	46, 906 (209. 1)	610 (147. 7)	609 (71. 3)	245 (119. 5)	534 (80. 8)	2, 392 (253. 7)
1971	217, 027 (94. 9)	35, 468 (158. 1)	914 (221. 3)	1, 409 (165. 0)	940 (458. 5)	2, 441 (369. 3)	2, 888 (306. 3)
1971	217, 027 (100. 0)	35, 468 (100. 0)	914 (100. 0)	1, 409 (100. 0)	940 (100. 0)	2, 441 (100. 0)	2, 888 (100. 0)
1976	202, 800 (93. 4)	29, 490 (83. 1)	1, 350 (147. 7)	1, 850 (131. 3)	1, 780 (189. 4)	3, 946 (161. 7)	300 (10. 4)
1979	199, 640 (92. 0)	21, 440 (60. 4)	1, 200 (131. 3)	1, 740 (123. 5)	1, 770 (188. 3)	2, 091 (85. 7)	160 (5. 5)

()안은 지수, 전기는 1961 = 100. 후기 1971 = 100임.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각년도.

表 2 - 5 전경업별 농가호수의 동향, 1966~86

단위 : 호, %

구 分	총호수	전업농	경 업 농		
			1 종	2 종	계
1966	280, 662 (100. 0)	259, 028 (92. 3)	—	—	21, 594 (7. 7)
1976	265, 696 (100. 0)	221, 341 (83. 3)	30, 505 (11. 5)	13, 850 (5. 2)	44, 355 (16. 7)
1986	204, 278 (100. 0)	172, 588 (84. 5)	13, 224 (6. 5)	18, 466 (9. 0)	31, 690 (15. 5)
연 평균증감률					
1966~76	- 0. 55	- 1. 56	-	-	7. 46
1976~86	- 2. 59	- 2. 46	- 8. 02	2. 92	- 3. 31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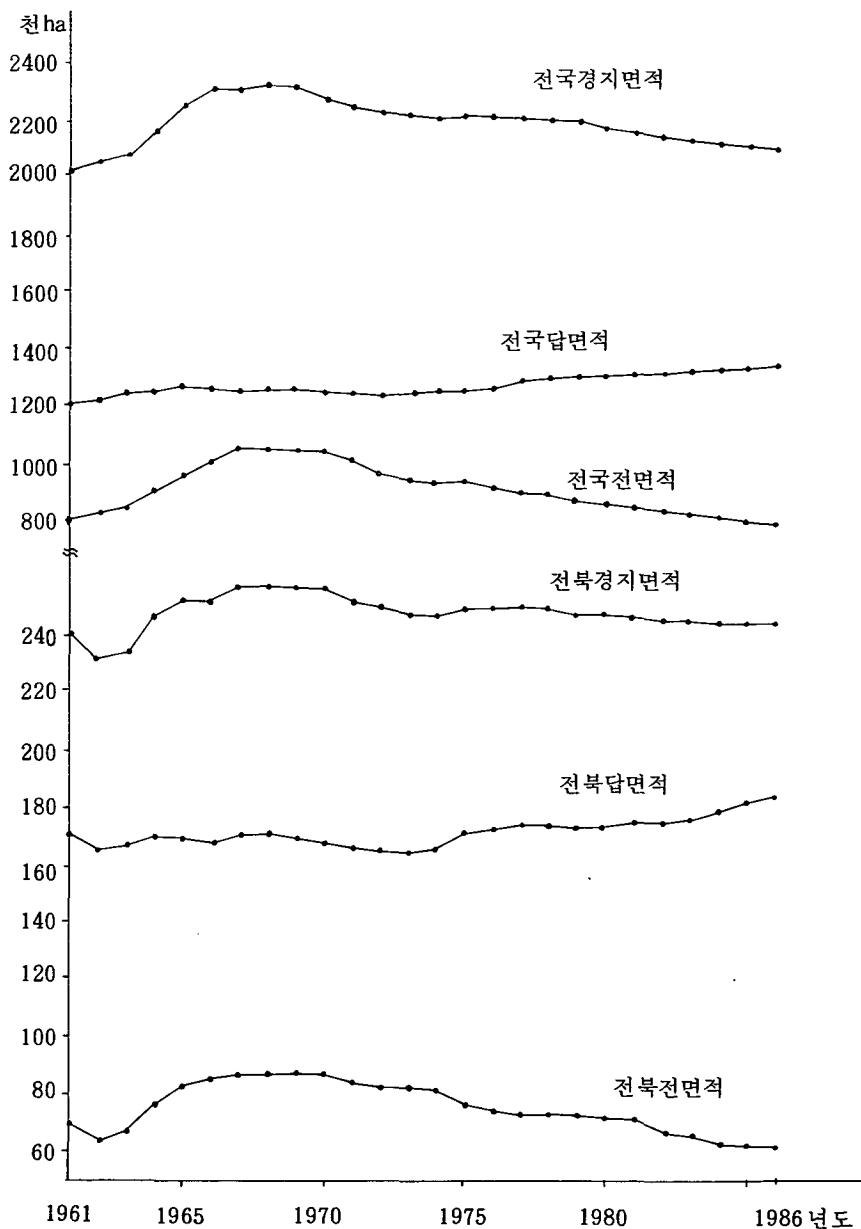
3.7 배, 과수농가·채소농가는 각각 2.2 배, 1.6 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작농가 또한 9.6 배 증가하였다. 後期間(1971~79년)에 성장된 업태는 과수, 채소, 특작부문인데 전작과 축잠농가수의 감소경향은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추이를 전국 업태별 농가호수의 변화와 비교하면, 전북 축잠농가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전북 농가가 국민의 식품소비패턴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축산물생산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태별 농가호수의 변화과정에서 영농형태가 생계농에서 상업적 영농으로 변화해 간다고 생각할 때 미작중심의 전북 농가는 성장농산물 생산에 크게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專兼業別 농가호수의 변화동향을 <表 2-5>에서 보면 前期間(1966~86)에 걸쳐 농업소득의 존율이 높은 전업농가와 1종겸업농가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절대적인 수나 구성비에서 대체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겸업중심의 농가라고 할 수 있는 2종겸업농가는 구성비 뿐만 아니라 절대호수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전겸업별 농가호수의 변화는 전국의 호수변화와 동일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구성비상 아직도 전국에 비해 전업농가비율이 높고 겸업농가 비율이 낮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생각할 때 담작중심의 전북농가는 전통적인 농업중심의 전업적 농가에서 농외활동을 통한 겸업농의 확대는 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아직도 일부 지역 또는 일부 농가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경지면적의 변화

전북의 경지면적은 1968년까지는 증가하다가 다음 해인 196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5~78년간 약간 증가한 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圖 2-2>). 이러한 전북의 경지면적의 추이는 전국의 경지면적 추이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경지면적의 감소추세는 전국과 대비해서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지만 畢面積증가는 전국보다 크게 나타나고, 田面積의 감소 또한 크게 나타난다.

圖 2-2 전국·전북 경지면적의 추이



자료 : 1)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2)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각년도.

<表2-6>에 의하면 전북의 경지면적은 1961~66년간에는 연평균 1.05%씩 증가하였지만 1966~86년간에는 연평균 0.11~0.23%씩 감소하였다. 총경지면적 중 畔面積은 1971년부터 198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田面積은 이와 대조적으로 1971년부터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면적의 감소율이 담면적의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결국 총 경지면적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1970년중반 이후 1986년까지 경지면적의 완만한 감소는 개간, 간척, 매립 등으로 인한 경지면적의 확대보다 도시개발, 공업용지 및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농업의 전용면적이 웃도는

表 2 - 6 전북 경지면적의 변화, 1961~86

구 분	경 지 면 적			호 당 경지면적
	답	전	계	
1961	172,426.6 (71.3)	70,560.1 (28.7)	241,986.7 (100.0)	0.88
1966	169,951.6 (66.7)	85,002.0 (33.3)	254,953.6 (100.0)	0.909
1971	167,950.3 (66.4)	85,106.8 (33.6)	253,057.1 (100.0)	0.90
1976	172,423.3 (68.5)	79,261.4 (31.5)	251,684.7 (100.0)	0.95
1981	175,706.0 (70.5)	73,487.0 (29.5)	249,193.0 (100.0)	1.14
1986	184,536.0 (74.9)	61,821.0 (25.1)	246,357.0 (100.0)	1.21
연평균증감률				
1961~66	-0.29	3.79	1.05	
1966~71	-0.24	0.02	-0.15	
1971~76	0.53	-1.41	-0.11	
1976~81	0.38	-1.50	-0.20	
1981~86	0.99	-3.40	-0.23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감」, 각년도.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증감의 결과 1986년 현재 전북의 총경지면적은 246,357 ha이며 이 중 담은 74.9%인 184,536 ha, 전은 25.1%인 61,821 ha이고,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1.21 ha이다. 이를 동년 전국의 담율(62.05%), 호당 경지면적(1.12 ha)과 비교해 보면 전북 농업은 담작 중심의 농업이며, 離農의 가속에 따라 호당 경지면적의 증가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농업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지조건은 앞에서 언급한 경지면적의 크기 이외에 관배수시설의 유무, 경지정리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¹¹⁾ 전북의 수리안전답면적은 1966년에 110,818.1 ha로써 전체 담면적의 67.7%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6년에는 134,982.2 ha로 불어나 전체 담면적의 73%가水利安全畠이 되었다. 전국은 동기간 59%에서 73%로 증가하였음을 볼 때 전북의 농지기반시설은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영농을 과학화 내지 기계화할 수 있고 자본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지정리는 1984년 65%인 67 천ha가 정리되었고 배수개선의 경우는 배수개선대상면적 374 ha 중 1984년까지 개선된 면적은 94 ha로 그 개선율은 26%에 불과하다.¹²⁾

한편 전북의 경지이용률은 1971년 157%이던 것이 1976년에는 135.0%, 1986년에는 114.0%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전국의 감소추세(1971년 145%에서 1986년 119.8%로)보다 심한 것으로서 맥류를 중심으로 한 2모작 농작물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전북의 경지이용율이 더 저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農家人口의 減少와 機械化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부문의 인구감소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북의 농가인구는 196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67년에 1,385,974

11) 정부의 수리안전면적은 짧에 한하여 발표되고 있지만 잣은 내한능력조사의 변경으로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최근 변경한 것은 1981년도에 실시한 내한능력조사이다.

12) 전라북도, 농수산업무현황, 1985. 6, p. 5.

表 2 - 7 농가인구 추이, 1961~86

	전 국			전 북		
	전체인구	농가인구	비율	전체인구	농가인구	비율
1961	25,700,000	14,508,504	56.5	2,373,487	1,725,489	72.7
1966	29,207,856	15,780,706	54.0	2,521,207	1,773,007	70.3
1971	32,883,000	14,711,828	44.7	2,417,911	1,689,638	69.9
1976	35,860,000	12,785,456	35.7	2,445,149	1,486,249	60.8
1981	38,723,000	9,998,651	25.8	2,297,368	1,110,490	48.3
1986	41,569,000	8,179,560	19.7	2,192,133	896,959	40.9

자료 : 1)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2)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각년도.

인으로 최고에 이르렀다. 그 후 공업화가 본궤도에 오르자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1986년에는 896,959인으로 1967~86년동안 약 94만명의 절대적 감소가 있었다.

농가인구의 상대적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는 전체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율은 <表 2-7>에서와 같이 1961년에 72.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여 1986년에는 농가인구는 40.9%로 감소되었다. 농가인구 구성비의 감소는 전국의 경우와 비슷한 현상이지만 1961년 전국의 농가인구 비율이 56.5%에서 1986년 19.7%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전북은 아직도 농가 인구비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表 2-8>에 의하여 전북의 농가인구의 감소동향을 보면 1968~77년간 연평균 2.55%씩 감소하였지만 1977~86년간에는 두배가 되는 연평균 5.11%씩 감소되어 최근 10년간 그 속도는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인구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농가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를 촉진하였다. <表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년 농가인구 가운데 50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였으나 1986년에는 28.0%로 절반 정도가 증가되었다. 여성인구도 동연령층이 동기간동안 8.2%에서

15.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가인구의 노령화, 부녀화현상은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농촌노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여, 농촌임금지수는 1970~84년 동안 16배로 크게 올랐다. 농촌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농업기계화를 촉진시켜 왔고 이에 따라 농업기계가 널리 보급되어 왔다.

1986년 현재 전북의 농기계 보급율을 <表 2-9>에서 보면 경운기(25.2%), 이앙기(4.3%), 트랙터(1.28%), 콤바인(1.21%), 바인더(0.63%) 순이다. 이를 전국과 비교할 때 <表 2-9>, 농가 100호당 경운기 25.2 대로서 전국의 35.9대, 그리고 바인더는 0.63 대로서 전국의 1.72 대에 비해 낮지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지 기반이 전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기계의 보급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13) 강경일, 「농가경제와 농업 기계화」, 정책토의 시리즈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7. p. 47.

表 2 - 8 전북 농가인구의 감소동향, 1968~86

단위 : 명

구 분	농가인구	연령별					
		13세미만	14 ~ 19	20 ~ 49	50 ~ 59	60~	
1968	총수	1,814,809 (100.0)	756,475 (41.7)	228,004 (12.6)	568,875 (31.3)	144,794 (8.0)	116,671 (6.4)
	남	902,088 (49.7)	389,415 (21.5)	118,960 (6.6)	280,959 (15.5)	66,014 (3.6)	46,740 (2.6)
	녀	912,731 (50.3)	367,060 (20.2)	109,044 (6.0)	287,916 (15.8)	78,780 (4.4)	69,931 (3.8)
1977	총수	1,438,631 (100.0)	518,920 (36.1)	214,292 (14.9)	454,253 (31.6)	124,970 (8.7)	126,196 (8.8)
	남	720,207 (50.1)	267,851 (18.6)	115,442 (8.0)	223,380 (15.5)	59,935 (4.2)	53,599 (3.7)
	녀	718,424 (49.9)	251,069 (17.5)	98,850 (6.9)	230,878 (15.6)	65,035 (4.5)	72,597 (5.1)
1986	총수	896,959 (100.0)	218,184 (24.3)	146,806 (16.4)	280,120 (31.2)	124,107 (13.8)	127,742 (14.2)
	남	439,200 (49.0)	111,018 (12.4)	76,840 (8.6)	139,290 (15.5)	56,808 (6.3)	55,244 (6.2)
	녀	457,759 (51.0)	107,166 (11.9)	69,966 (7.8)	140,830 (15.7)	67,299 (7.5)	72,498 (8.0)
연평균증감률							
1968 ~ 1977		- 2.55	- 4.10	- 0.69	- 2.47	- 1.62	- 0.88
1977 ~ 1986		- 5.11	- 9.18	- 4.12	- 5.23	- 0.08	- 0.14

()안은 총 농가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경우 비율임.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각년도.

表 2 - 9 전국 · 전북의 농기계 보유대수 비교(농가 100호당)

		단위 : 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1971	전국	0. 68	0. 007	—	—
	전북	0. 86	0. 003	—	—
1976	전국	5. 2	0. 03	0. 0001	—
	전북	4. 3	0. 02	0. 0003	0. 005
1981	전국	17. 3	0. 19	0. 75	0. 77
	전북	12. 1	0. 28	0. 95	0. 56
1986	전국	35. 9	0. 85	3. 13	1. 72
	전북	25. 2	1. 28	4. 30	0. 63
1. 21					

자료 : <表 2 - 7 >과 동일.

表 2 - 10 전북 농기계 보급현황, 1971~86

단위 : 대,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1971	2, 447 (0. 86)	8 (0. 003)	—	—	—
1976	11, 518 (4. 3)	64 (0. 02)	1 (0. 0003)	—	14 (0. 005)
1981	26, 444 (12. 1)	619 (0. 28)	2, 067 (0. 95)	1, 218 (0. 56)	332 (0. 15)
1986	51, 489 (25. 2)	2, 622 (1. 28)	8, 779 (4. 30)	1, 280 (0. 63)	2, 475 (1. 21)

()안은 농가 100 호당 보급율 ($\frac{\text{농기계 보유대수}}{\text{총농가 호수}} \times 100$)임.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각년도.

第3章

全北地域 農業의 發展水準

일반적으로 농업발전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통하여 실질생산내지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고정자본의 증가지수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그 발전의 결과 나타나는 생산량을 사용하기도 하나 근래에 와서 특정기간동안의 생산량 또는 소득의 증가로써 나타내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이를 농업성장이라고 부르고 있다.¹⁾ 따라서 本章에서는 전국과 대비하여 첫째, 전북지역의 농업생산성장을 분석하고 둘째,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요소의 투입추세를 고찰하며 셋째, 노동생산성 및 토지생산성의 성장을 분석하고 넷째, 농가소득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북 농업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전국 농업에서 전북 농업의 위상을 파악함으로써 2장과 3장의 소결을 맺고자 한다.

다만 지역통계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전북 지역농업의 발전모습을 그려낸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장을 분석하는 데

1) 金文植, 「農業經濟學概論」, 一潮閣 1975. pp. 25 ~ 26

는 기존연구의 분석결과²⁾ 그리고 지극히 단편적인 농가소득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1. 全北地域 農業의 成長

가. 농업총생산의 성장

농업성장을 주어진 농업체자원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생산되어지는 생산물의 가액이 증대하는 것이라 할 때 그 성장속도는 성장률로 나타낼 수 있다.

〈表 3-1〉은 전국과 대비한 전북의 농업총생산률의 변화이다. 1956 ~ 83년에 걸쳐 전북 농업총생산의 성장률은 전국의 3.4 %에 비해 낮다. 이를 시기별로 보아도 낮은 수준에 있다. 단지 경제개발초기인 1962 ~ 67년에는 전국의 4.4 보다 5.2 %로 높다. 이는 이 시기에 전북 농업성장이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농업정책, 미공법 480호에 의한 양곡지원을 받은 대대적인 농지개간사업에 크게 힘입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농업총생산의 성장은 농업생산지수와 농업성장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북 농업생산지수는 〈圖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생산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1973년부터 결정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매년 농업성장률의 변동을 보면 이것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전북의 농업성장률의 진폭이 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 매우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

2) 본장의 가-다점은 劉永鳳, “韓國經濟發展と農業生產構造: 1955 ~ 1984年一時期別 地域別 マクロ分析,” 1987의 附表(pp. 94 ~ 126)를 기초로 하여 分析하였다. 이 장에서의 분석시기는 3개년 이동평균으로 인해 1956 ~ 83년 기간이다.

圖 3 - 1 전북 농업생산지수와 연평균 농업성장률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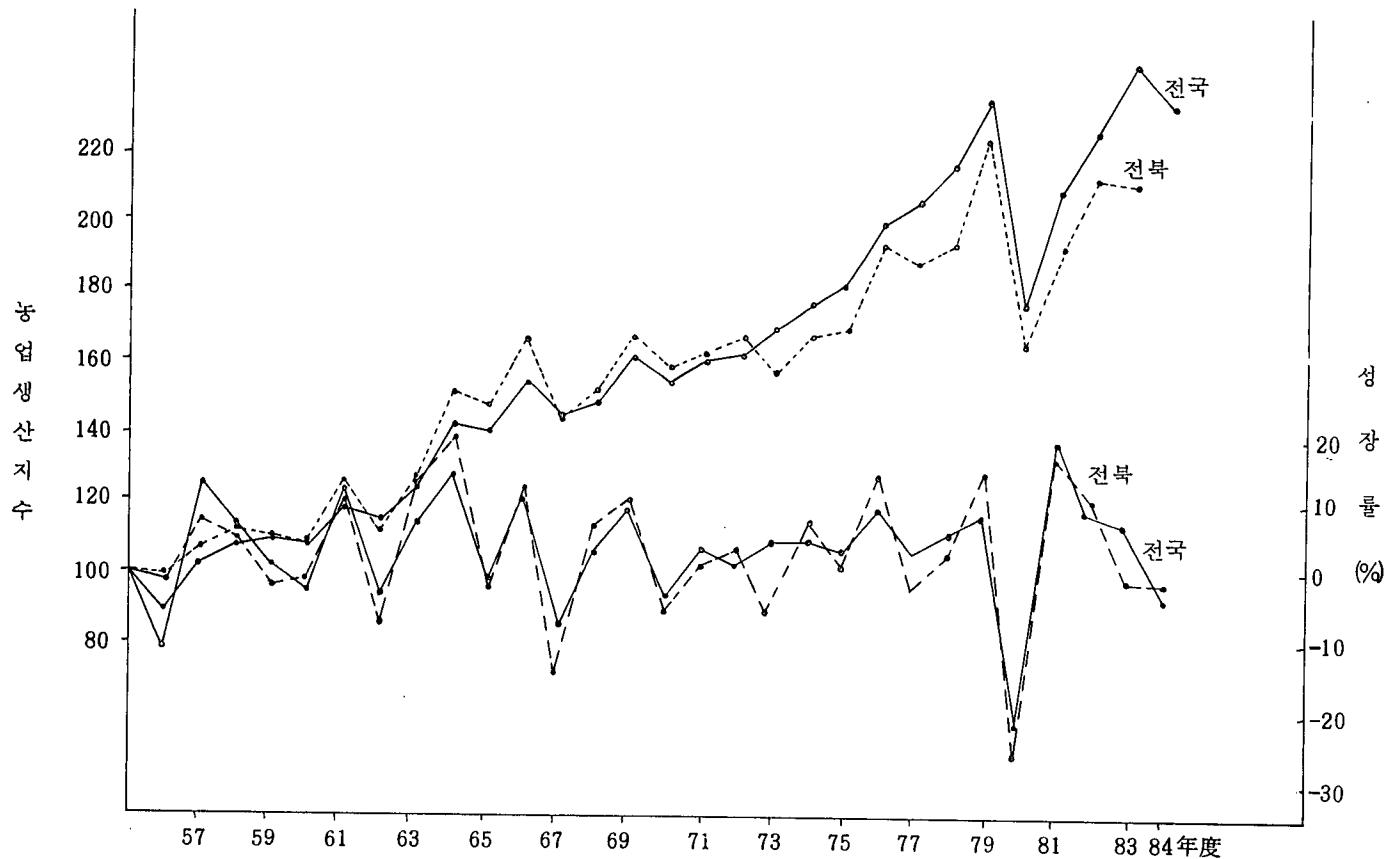


表 3 - 1 농업총생산의 성장률*, 1956~83

	전 국	전 북	단위 : %
1956 ~ 62	3.7	2.2	
1962 ~ 67	4.4	5.7	
1967 ~ 72	2.1	0.9	
1972 ~ 77	4.9	3.6	
1977 ~ 83	2.0	1.6	
1956 ~ 83	3.4	2.8	

*3개년 이동평균치임.

나. 농산물간의 성장률 비교

농업생산률은 크게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으로 나눈다. 전국과 전북의 1956~83년동안 유별 농산물의 성장률을 <表 3-2>에서 비교해 보면 흡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몇 가지 특성이 관찰된다. 첫째, 전북지역은 경종농업의 특성이 강하다. 전국의 축산물생산의 성장률은 전기간을 통하여 연평균 4.4%로서 경종생산의 3.1%보다 높지만 전북의 그것은 연 1.9%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경종생산의 2.9%보다 낮다. 둘째, 미곡중심의 농업이라는 점이다. 전기간에 걸쳐 전북의 미곡생산성장률은 연 3.0%로서 전국의 2.5%보다 높다. 실제로 전북의 미곡생산이 전북 전체농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³⁾ 세째, 기간별로 보아서 성장농산물인 전북의 채소, 과실의 연평균 성장률은 분석시기중 후기에 이르러 가속화되고 있다.

다. 농산물 구성비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농산물간의 성장률차이는 필연적으로 농산물간의 생산액

3) 1958~75년동안 농업성장에 대한 미곡성장의 기여도를 보면 전북은 48.88%로서 전국의 45.78%에 비해 크다(朴正根, 地域農業成長과 構造分析—全北農業生產의 成長을 中心으로, 農業經濟研究, 第19輯, 1977, P. 57).

表 3-2 농산물 유별 연평균 성장률*, 1956~83

단위 : %

	1956 ~ 62		1962 ~ 67		1967 ~ 72		1972 ~ 77		1977 ~ 83		1956 ~ 83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경종작물	3.5	3.0	5.0	6.0	1.9	0.9	4.7	3.5	0.9	1.4	3.1	2.9
미곡	3.4	2.9	0.9	2.5	2.6	1.8	6.9	6.9	-9.8	1.2	2.5	3.0
백류·잡곡류	3.4	5.3	8.6	16.0	-2.0	-1.2	-7.3	-8.4	-5.5	-6.8	-0.8	0.5
서류·두류	4.1	4.8	9.8	9.5	-1.9	-2.3	1.2	-9.1	-4.8	-7.0	1.4	-1.1
채소·과실	4.1	0.3	14.3	10.0	4.2	0.9	6.4	4.4	10.0	11.1	7.7	5.1
기타	3.3	0.8	12.7	18.4	9.0	8.3	7.0	9.8	-9.3	-6.7	4.9	4.6
축산물	4.6	1.6	1.4	-0.3	3.0	1.0	5.5	4.4	6.8	3.0	4.4	1.9
농업총생산	3.7	2.7	4.4	5.2	2.1	0.9	4.9	3.6	2.0	1.6	3.4	2.8

* 3개년 이동평균치임.

表 3 - 3 농산물 유별 생산액의 구성비

단위 : %

	1956		1962		1967		1972		1977		1983	
	전국	전북										
경 종 작 물	82.7	83.7	81.8	84.7	84.2	88.3	83.5	88.3	82.9	87.8	77.6	86.8
미 곡	53.0	56.7	52.0	57.2	43.9	50.4	45.0	52.5	49.6	61.5	42.0	59.9
백류 · 잡곡류	11.9	6.8	11.7	7.9	14.2	12.8	11.6	11.5	6.3	6.2	4.0	3.7
서류 · 두류	7.8	9.2	8.0	10.3	10.3	12.7	8.5	10.7	7.1	5.6	4.7	3.3
채 소 · 과 실	7.8	9.4	8.0	7.8	12.6	9.8	13.9	9.8	15.0	10.2	23.6	17.3
기 타	2.2	1.6	2.2	1.5	3.2	2.6	4.4	3.8	4.9	4.4	3.3	2.6
축 산 물	17.3	16.3	18.2	15.3	15.8	11.7	16.5	11.7	17.1	12.2	22.4	13.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1980년도 불변가격임.

2) 3개년 이동평균치임.

구성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식품소비형태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하다.

〈表 3-3〉의 농산물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장기적으로 경종에 의한 생산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축산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북의 미곡생산액 구성비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부를 만큼 전기 간에 걸쳐 크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북 농업이 미곡중심의 농업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식품소비형태의 변화에 아직 적응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2. 生産要素의 投入 推移

농업성장은 토지, 노동, 자본의 증투에 크게 의존한다. 생산요소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노동, 토지, 비료, 그리고 기계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주요 생산요소의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은 〈表 3-4〉와 같다. 농업생산의 기본요소인 노동과 토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기간을 통해 1960년 대 후반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급속한 도시

表 3-4 生산요소의 연평균 성장률*

단위 : %

	노동		토지		비료		기계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1956 ~ 62	-0.1	-1.8	0.5	-0.2	7.9	7.7	30.7	106.1
1962 ~ 67	0.9	0.0	2.3	1.6	7.1	5.7	39.3	41.8
1967 ~ 72	1.7	1.5	-0.5	-0.5	8.1	9.4	39.0	36.2
1972 ~ 77	0.4	0.2	-0.2	0.1	1.9	2.1	30.3	26.5
1977 ~ 83	-4.0	-5.4	-0.5	-0.2	-1.2	-1.9	20.7	17.6
1956 ~ 83	-0.4	-1.3	0.3	0.1	4.6	4.4	31.3	43.7

* 3개년 이동평균치임.

화, 공업화 등으로 인한 농지의 농업외 전용과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농촌의 절대인구의 감소에 기인한다. 이와는 달리 비료, 기계의 1956~83년간 연평균 성장을은 1970년 후반부터 감소되기는 하나 각각 높은 성장을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뚜렷한 증가는 기계의 증투이다. 비료에 의한 생화학적 기술은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생산증대를 가져오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고 있다. 기계의 현저한 증가는 농업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농촌노임의 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을 기계로 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전국과 전북을 비교해 볼 때 전북의 생산요소투입은 전기간에 걸쳐 저위의 수준에 있는데 이것은 농업생산의 저위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3. 農業生產性의 成長

농업생산의 증감은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와 이들 요소의 생산성변화에 의해 이루어 진다. 농업생산성은 농업생산에 사용된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는 농업 생산성의 원천이 되는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表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6~83년동안 전국이나 전북의 노동 생산성의 연평균 성장을은 각각 3.7%, 4.1%로서 토지생산성의 3.0%, 2.6%보다 각각 0.7%, 1.5%가 높다. 노동생산성은 1967~72년간을 제외하고 계속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생산성을 기간별로 보면 계속 정의 성장을 보이다가 1972~77년간에는 전국과 전북의 토지생산성은 각각 5.1%, 3.4%라는 분석기간중에 가장 높은 성장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수확미곡신품종의 보급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한편 기술발달의 방향을 보면 토지절약적 기술진보에서 1970년대 초부터는 농업노동력감소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용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높아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의 노동생산성이 1970년대 후반 전국의 노동 생산성 향상보다 높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경향은 매우 뚜렷하다. 전

表 3 - 5 노동생산성 및 토지생산성의 성장을 *

단위 : %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전국	전북	전국	전북
1956 ~ 62	3. 8	4. 6	3. 1	3. 0
1962 ~ 67	3. 4	5. 2	2. 0	3. 5
1967 ~ 72	0. 3	- 0. 5	2. 6	1. 4
1972 ~ 77	4. 5	3. 4	5. 1	3. 4
1977 ~ 83	6. 3	7. 5	2. 5	1. 9
1956 ~ 83	3. 7	4. 1	3. 0	2. 6

* 3개년 이동평균치임.

북의 노동생산성이 전국보다 높은 것은 빠른 이농의 속도에 따라 자본장비율의 증대, 노동단위당경지면적의 확대가 전국에 비해서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 農家所得構造의 變化

농가소득은 농업을 경영하여 그 성과로 얻는 농업소득과 농업이외의 활동으로 얻은 농외소득으로 구성된다. 농가소득은 농업경영의 결산으로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경제상의 이익이다. 따라서 이 농가소득이야 말로 영농활동의 목표나 농민복지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농가소득을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게 나타낸 통계는 현재로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내무부의 내부자료로 이용 되는 전북의 새마을지도과의 농가소득자료를 보기로 한다.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가지만 전북지역의 농가소득구조를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表 3 - 6〉은 전북의 호당 농가소득을 전국과 대비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북의 호당 농가소득은 1972년 451천원이 증가하였고 전국 호당 농가

소득은 같은 기간 중 426천원에서 2,647천원으로 2,221천원 증가하였다. 1976년부터는 「農道」인 전북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나 계속 낮은 수준에 있다.

한편 농가소득에 대한 농의소득의 비율을 보면 1972년 20%에서 1980년에는 31%로 크게 향상되었지만 이것 또한 전국의 구성비율과 비교해서 뒤떨어지고 있다.⁴⁾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농가소득구조의 변화는 겹업소득 및 사업이외소득의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알겠지만 전북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表 3 - 6 농가소득 추이, 1972~80

단위 : 호당 천원, %

區分 年度	全 國	全 北	農 業	農 外
1972	426(100.0) ¹⁾	451(105.9) ¹⁾	361(80.0) ²⁾	90(20.0) ²⁾
1973	529(100.0)	532(100.9)	437(82.2)	95(17.8)
1974	712(100.0)	759(106.6)	650(85.7)	109(14.3)
1975	961(100.0)	985(102.5)	821(83.3)	164(16.7)
1976	1,301(100.0)	1,171(90.0)	965(82.4)	206(17.6)
1977	1,587(100.0)	1,531(96.5)	1,191(77.8)	340(22.2)
1978	1,981(100.0)	1,908(96.3)	1,416(74.2)	492(25.8)
1979	2,403(100.0)	2,349(97.8)	1,705(72.6)	644(27.4)
1980	2,647(100.0)	2,624(99.1)	1,803(68.7)	821(31.3)

1) 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전북의 농가소득임.

2) 전북 농가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율임.

자료 : 전라북도, 「전북종합개발계획(1982~1991)」, 1982, p.330.

4) 농수산부의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농가소득의 농의소득비율의 전국 평균은 1972년 27.7%, 1980년 34.9%였다.

表 3-7 전북 시·군별 농가소득, 1978~80

單位: 千원, %

市郡別	區分	年度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計		1,908 (100.0)	1,416 (74.2)	492 (25.8)	2,349 (100.0)	1,705 (72.6)	644 (27.4)
全 州		1,873 (100.0)	1,384 (73.9)	489 (26.1)	2,453 (100.0)	1,712 (69.8)	741 (30.2)
群 山		1,834 (100.0)	829 (56.1)	805 (43.9)	2,214 (100.0)	987 (44.6)	1,227 (55.4)
裡 里		1,824 (100.0)	1,967 (53.0)	857 (47.0)	2,188 (100.0)	1,082 (49.5)	1,105 (50.5)
完 州		1,867 (100.0)	1,363 (73.0)	504 (27.0)	2,296 (100.0)	1,626 (70.8)	670 (29.2)
鎮 安		1,901 (100.0)	1,549 (81.5)	352 (18.5)	2,271 (100.0)	1,815 (79.9)	456 (20.1)
茂 朱		1,816 (100.0)	1,387 (76.4)	429 (23.6)	2,205 (100.0)	1,614 (73.2)	591 (21.8)
長 水		1,828 (100.0)	1,375 (75.2)	453 (24.8)	2,282 (100.0)	1,629 (71.4)	653 (28.6)
任 實		1,747 (100.0)	1,384 (79.2)	363 (20.5)	2,237 (100.0)	1,747 (78.1)	490 (21.9)
南 原		2,017 (100.0)	1,244 (61.7)	773 (38.3)	2,492 (100.0)	1,528 (61.3)	964 (38.7)
淳 昌		1,821 (100.0)	1,366 (75.0)	455 (25.0)	2,296 (100.0)	1,671 (72.8)	625 (27.2)
井 邑		1,991 (100.0)	1,428 (71.7)	563 (28.3)	2,446 (100.0)	1,680 (68.7)	766 (31.3)
高 敏		1,913 (100.0)	1,502 (78.5)	411 (21.5)	2,366 (100.0)	1,869 (79.0)	497 (21.0)
扶 安		1,911 (100.0)	1,347 (70.5)	564 (29.5)	2,285 (100.0)	1,727 (75.6)	558 (24.4)
金 堤		1,949 (100.0)	1,499 (76.9)	450 (23.1)	2,456 (100.0)	1,837 (74.8)	619 (25.2)
沃 溝		1,902 (100.0)	1,388 (73.0)	514 (27.0)	2,374 (100.0)	1,735 (73.1)	639 (26.9)
益 山		1,868 (100.0)	1,491 (79.8)	377 (20.2)	2,239 (100.0)	1,784 (79.1)	455 (20.3)

市郡別 區分	年度	1980			年平均 增加率 (%)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計		2,624 (100.0)	1,803 (68.7)	821 (31.3)	11.2	12.8	29.2
全 州		2,764 (100.0)	1,716 (62.1)	1,048 (37.9)	13.9	11.4	46.4
群 山		2,466 (100.0)	903 (36.6)	1,563 (63.4)	10.4	△ 6.7	39.3
裡 里		2,577 (100.0)	1,219 (47.3)	1,358 (52.7)	12.2	12.3	25.9
完 州		2,625 (100.0)	1,819 (69.3)	806 (30.7)	12.0	15.5	26.5
鎮 安		2,470 (100.0)	1,813 (73.4)	657 (26.6)	9.1	8.2	36.6
茂 朱		2,258 (100.0)	1,470 (65.1)	788 (34.9)	7.5	2.9	35.5
長 水		2,400 (100.0)	1,565 (65.2)	835 (34.8)	9.5	6.7	35.8
任 實		2,481 (100.0)	1,796 (72.4)	685 (27.6)	12.4	13.9	37.4
南 原		2,617 (100.0)	1,418 (54.2)	1,199 (45.8)	9.1	6.8	24.5
淳 昌		2,561 (100.0)	1,846 (72.1)	715 (27.9)	12.0	16.2	25.4
井 邑		2,788 (100.0)	1,793 (64.3)	995 (35.7)	11.9	12.1	32.9
高 故		2,504 (100.0)	1,973 (78.8)	531 (21.2)	9.4	14.6	13.7
扶 安		2,611 (100.0)	1,909 (73.1)	702 (26.9)	11.0	19.0	11.6
金 堤		2,815 (100.0)	1,973 (70.1)	842 (29.9)	13.0	14.7	36.8
沃 溝		2,685 (100.0)	1,850 (68.9)	835 (31.1)	12.2	15.4	27.5
益 山		2,637 (100.0)	2,038 (77.3)	599 (22.7)	12.2	16.9	26.0

資料 : 전라북도, 앞의 책, p. 331.

또한 시군별 농가소득을 <表3-7>에서 보면 1980년 전북 호당 평균 농가소득을 기준하여 전북지역 내 선진농업권과 후진농업권으로 나눌 수 있다. 선진농업권은 전주, 완주, 정읍, 김제, 옥구, 익산이며, 후진농업권은 군산, 이리,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부안이라 할 수 있다. 시군별 농외소득을 보면 군산, 이리, 남원의 도시지역이 농외소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낮은 고창군은 가장 높은 군산시와 3배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농가소득의 추이를 볼 때 전북 농가소득은 전국의 평균수준과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상대적 격차는 전북지역내 더욱 확대됨을 알 수 있다.⁵⁾ 이러한 전북 호당 농가소득의 상대적 저위성은 그간의 공업화위주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나라 농업현실의 하나의縮圖이다.

5. 全國 農業에서 全北農業의 位相

이와 같이 전북 지역농업의 대체적인 흐름의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전북 지역농업의 생산여건과 변화동향, 그리고 발전수준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지역의 농업생산여건은 전북지역을 전체적으로 농업중심의 경제, 답작중심의 농업이 되게 하였으며 특히 서부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한 호남평야의 미작농업은 전북경제의 基幹을 형성하도록 하여 왔다. 이같은 특성은 경제적으로 식량공급의 기지, 생산기술적으로 미곡을 중심으로 기술발전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쌀중심의 전북 경제는

5) 내무부의 내부 조사자료인 시군별 1인당 주민소득을 보아도 1980년 전북 주민 1인당 소득은 659천원으로 전국 평균의 72%에 해당하며 시부주민의 경우는 878천원으로 96% 군부주민의 경우는 507천원으로 전국 평균의 62%에 불과하다(전라북도, 앞의 책, p. 79참조).

그동안의 편향된 개발정책의 결과 전북 경제의 상대적 낙후성이라는 상황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전북인은 문화적으로 자연적 특성에는 대체로 만족하면서 지역 발전을 강력히 희구하고 있는 진취적, 근대적 가치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둘째, 전북 지역 농업의 변화동향에서 본다면 농가호수 및 농기인구의 감소, 그리고 경지면적의 추세는 전국과 대체로 동일한 양상을 보여왔으나 전국의 평균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그 답작농업의 특성으로 인해 답면적은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1970년대부터 완만히 증가되었다. 이상의 변화동향을 종합할 때 전북지역의 변화는 우리나라 농업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북 지역 농업의 발전수준을 성장면에서 전국과 대비하여 볼 때 미곡을 제외한 농산물간, 생산요소간 모든 부문에서 전국 평균수준보다 뒤떨어져 있고 전북지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낙후성은 전북의 농촌경제 더 나아가 전북 경제의 정체성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놓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인구감소는 더욱 전북지역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전북지역 농업의 상대적, 누적적 낙후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전북 지역 농업의 상대적 낙후성은 식품수요 패턴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미곡편중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머물은 데에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전북지역의 자기운동과 관계없이 공업화라는 우선 목표 아래 주곡과 생산기술 중심이라는 전국의 획일적인 국가정책에 기인한 것인가라는 의문인 것이다.

사실 지난 4 반세기에 걸친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은 한국경제의 기적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의 저하, 도농간 소득격차, 농가부채의 누적적 증가, 소작제의 확대, 이농의 증가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심각한 농업의 파폐화가 도처에서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 지역 농업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외지향형 공업화정책’ 또는 ‘수출제일주의’라는 역사적 위상속에서 전북 지역 농업을 파악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운영전반

에 걸친 메카니즘 속에서 전국 농업이 어떻게 체현되어 왔는가를 보고 그 전체 메카니즘과 연관지워 하나의 지역 단위인 전북 농업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전북 지역 농업을 평가할 때 그동안의 고도성장과정에서 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의 극대화를 위해 전북지역은 값싼 노동력, 값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북 지역 농업 문제가 그 자율적인 성격에서 야기된 문제라기 보다 전국 농업이 직면하는 문제로 파악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도래할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북지역의 농업 발전 전략은 전북지역이 가진 농업지대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第 4 章

全北地域 農業生產構造의 特性

1. 資料 및 農業生產額 推定方法

全北地域의 農業總生產額은 一定期間에 生產된 耕種作物, 家畜 및 畜產物의 價額으로 定義했으며, 全北지역에서 生產되는 모든 農業生產物의 市場價值額을 말한다.

各作物 및 家畜의 市郡別 生產量에 대한 統計는 「全北統計年報」와 各市郡別 「統計年報」에서 얻고 農協에서 發刊한 「物價總覽」의 가격정보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생산량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한 품목은 農業總生產額 推計에서 제외되었다. 각 부문은 米穀(1 품목), 麥類(3 품목), 雜穀(4 품목), 果樹(5 품목), 豆類(3 품목), 薯類(2 품목), 菜蔬(13 품목), 特作(3 품목), 家畜(4 품목), 畜產物(2 품목)의 總 41 개 품목을 9개 부문으로 分類하여 전북 16개 市·郡別 農業總生產額을 推計하였으며 그結果는 <表 4-1>, <表 4-2>에 나타나 있다.¹⁾ 1958 ~ 75년까지의 전북 農業총생산액의 성장분석은 이미 행하여 졌기 때문에 (朴正根, 1977

1) 남원과 정읍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市로 승격하였으나 자료의 一致를 위하여 남원시와 정주시는 각각 남원군과 정읍군에 포함하여 추계함.

a, 1977b) 본연구에서는 1975 ~ 86년에 걸친 推計와 分析에 한정하였다.²⁾ 가격변화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農家販賣價格總指數로 deflate 한 1985년 不變價格을 기준으로 農業總生產額을推定하였다. 사실 농산물의 총생산은 농가판매가격총지수로 deflate 할 경우와 농가판매가격유별지수로 deflate 할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생산물간의 가격의 상대적 변화는 소비자 기초의 변화와 그에 따른 효용의 상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농가판매가격총지수로 deflate 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밖에 농업생산액의 推定方法은 潘性純(1974)의 附錄에 準하였다.

2. 部門別 및 地域別 農業生產成長의 變化分析

전북 농업생산은 1975 ~ 86년의 11년에 걸쳐 2.75 %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을 보여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表 4 -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북 농업생산은 미곡이 1975년 60.08 %, 1986년 67.73 %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평균 성장률도 3.88 %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맥류의 성장이 -15.16 %, 서류의 성장이 -15.31 %, 두류의 성장이 -0.48 %로 負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특히 맥류는 1975년의 14.30 %에서 1986년 1.74 %로 그 구성비가 낮아져서 급격한 脊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미곡이외의 기타식량작물의 감소는 과수, 채소, 특작, 축산의 성장작물의 신장으로 대체되고 있어 최근의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으로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소득변화에 따른 상대적 수요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작과 과수는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액이 작기

2) 朴正根, 「전북 농업생산성장분석」 전북대학교 논문집 Vol. 19, pp. 173 ~ 184, 1977.

朴正根, 「지역 농업성장과 구조분석」 농업경제연구 Vol. 19, pp. 53 ~ 65, 1977.

表 4 - 1 전북의 품목별·지역별 농업생산액 추계, 1975

단위 : 10 만원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총계
전 주	75,647	22,507	66	1,548	6,260	29,741	1,608	16,171	16,632	170,180
군 산	42,234	9,384	193	595	3,821	10,644	303	2,903	6,930	77,007
이 리	69,137	15,037	16	856	12,167	7,675	1,615	1,161	9,632	117,296
완 주	397,646	117,908	936	10,854	17,277	59,849	5,376	19,269	64,349	693,464
진 안	183,208	36,738	665	17,254	14,609	55,195	5,365	658	44,858	358,550
무 주	108,572	35,127	366	14,759	5,692	46,911	3,486	808	31,261	246,982
장 수	158,563	35,918	94	11,078	9,585	35,344	5,449	3,046	37,828	296,905
임 실	221,155	59,382	440	9,826	11,451	86,331	6,028	6,664	55,405	456,682
남 원	426,926	79,685	294	19,896	24,772	43,853	4,011	3,476	74,711	677,624
순 창	234,877	63,559	190	15,645	13,762	32,403	6,109	3,389	50,053	419,987
정 읍	552,377	169,015	639	14,036	55,506	55,874	7,681	13,339	74,652	943,119
고 창	441,299	147,546	1,376	21,911	40,796	57,987	13,696	8,977	70,287	803,875
부 안	434,265	131,949	433	9,177	40,516	40,282	19,160	2,862	35,597	714,241
김 제	798,316	122,403	239	11,662	28,159	61,692	10,740	8,536	59,108	1,100,855
옥 구	438,740	88,395	162	4,601	17,136	33,516	2,141	685	31,020	616,396
익 산	621,965	103,951	376	6,340	82,046	72,430	11,191	3,280	69,112	970,691

表 4 - 2 전북의 품목별·지역별 농업생산액 추계, 1986

단위 : 10 만원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총계
전 주	108,214	1,397	55	645	528	35,082	563	17,114	34,053	197,651
군 산	52,406	772	29	268	133	9,286	466	7,573	7,291	78,224
이 리	177,275	7,219	49	735	176	20,310	1,702	1,471	23,866	232,803
완 주	500,826	13,488	754	10,504	5,334	235,536	6,356	67,948	99,555	940,301
진 안	236,650	1,853	815	3,203	887	81,931	3,453	5,250	59,705	393,747
무 주	143,225	758	923	11,309	1,646	66,511	2,541	15,032	47,087	289,032
장 수	206,954	7,311	675	8,981	1,418	45,018	892	3,359	41,023	315,631
임 실	276,145	12,065	1,112	12,752	2,793	93,344	1,295	10,574	52,592	462,672
남 원	595,933	28,248	776	15,831	3,379	105,559	3,777	9,756	95,538	858,797
순 창	369,006	20,873	815	15,883	2,861	57,724	1,875	3,615	54,180	526,832
정 읍	926,333	24,810	1,555	17,160	5,440	186,252	5,009	28,311	149,476	1,344,346
고 창	725,350	21,512	819	21,019	16,021	230,790	190,785	10,258	138,680	1,355,234
부 안	750,231	14,892	2,408	12,058	5,591	103,738	15,658	15,032	58,084	977,692
김 제	222,368	22,601	534	12,951	5,168	153,740	13,984	29,359	149,431	1,610,136
옥 구	688,582	19,740	220	6,904	624	43,296	1,342	15,032	68,060	843,800
익 산	934,041	5,581	236	11,066	9,679	104,001	15,392	15,990	160,351	1,256,337

表 4 - 3 전북의 부문별 농업생산액 구성비와 성장률

생산액 단위 : 10 만원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총계
1975년										
생 산 액	5,204,927	1,238,504	6,485	170,038	383,555	729,727	103,959	95,224	731,435	8,663,854
구 성 비	(60.08)	(14.30)	(0.07)	(1.96)	(4.43)	(8.42)	(1.20)	(1.10)	(8.40)	(100.00)
1986년										
생 산 액	7,913,539	203,120	11,775	161,269	61,678	1,572,118	265,090	255,674	1,238,972	11,683,235
구 성 비	(67.73)	(1.74)	(0.10)	(1.38)	(0.53)	(13.46)	(2.27)	(2.18)	(10.60)	(100.00)
연 평균 성장률 (%)	3.88	- 15.16	5.57	- 0.48	- 15.31	7.23	8.88	9.39	4.91	2.75

表 4 - 4 농업성장에 대한 품목별 농산물 기여, 1975~86

단위 : %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총계
89.71	-34.29	0.18	-0.29	-10.66	27.90	5.34	5.31	16.81	100.00

表 4 - 5 시·군별 농업생산의 구성과 성장을

생산액 단위 : 10 만원

시군	1975		1986		성장률(%)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전주	170, 180	1. 96	197, 651	1. 69	1. 37
군산	77, 007	0.89	78, 224	0.67	0.14
이리	117, 296	1. 35	232, 803	1. 99	6. 43
완주	693, 464	8. 00	940, 301	8. 05	2. 81
진안	358, 550	4. 14	393, 747	3. 37	0.85
무주	246, 982	2. 85	289, 032	2. 47	1. 44
장수	296, 905	3. 43	315, 631	2. 70	0.56
임실	456, 682	5. 27	462, 672	3. 96	0.12
남원	677, 624	7. 82	858, 797	7. 35	2. 18
순창	419, 987	4. 85	526, 832	4. 51	2. 08
정읍	943, 119	10. 89	1, 344, 346	11. 51	3. 27
고창	803, 875	9. 28	1, 355, 234	11. 60	4. 86
부안	714, 241	8. 24	977, 692	8. 37	2. 90
김제	1, 100, 855	12. 71	1, 610, 136	13. 78	3. 52
옥구	616, 396	7. 11	843, 800	7. 22	2. 90
익산	970, 691	11. 20	1, 256, 337	10. 75	2. 37
전북	8, 663, 854	100	11, 683, 235	100	2. 75

때문에 전북 농업생산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기 어렵고 〈表 4-4 참조〉 채소와 축산이 어느 정도 전북 농업성장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거의 90% 가 미곡생산의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농업생산의 성장을 보면 〈表 4-5〉에서와 같이 이리, 김제, 정읍, 고창, 옥구, 완주, 부안은 전북 평균성장률보다 높으나 임실, 군산 등 나머지 9개 시군은 평균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다.³⁾ 특히, 임실과 군산은 연평균 성장율이 각각 0.12%와 0.14%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김제, 정읍, 익산등 성장지역의 농업생산이 전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북 농업생산의 성장은 이러한 성장지역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농업생산의 성장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보기 위하여 각 시·군별 농업생산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表 4-6〉, 〈表 4-7〉에서 살펴볼 수 있다. 表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성장지역은 미곡생산의 비중이 크고 1975년에 비하여 1986년에 미곡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다만 이리, 김제, 정읍, 고창, 옥구, 완주, 부안의 7개 성장지역 가운데 고창은 특작이 1975년의 1.70%에서 1986년에 14.08%로 늘어난 대신에 미곡은 54.9%에서 53.52%로 줄었으며, 완주는 1975년과 1986년 사이에 미곡이 57.34%에서 53.26%로 줄어들고 채소가 8.63%에서 25.05%로 확대되었다. 나머지 이리, 정읍, 옥구, 완주, 부안 등 5개의 시·군지역에서 미곡의 비중이 전북 평균에 비하여 높을 뿐만 아니라 1986년에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전북 농업성장은 과수, 축산, 특작, 채소 등 소비패턴과 소득상승에 따른 성장작목으로의 변화가 아닌 미곡생산에 의하여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장률이 전북 평균보다 낮은 9개의 시·군지역은 1975년과 1986년 사이에 맥류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른 다른 경종작물의 확대를 가져 왔으나 미곡생산에 비하여 그 절대적

3) 이리의 농업성장률이 6.43%로 높은 반면에 익산이 2.37%로 낮은 것은 행정 구역 변경에 따른 결과이며, 이리는 과대평가되고 익산은 과소평가되었다. 따라서 두 지역을 합한 농업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2.89%가 된다.

表 4 - 6 지역별 농업생산 구성비, 1975

단위 : %

	전 북 총생산	전주	군산	이리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옥구	익산
미 곡	60.08	44.45	54.84	58.94	57.34	51.10	43.96	53.41	48.43	63.00	55.92	58.57	54.90	60.80	72.52	71.18	64.07
백 류	14.30	13.23	12.19	12.82	17.00	10.25	14.22	12.10	13.00	11.76	15.13	17.92	18.35	18.47	11.12	14.34	10.71
잡 곡	0.07	0.04	0.25	0.01	0.13	0.19	0.15	0.03	0.10	0.04	0.05	0.07	0.17	0.06	0.02	0.03	0.04
두 류	1.96	0.91	0.77	0.73	1.57	4.81	5.98	3.73	2.15	2.94	3.73	1.49	2.73	1.28	1.06	0.75	0.65
서 류	4.43	3.68	4.96	10.37	2.49	4.07	2.30	3.23	2.51	3.66	3.28	5.89	5.07	5.67	2.56	2.78	8.45
채 소	8.42	17.48	13.82	6.54	8.63	15.39	18.99	11.90	18.90	6.47	7.72	5.92	7.21	5.64	5.60	5.44	7.46
특 작	1.20	0.94	0.39	1.38	0.78	1.50	1.41	1.84	1.32	0.59	1.45	0.81	1.70	2.68	0.98	0.35	1.15
과 수	1.10	9.50	3.77	0.99	2.78	0.18	0.33	1.03	1.46	0.51	0.81	1.41	1.12	0.40	0.78	0.11	0.34
축 산	8.44	9.77	9.00	8.21	9.28	12.51	12.66	12.74	12.13	11.03	11.92	7.92	8.74	4.98	5.37	5.03	7.12

表 4 - 7 지역별 농업생산 구성비, 1986

단위 : %

	전 북 총생산	전주	군산	이리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옥구	익산
미 곡	66.22	54.75	66.99	76.15	53.26	60.10	49.55	65.57	59.68	69.39	70.04	68.91	53.52	76.73	75.92	81.60	74.35
깻 류	1.68	0.71	0.99	3.10	1.43	0.47	0.26	2.32	2.61	3.29	3.96	1.85	1.59	1.52	1.40	2.34	0.44
잡 곡	0.10	0.03	0.04	0.02	0.08	0.21	0.32	0.21	0.24	0.09	0.15	0.12	0.06	0.25	0.03	0.03	0.02
두 류	1.37	0.33	0.34	0.32	1.12	0.81	3.91	2.85	2.76	1.84	3.01	1.28	1.55	1.23	0.80	0.82	0.88
서 류	0.53	0.27	0.17	0.08	0.57	0.23	0.57	0.45	0.60	0.39	0.54	0.40	1.18	0.57	0.32	0.07	0.77
채 소	13.28	17.75	11.87	8.72	25.05	20.81	23.01	14.26	20.17	12.29	10.96	13.85	17.03	10.61	9.55	5.13	8.28
특 작	2.25	0.28	0.60	0.73	0.68	0.88	0.88	0.28	0.28	0.44	0.36	0.37	14.08	1.60	0.87	0.16	1.23
과 수	2.18	8.66	9.68	0.63	7.23	1.33	5.20	1.06	2.29	1.14	0.69	2.11	0.76	1.54	1.82	1.78	1.27
축 산	10.40	17.23	9.32	10.25	10.59	15.16	16.29	13.00	11.37	11.12	10.28	11.12	10.23	5.94	9.28	8.07	12.76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성장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表 4-8>의 시·군별 농업생산성장에 대한 유별 농산물의 기여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5년과 1986년 사이에 전북의 모든 시·군은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미곡이외의 기타 식량작물의 생산에 負의 성장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맥류는 負의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맥류의 커다란 감소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실, 군산, 장수 등 성장률이 낮은 지역은 농업성장액이 작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유별 농산물의 기여도가 맥류 등 負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문에 있어서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負의 부문이 正의 부문보다 많이 나타나 있다. 앞 표에서 보면 이리, 김제, 정읍 등 성장지역에서는 負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부문이 2~3개 부문임에 비하여 임실, 군산 등 성장이 낮은 지역에서는 4~5개 부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 비중이 큰 미곡생산의 성장기여도가 負의 성장기여도를 상회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다른 부문의 성장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미곡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낮은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전북 농업생산에 있어서 미곡생산의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 농업생산의 부문별 분포와 시·군별 각 지역의 농업생산부문별 분포가 어느 정도 一致性을 보이는 가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보다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다. 농업생산의 부문별 연관계수는 전북 농업생산의 부문별 구성이 각 시·군별 지역농업생산의 부문별 구성과 어느 정도의 一致性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指標다. 따라서 100.0은 전북 농업과 시·군별 지역농업의 구성이 완전히 일치함을 나타내고 0.00은 완전한 불일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100.0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表 4-9>와 <表 4-10>은 1975년과 1986년의 시·군별 농업생산구조의 연관계수를 나타낸다. 表에서 볼 수 있듯이 1975년의 계수가 대부분 90.0 이상으로 전북의 농업생산은 부문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장이 낮은 전주, 무주는 연관계수가 86이하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表 4 - 8 지역별 농업생산성장에 대한 농산물 품목별 기여도

단위 : %

	전주	군산	이리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미 곡	118.55	835.83	93.62	41.80	151.83	82.41	258.42	918.03
백 류	- 76.85	- 707.64	- 6.77	- 42.30	- 99.11	- 81.73	- 152.77	- 789.93
잡 곡	- 0.04	- 13.48	0.03	- 0.07	0.43	1.32	3.10	11.22
두 류	- 3.29	- 26.87	- 0.10	- 0.14	- 39.92	- 8.20	- 11.20	48.85
서 류	- 20.87	- 303.04	- 10.38	- 4.84	- 38.99	- 9.62	- 43.61	- 144.54
채 소	19.44	- 111.59	10.94	71.18	75.96	46.41	51.66	117.08
특 작	- 3.80	13.39	0.08	0.40	- 5.43	- 2.25	- 24.34	- 79.02
파 수	3.43	383.73	0.27	19.72	13.05	33.83	1.67	65.28
총 산	63.42	29.66	12.32	14.26	42.18	37.64	17.06	- 46.96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옥구	익산
미 곡	93.28	125.54	93.20	51.52	119.93	83.26	109.87	109.25
백 류	- 28.39	- 39.95	- 35.94	- 22.86	- 44.43	- 19.60	- 30.19	- 34.44
잡 곡	0.27	0.58	0.23	- 0.10	0.75	0.06	0.03	- 0.05
두 류	- 2.24	0.22	0.78	- 0.16	1.09	0.25	1.01	1.65
서 류	- 11.81	- 10.20	- 12.48	- 4.49	- 13.26	- 4.51	- 7.26	- 25.33
채 소	34.06	23.70	32.49	31.34	24.09	18.07	4.30	11.05
특 작	- 0.13	- 3.96	- 0.67	32.12	- 1.33	0.64	- 0.35	1.47
파 수	3.47	0.21	3.73	0.23	4.62	4.09	6.31	4.45
총 산	11.50	3.86	18.65	12.40	8.54	17.74	16.29	31.94

表 4-9 지역별 농업생산 연관계수, 1975

단위 : %

	전주	군산	이리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미곡	15.63	5.23	1.13	2.73	8.98	16.12	6.67	11.65
맥류	1.07	2.11	1.48	-2.71	4.05	0.07	2.20	1.29
잡곡	0.04	-0.18	0.06	-0.06	-0.11	-0.07	0.04	-0.02
두류	1.05	1.19	1.23	0.40	-2.85	-4.01	-1.77	-0.19
서류	0.75	-0.53	-5.95	1.94	0.35	2.12	1.20	1.92
채소	-9.05	-5.40	1.88	-0.21	-6.97	-10.57	-3.48	-10.48
특작	0.26	0.81	-0.18	0.42	-0.30	-0.21	-0.64	-0.12
과수	-8.40	-2.67	0.11	-1.68	0.92	0.77	0.07	-0.36
축산	-1.33	-0.56	0.23	-0.84	4.07	-4.21	-4.30	-3.69
	18.80	9.34	6.12	5.49	14.30	19.08	10.19	14.86
연관계수	81.20	90.66	93.88	94.51	85.70	80.92	89.81	85.14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옥구	의산
미곡	-2.93	4.15	1.51	5.18	-0.72	-12.44	-11.10	-4.00
맥류	2.54	-0.84	-3.63	-4.06	-4.18	3.18	-0.05	3.59
잡곡	0.03	0.03	0.01	-0.10	0.01	0.05	0.05	0.04
두류	-0.97	-1.76	0.47	-0.76	0.68	0.90	1.22	1.31
서류	0.77	1.15	-1.46	-0.65	-1.25	1.87	1.65	-4.03
채소	1.95	0.71	2.50	1.21	2.78	2.82	2.99	0.96
특작	0.61	-0.25	0.39	-0.50	-1.48	0.22	0.85	0.05
과수	0.59	0.29	-0.32	-0.02	0.70	0.32	0.99	0.76
축산	-2.58	-3.48	0.53	-0.30	3.46	3.07	3.41	1.32
	6.49	6.33	5.41	6.39	7.63	12.44	11.15	8.03
연관계수	93.51	93.67	94.59	93.61	92.37	87.56	88.85	91.97

表 4-10 지역별 농업생산 연관계수, 1986

	전주	군산	이리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단위 : %
미곡	11.47	-0.78	-9.93	12.95	6.12	16.66	0.65	6.53	
맥류	0.97	0.69	-1.42	0.24	1.21	1.41	-0.64	-0.93	
잡곡	0.07	0.06	0.08	0.02	-0.11	-0.22	-0.11	-0.14	
두류	1.05	1.03	1.06	0.26	0.56	-2.54	-1.47	-1.38	
서류	0.26	0.36	0.45	-0.04	0.30	-0.04	0.08	-0.08	
채소	-4.47	1.41	4.56	-11.77	-7.53	-9.73	-0.98	-6.89	
특작	1.97	1.66	1.52	1.58	1.38	1.38	1.97	1.97	
과수	-6.48	-7.51	1.54	-5.05	0.84	-3.02	1.11	-0.11	
축산	-6.83	1.08	0.15	-0.19	-4.76	-5.89	-2.60	-0.97	
편차	17.78	8.29	11.35	17.05	12.40	21.44	5.8	10.5	
연관계수	82.22	91.71	88.65	82.95	87.6	78.56	94.2	89.5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우구	익산	
미곡	-3.17	-3.83	-2.69	12.69	-10.52	-9.70	-15.39	-8.13	
맥류	-1.61	-2.29	-0.17	0.09	0.15	0.27	-0.66	1.23	
잡곡	0.01	-0.05	-0.02	0.04	-0.15	0.07	0.07	0.08	
두류	-0.47	-1.64	0.10	-0.18	0.14	0.57	0.56	0.49	
서류	0.13	-0.02	0.12	-0.66	-0.05	0.21	0.45	-0.24	
채소	0.99	2.33	-0.57	-3.75	2.67	3.73	8.15	5.00	
특작	1.81	1.90	1.88	-11.82	0.65	1.39	2.10	1.03	
과수	1.04	1.49	0.07	1.42	0.64	0.35	0.39	0.90	
축산	-0.72	0.12	-0.72	0.17	4.46	1.12	2.33	-2.36	
편차	5.97	7.83	4.17	16.41	10.72	9.70	16.05	10.73	
연관계수	94.03	92.17	95.83	83.59	89.28	90.3	83.95	89.27	

1986년의 농업생산 부문별 연관계수는 전주, 무주 등 낮은 성장을 나타내는 지역 뿐만 아니라 완주, 고창, 옥구 등 성장지역에서도 계수가 낮아져서 농업생산부문별 연관계수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그 지역의 농업생산이 성장작목에 치우칠 경우에도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무주지역은 농업생산의 성장부문이 전북 평균성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북 평균과 생산부문별 분포의 불일치를 가져와 그 연관계수가 낮으며 완주, 옥구, 고창 등 성장지역은 성장부문이 전북 평균성장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생산부문별 분포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연관계수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문별 농업생산연관계수는 농업생산구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정체지역에서나 농업생산구조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성장지역에서나 모두 낮아지며 지역적 농업구조조정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3. Shift-Share 방법에 의한 전북농업성장구조 분석

Shift-share 분석은 일정 기간 지역농업생산의 변동요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지역농업생산의 변동은 지역경제발전에 따른 지역농업 구조변동 뿐만 아니라 전국 농업생산의 구조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지역농업생산변동을 전국 농업구조변동에 의한 효과와 지역농업구조 변화에 의한 효과로 나누어 설명한다.

지역경제활동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Shift-share 분석은 지역농업성장의 부문별 변동(d)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 즉 전국 농업생산의 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 g), 농업생산 부문별결합효과(Industry mix effect : m) 및 지역농업배분효과(Regional share effect : c)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⁴⁾

4) 부문별 지역농업성장=전국 평균농업성장+(부문별 전국농업성장-전국 평균농업성장)+(부문별 지역농업성장-부문별 전국농업성장)

j 地域의 i 部門의 일정 기간의 변동 d_{ij} 를

$$(1) d_{ij} = g_{ij} + m_{ij} + c_{ij}$$

로 나타낼 수 있다면, 농업생산 Y의 변동은

$$(2) d_{ij} = Y'_{ij} - Y_{ij}$$

$$(3) g_{ij} = Y_{ij} r_m$$

$$(4) m_{ij} = Y_{ij} (r_{in} - m)$$

$$(5) C_{ij} = Y_{ij} (r_{ij} - r_{in})$$

r_{ij} , r_{in} 및 r_m 은 지역 및 전국 농업생산의 성장을 나타내며,

$$(6) r_{ij} = (Y'_{ij} - Y_{ij}) / Y_{ij}$$

$$(7) r_{in} = (Y'_{in} - Y_{in}) / Y_{in}$$

$$(8) r_m = (Y'_m - Y_m) / Y_m$$

Y_{ij} = j 지역 i 부문의 농업생산

Y_{in} = 전국의 i 부문의 농업생산

Y_m = 전국의 농업총생산

(') 는 최종분석년도

$$(9) d_{ij} = Y_{ij} r_m + Y_{ij} (r_{in} - r_m) + Y_{ij} (r_{ij} - r_{in})$$

i 부문의 농업생산결합효과는, i 부문이 전국의 농업생산성장보다 더 빠른가 ($r_{in} > m$), 같은가 ($r_{in} = m$), 더 느린가 ($r_{in} < m$)에 따라 正(+), 0, 負(-)가 된다.

j 지역 i 부문의 지역배분효과는 i 부문의 지역농업성장이 i 부문의 전국 농업성장보다 더 빠른가 ($r_{ij} > r_{in}$), 같은가 ($r_{ij} = r_{in}$), 더 느린가 ($r_{ij} < r_{in}$)에 따라 正(+), 0, 負(-)가 된다.

농업생산 부문별 결합효과(m_{ij})와 지역농업생산배분효과(c_{ij})의 크기와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8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분류는 지역농업정책 방향수립에 유용할 것이다.

Type I	$m_{ij} > c_{ij}$	$m_{ij} > 0, c_{ij} > 0$
Type II	$m_{ij} < c_{ij}$	$m_{ij} > 0, c_{ij} > 0$
Type III	$ m_{ij} > c_{ij} $	$m_{ij} > 0, c_{ij} < 0$
Type IV	$ m_{ij} < c_{ij} $	$m_{ij} < 0, c_{ij} > 0$
Type V	$ m_{ij} > c_{ij} $	$m_{ij} < 0, c_{ij} > 0$
Type VI	$ m_{ij} < c_{ij} $	$m_{ij} > 0, c_{ij} < 0$
Type VII	$m_{ij} > c_{ij}$	$m_{ij} < 0, c_{ij} < 0$
Type VIII	$m_{ij} < c_{ij}$	$m_{ij} < 0, c_{ij} < 0$

위와 같은 type 중 type I~IV은 전국 평균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부문이나 지역을 나타내고, type V~VIII은 성장이 늦은 부문이나 지역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type V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못한 부문별 결합때문에 성장속도가 늦으며, type VI는 초기의 부문별 결합에 의해서 야기되지 않는다는 불리한 요인에 의해서 성장속도가 늦게된다. 따라서 type V는 정체 부문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부문결합에 의하여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type VI는 관개, 수리, 도로, 서비스의 확충 등 일반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하부구조의 투자가 요구된다고 본다.

전북의 시·군별 농업생산의 성장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를 보기 위하여 1975~86년의 농업생산을 기초로한 Shift-share 분석 결과가 〈表4-11〉에 나타나 있다.

전북의 시·군별 농업생산성장의 유형은 〈表4-11〉과 〈圖4-1〉에서 볼 수 있듯이 type III에서 type VI까지 분포되었다. 앞서 본 성장 시·군인 이리, 김제, 정읍, 고창, 옥구, 완주, 부안 및 익산은 type III~IV 범주에 속하고, 나머지 8개 시·군은 type V~VI에 속한다. 완주와 김제는 type III, 나머지 이리, 정읍, 고창, 옥구, 완주, 익산, 부안은 type IV에 속한다. 이들 type III에 속하는 시·군은 그 지역 성장부문이 전북 성장부문보다 낮지만 전북 평균성장보다 높은 전북 성장부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지역성장이 전북 평균성장보다 높은 지역을 말한다.

type IV에 속하는 시·군은 전북 성장부문의 영향은 負의 효과를 가지나 그 지역 성장부문이 전북 성장부문보다 높아 지역성장이 전북 평균성장보

表 4-11 전북 지역별 Shift-Share 계측결과

단위 : 10 만원

	농업생산지역별 성장효과 (Regional growth effect)	전북전체의 성장효과 (Chonbuk growth effect)	상대적 순증가 (Net relative change)	농업생산부문별 결합효과 (Industry mix effect)	농업생산지역별 배분효과 (Regional share effect)	유형별 구 분
전 주	27,470	59,308	- 31,838	3,157,704	- 3,189,542	VI
군 산	1,217	26,837	- 25,620	667,375	- 692,995	VI
이 리	115,507	40,878	74,629	- 770,869	845,498	IV
완 주	246,837	241,672	5,165	693,566	- 688,401	III
진 안	35,198	124,955	- 89,757	3,133,329	- 3,223,086	VI
무 주	42,050	86,073	- 44,023	1,843,182	- 1,887,205	VI
장 수	18,726	103,471	- 84,745	2,110,570	- 2,195,315	VI
임 실	5,990	159,154	- 153,164	5,521,025	- 5,674,189	VI
남 원	181,173	236,152	- 54,979	1,236,550	- 1,291,529	VI
순 창	106,845	146,365	- 39,520	- 215,663	176,143	V
정 읍	401,227	328,677	72,550	- 7,862,007	7,934,557	IV
고 창	551,358	280,150	271,208	- 5,602,718	5,873,926	IV
부 안	263,451	248,913	14,538	- 6,163,140	6,177,678	IV
김 제	509,282	383,648	125,634	4,868,569	- 4,742,935	III
옥 구	227,405	214,814	12,591	- 1,019,245	1,031,836	IV
익 산	285,646	338,286	- 52,640	- 1,595,341	1,542,701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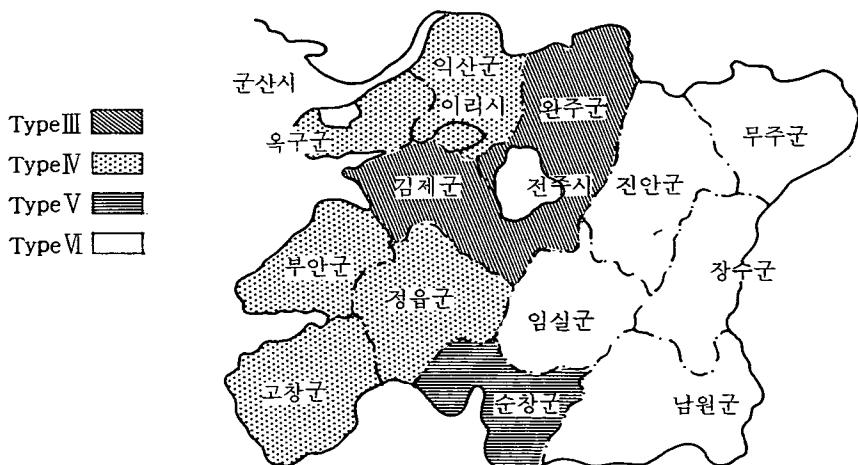
다 높은 지역을 나타내며 이리, 정읍, 고창, 옥구, 익산, 부안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순창은 지역성장부문에 의한 효과보다 전북 전체의 성장부문의 평균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지역성장이 결과적으로 전북 평균성장보다 낮게 나타나는 type V에 속한다. 전주, 군산, 남원, 무주, 장수, 임실 등은 그 지역 성장부문이 전북의 성장부문보다 낮게 나타나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전북의 부문별 성장효과를 상회하고 남아 결과적으로 낮은 지역 성장효과를 보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Shift-share 분석에 의한 지역적 유형분류는 보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부문별 농업성장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의 생산부문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5~86년의 전북 시·군별 농업생산의 성장을 기초로 한 부문별 Shift-share 분석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圖 4 - 1 전북 지역별 성장유형 분류



*type III*에 속하는 원주와 김제의 농업생산구성의 부문결합효과와 지역 배분효과를 <表 4-12>에서 보면 원주에서는 성장작목인 과수, 채소, 축산부문의 결합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김제에서는 미곡, 과수, 채소, 축산부문의 결합효과가 지역배분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서 지역농업생산이 전북 평균생산성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13, 4-14, 4-15>는 *type IV*에 속하는 이리, 정읍, 고창, 옥구, 익산, 부안의 Shift-share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이 지역의 부문별 결합과 지역배분효과를 보면 *type III*과 같이 미곡, 잡곡, 채소, 특작, 과수, 축산 등의 성장부문은 생산부문결합에 있어서正으로 나타나고 기타 부문의 지역배분효과가正으로 나타나지만 전북의 평균적 생산부문결합보다도 지역내부효과가 크게 나타나 type IV로 분류되며, 지역성장이 빠르게 나타난 성장지역으로 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성장이 전북 평균성장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type III, IV*유형에 나타나는 시군은 미곡위주의 담작지대에 한정되고 있으며, 미곡생산에 의하여 크게 지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4-16>은 *type V*에 속하는 순창의 농업생산 부문결합효과와 지역 배분효과를 나타낸다. 순창은 지역배분효과가正으로 나타나나 생산부문 결합효과가負로 나타나고 이것이 커서 지역성장이 전북 평균성장보다 느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순창은 미곡, 잡곡, 과수이외의 모든 부문의 성장이負로 나타난 정체를 보인다. 이 지역은 전북의 농업생산결합구성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농업생산성장의 정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유형인 *type VI*에 속하는 지역은 전주, 군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이다. 이 지역의 지역배분효과와 부문결합효과는 <表 4-17, 4-18, 4-19>에서 볼 수 있다. 전주, 군산은 都市近郊농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전북농업의 典型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전주는 축산이외의 부문의 성장이负를 나타내며 군산은 미곡부문에서 까지负의 성장을 보인다. 산간지대인 진안, 무주, 장수 중 특히 장수는 미곡이외의 모든 부문에서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임실과 남원은 최근의 성장부문인 축산부문의 정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表 4 - 12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완주, 김제)

		농업생산		농업성장률 1975 ~ 86	전북농업 성장효과	상대적변화	편차	단위 : 10 만원, %	
		1975 (I)	1986 (II)					M	C
완 원	미곡	397646	500826	103180	25. 95	138579	- 35399	17. 19	6835290 - 6870690
	백류	117908	13488	- 104420	- 88. 56	41090	- 145511	- 118. 45	- 1. 4E+07 13820641
	잡곡	936	754	- 182	- 19. 44	326	- 508	46. 74	43744 - 44252
	두류	10854	10504	- 350	- 3. 22	3782	- 4132	- 40. 01	- 434230 430097
	서류	17277	5334	- 11943	- 69. 13	6021	- 17964	- 118. 77	- 2051979 2034015
	채소	59849	235536	175687	293. 55	20857	154829	80. 59	4823191 - 4668362
	특작	5376	6356	980	18. 23	1873	- 893	120. 14	645885 - 646779
주 과수	과수	19269	67948	48679	252. 63	6715	41963	133. 65	2575252 - 2533289
	축산	64349	99555	35206	54. 71	22425	12780	34. 54	2222564 - 2209784
김 집	미곡	798316	1222368	424052	53. 12	278213	145838	17. 19	13722561 - 1. 4E+07
	백류	122403	22601	- 99802	- 81. 54	42657	- 142459	- 118. 45	- 1. 4E+07 14356123
	잡곡	239	534	295	123. 43	83	211	46. 74	11169 - 10958
	두류	11662	12952	1290	11. 06	4046	- 2774	- 40. 01	- 466556 463781
	서류	28159	5168	- 22991	- 81. 65	9813	- 32804	- 118. 77	- 3344427 3311623
	채소	61692	153740	92048	149. 21	21499	70548	80. 59	4971717 - 4901169
	특작	10740	13084	3244	30. 20	3742	- 498	120. 14	1290328 - 1290827
제 과수	과수	8536	29359	20823	243. 94	2974	17848	133. 65	1140815 - 1122966
	축산	59108	149431	90323	152. 81	20599	69723	34. 54	2041544 - 1971820

表 4-13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 (이리, 정읍)

단위 : 10 만원, %

	농업생산		1975~86	농업성장률	전북농업 성장효과	상대적변화	평차	부문결합효과	지역배분효과
	1975(I)	1986(II)						M	C
이 미곡	69137	127275	108138	156.41	24094	84043	17.19	1188423	- 1104379
	15037	7219	- 7818	- 51.99	5240	- 13058	- 118.45	- 1781126	1768068
	잡곡	16	49	33	206.25	5	27	46.74	747
	두류	856	735	- 121	- 14.14	298	- 419	- 40.01	- 34245
	서류	12167	176	-11991	- 98.55	4240	- 16231	- 118.77	- 1445067
	채소	7675	20310	12635	164.63	2674	9960	80.59	618523
	특작	1615	1702	87	5.39	562	- 475	120.14	194029
	과수	1161	1471	310	26.70	404	- 94	133.65	155164
리 정 읍	축산	9632	23866	14234	147.78	3356	10877	34.54	332681
	미곡	552377	926333	373956	67.70	192503	181452	17.19	9495021
	백류	169015	24810	- 144205	- 85.32	58901	- 203107	- 118.45	- 2.0E+07
	잡곡	639	1555	916	143.35	222	693	46.74	29863
	두류	14036	17160	3124	22.26	4891	- 1767	- 40.01	- 561531
	서류	55506	5440	-50066	- 90.20	19343	- 69409	- 118.77	- 6592414
	채소	55874	186252	130378	233.34	19472	110905	80.59	4502849
	특작	7681	5009	- 2672	- 34.79	2676	- 5348	120.14	922813
읍	과수	13339	28311	14972	112.24	4648	10323	133.65	1782723
	축산	74652	149476	74824	100.23	26016	48807	34.54	2578421

表 4-14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고창, 옥구)

단위 : 10 만원, %

		농업생산		농업성장률 1975~86	농업성장률 전북농업 성장효과	상대적변화	평차	부문결합효과 M	지역배분효과 C
		1975(I)	1986(II)						
고	미곡	441299	725350	284051	64.37	153792	130258	17.19	7585658 - 7455400
	멥류	147546	21512	- 126034	- 85.42	51419	- 1774	- 118.45	- 1.7 E+07 17299306
	잡곡	1376	818	- 558	- 40.55	479	- 1037	46.74	64307 - 65345
	두류	21912	21019	- 893	- 4.08	7636	- 8529	- 40.01	- 876622 868093
	서류	40796	16021	- 24775	- 60.73	14217	- 38992	- 118.77	- 4845316 4806323
	채소	57987	230791	172804	298.00	20208	152595	80.59	4673134 - 4520538
	특작	13696	190785	177089	1293.00	4773	172315	120.14	1645469 - 1473153
	과수	8977	10258	1281	14.27	3128	- 1847	133.65	1199753 - 1201601
창	축산	70287	138680	68393	97.31	24495	43897	34.54	2427658 - 2383760
	미곡	438740	688582	249842	56.95	152900	96941	17.19	7541671 - 7444730
우	멥류	88395	19740	- 68655	- 77.67	30805	- 99460	- 118.45	- 1.0 E+07 10370889
	잡곡	161	220	59	36.65	56	2	46.74	7524 - 7521
	두류	4601	6904	2303	50.05	1603	699	- 40.01	- 184070 184769
	서류	17136	624	- 16512	- 96.36	5971	- 22483	- 118.77	- 2035232 2012748
	채소	33516	43296	9780	29.18	11680	- 1900	80.59	2701032 - 2702932
	특작	2141	1342	- 799	- 37.32	746	- 1545	120.14	257224 - 258770
구	과수	685	15032	14347	2094.45	238	14108	133.65	91548 - 77440
	축산	31020	68060	37040	119.41	10810	26229	34.54	1071406 - 1045177

表 4-15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 (익산, 부안)

단위 : 10 만원, %

	농업생산		농업성장 1975~86	농업성장률	전북농업 성장효과	상대적변화	편차	부문결합효과 M	지역배분효과 C
	1975(I)	1986(II)							
익 산	미곡	621965	934041	312076	50.18	216754	95321	17.19	10691196 -1.1E+07
	백류	103951	5581	- 98370	- 94.63	36226	- 134	- 118.45	-1.2 E + 07 12178354
	잡곡	376	236	- 140	- 37.23	131	- 271	46.74	17572 - 17843
	두류	6340	11066	4726	74.54	2209	2516	- 40.01	- 253641 256157
	서류	82046	9679	- 72367	- 88.20	28593	- 100960	- 118.77	- 9744553 9643593
	채소	72430	104001	31571	43.59	25241	6329	80.59	5837086 - 5830756
	특작	11191	15392	4201	37.54	3900	300	120.14	1344513 - 1344212
	과수	3280	15990	12710	387.50	1143	11566	133.65	438363 - 426797
부 안	축산	69112	160351	91239	132.02	24085	67153	34.54	2387074 - 2319921
	미곡	434265	750231	315966	72.76	151341	164624	17.19	7464748 - 7300124
	백류	131949	14892	- 117057	- 88.71	45984	- 163041	- 118.45	-1.6 E + 07 15466261
	잡곡	433	2408	1975	456.12	150	1824	46.74	20236 - 18412
	두류	9176	12058	2882	31.41	3197	- 315	- 40.01	- 367100 366783
	서류	40516	5591	- 34925	- 86.20	14119	- 49044	- 118.77	- 4812060 4763016
	채소	40282	103738	63456	157.53	14038	49417	80.59	3246300 - 3196882
	특작	19161	15658	- 3503	- 18.28	6677	- 10180	120.14	2302047 - 2312227
인 구	과수	2862	15032	12170	425.23	997	11172	133.65	382499 - 371326
	축산	35597	58084	22487	63.17	12405	10081	34.54	1229492 - 1219411

表 4-16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순창, 전주)

단위 : 10 만원, %

	농업생산		농업성장률 1975~86	농업성장률 1975~86	전북농업 성장효과	상대적변화	편차	부문결합효과		지역배분효과 C
	1975(I)	1986(II)						M		
순곡	234877	369006	134129	57.11	81854	52274	17.19	4037391	- 3985117	
	63559	20873	- 42686	- 67.16	22150	- 64836	- 118.45	- 7528536	7463700	
	190	815	625	328.95	66	558	46.74	8879	- 8320	
	15645	15883	238	1.52	5452	- 5214	- 40.01	- 625902	620687	
	13762	2861	- 10901	- 79.21	4796	- 15697	- 118.77	- 1634504	1618807	
	32403	57724	25321	78.14	11292	14028	80.59	2611336	- 2597308	
	6109	1875	- 4234	- 69.31	2128	- 6362	120.14	733949	- 740312	
	3389	3615	226	6.67	1181	- 955	133.65	452931	- 453886	
	50053	54180	4127	8.25	17443	- 13316	34.54	1728791	- 1742108	
전주	75647	108214	32567	43.05	26362	6204	17.19	1300325	- 1294121	
	22507	1397	- 21110	- 93.79	7843	- 28953	- 118.45	- 2665944	2636991	
	66	55	- 11	- 16.67	23	- 34	46.74	3084	- 3118	
	1548	644	- 904	- 58.40	539	- 1443	- 40.01	- 61930	60486	
	6260	528	- 5732	- 91.57	2181	- 7913	- 118.77	- 743496	735582	
	29741	35082	5341	17.96	10364	- 5023	80.59	2396807	- 2401831	
	1608	563	- 1045	- 64.99	560	- 1605	120.14	193188	- 194794	
	16171	17114	943	5.83	5635	- 4692	133.65	2161213	- 2165905	
	16632	34053	17421	104.74	5796	11624	34.54	574456	- 562831	

表 4-17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군산, 진안)

단위 : 10 만원, %

	농업생산		농업성장 1975~86	농업성장률	전부농업 성장효과	상대적변화	편차	부분결합효과 지역배분효과	
	1975(I)	1986(II)						M	C
군산	미곡	43234	52406	10172	24.08	14718	- 4546	17.19	725976 - 730523
	백류	9384	772	- 8612	-91.77	3270	- 11882	- 118.45	- 1111531 1099648
	잡곡	193	29	- 164	-84.97	67	- 231	46.74	9019 - 9251
	두류	595	268	- 327	-54.96	207	- 534	- 40.01	-23803 23269
	서류	3821	133	- 3688	-96.52	1331	- 5019	- 118.77	- 453818 448798
	채소	10644	9286	- 1358	-12.76	3709	- 5067	80.59	857792 - 862860
	특작	303	466	163	53.80	105	57	120.14	36403 -36345
	과수	2903	7573	4670	160.87	1011	3658	133.65	387978 - 384320
진안	축산	6930	7291	361	5.21	2415	- 2054	34.54	239356 - 241411
	미곡	183208	236650	53442	29.17	63847	- 10406	17.19	3149233 - 3159639
	백류	36738	1853	- 34885	-94.96	12803	- 47688	- 118.45	- 4351600 4303912
	잡곡	665	815	150	22.56	231	- 81	46.74	31079 -31160
	두류	17254	3204	- 14050	-81.43	6013	- 20063	- 40.01	- 690272 670209
	서류	14609	887	- 13722	-93.93	5091	- 18813	- 118.77	- 1735102 1716289
	채소	55195	81931	26736	48.44	19235	7500	80.59	4448128 - 4440628
	특작	5365	3453	- 1912	-35.64	1869	- 3781	120.14	644563 - 648545
안	과수	658	5250	4592	697.87	229	4362	133.65	87940 -83577
	축산	44858	59705	14847	33.10	15633	- 786	34.54	1549360 - 1550146

表 4-18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 (무주, 임실)

단위 : 10 만원, %

	농업생산		농업생산 1975~86	농업성장률 1975~86	전북농업 성장효과	상대적변화	편차	부문결합효과	지역배분효과 C	
	1975(I)	1986(II)						M		
무	미곡	108572	143225	34653	31.92	37837	- 3184	17.19	1866286	- 1869470
	멥류	35127	758	- 34369	- 97.84	12241	- 46610	- 118.45	- 4160778	4114167
	잡곡	366	923	557	152.19	127	429	46.74	17105	- 16675
	두류	14759	11309	- 3450	- 23.38	5143	- 8593	- 40.01	- 590456	581862
	서류	5692	1646	- 4046	- 71.08	1983	- 6029	- 118.77	- 676035	670005
	채소	46911	66511	19600	41.78	16348	3251	80.59	3780526	- 3277257
	특작	3486	2541	- 945	- 27.11	1214	- 2159	120.14	418816	- 420976
주	파수	808	15032	14224	1760.40	281	13942	133.65	107987	- 94044
	축산	31261	47087	15826	50.63	10894	4931	34.54	1079730	- 1074799
임	미곡	221155	276145	54990	24.86	77072	- 22082	17.19	3801518	- 3823601
	멥류	59382	12065	- 47317	- 79.68	20694	- 68011	- 118.45	- 7033772	6965761
	잡곡	440	1112	672	152.73	153	518	46.74	20563	- 20044
	두류	9826	12752	2926	29.78	3424	- 498	- 40.01	- 393104	392605
	서류	11451	2793	- 8658	- 75.61	3990	- 12648	- 118.77	- 1360028	1347380
	채소	86331	93344	7013	8.12	30086	- 23073	80.59	6957358	- 6980431
	특작	6028	1295	- 4733	- 78.52	2100	- 6833	120.14	724217	- 731952
실	파수	6664	10574	3910	58.72	2322	1587	133.65	890626	- 889039
	축산	55405	52592	- 2813	- 5.08	19308	- 22121	34.54	1913645	- 1935767

表 4-19 지역별 농업성장 구조분석 (장수, 남원)

단위 : 10 만원, %

		농업생산		1975~86	농업성장률	전북농업 성장효과	상대적변화	평차	부문결합효과	지역배분효과
		1975(I)	1986(II)						M	C
장	미곡	158563	206954	48391	30.52	55259	- 6868	17.19	2725600	- 2732469
	맥류	35918	7311	- 28607	- 79.65	12517	- 41124	- 118.45	- 4254472	4213347
	잡곡	94	675	581	618.09	32	548	46.74	4393	- 3844
	두류	11078	8981	- 2097	- 18.93	3860	- 5957	- 40.01	- 443192	437234
	서류	9585	1418	- 8167	- 85.21	3340	- 11507	- 118.77	- 1138405	1126897
	채소	35344	45018	9674	27.37	12317	- 2643	80.59	2848349	- 2850993
	특작	5449	892	- 4557	- 83.63	1898	- 6455	120.14	654655	- 661111
수	파수	3046	3359	313	10.28	1061	- 748	133.65	407090	- 407839
	축산	37828	41023	3195	8.45	13183	- 9988	34.54	1306549	- 1316537
남	미곡	426926	595933	169007	39.59	148783	20223	17.19	7338595	- 7318372
	맥류	79685	28248	- 51437	- 64.55	27770	- 79207	- 118.45	- 9438654	9359447
	잡곡	294	776	482	163.95	102	379	46.74	13740	- 13360
	두류	19896	15831	- 4065	- 20.43	6933	- 10998	- 40.01	- 795969	784970
	서류	24772	3379	- 21393	- 86.36	8633	- 30026	- 118.77	- 2942155	2912129
	채소	43853	105559	61706	140.71	15282	46423	80.59	3534084	- 3487661
	특작	4011	3777	- 234	- 5.83	1397	- 1631	120.14	481890	- 483523
원	파수	3476	9756	6280	180.67	1211	5068	133.65	464558	- 459490
	축산	74711	95538	20827	27.88	26036	- 5209	34.54	2580459	- 2585669

지역들은 농업생산 부문결합효과보다 지역배분효과가 負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업 부문결합의 개선보다 새로운 농업성장을 위한 지역투자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북 농업의 지역적 생산구조의 특성은 미곡생산 위주의 농업생산이 안정적이며, 미곡생산에 농업성장이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간지대나 산간지대와 같은 혼작지대의 농업생산성이 불안정하며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은 전북의 농업이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시장생산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농업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본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국제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외시장에 대한 농산물 개방화 추세와 이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은 미곡이외의 성장작물생산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농업기술진보가 농업생산의 지역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농업현실을 의미하며, 농업지대구분에 따른 농업생산의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점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第 5 章

全北地域 農業開發 圈域 設定

1. 自然條件에 의한 農業地帶 區分

농업생산이 分化되어 시장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농산물의 상대가격의 변화와 투입물의 물적 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에 따라 농업생산의 결합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개별 농민의 경제행위는 농업경영형태별 地域分化를 초래하고 마침내 農業의 지역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농업생산이 순수의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여건에서는 土壤, 地勢, 地形, 氣候, 氣溫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한 생산의 유리성이 농업생산에 크게 작용하여 오히려 이러한 자연적 생산여건에 따른 농업지대구분이 필요하게 된다.

가장 단순한 농업지대구분은 지역별 耕地率과 畢率에 따른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준평야지대, 평야지대의 구분이나 전작지대, 혼작지대, 단작지대의 구분이다.

〈表 5-1〉은 1975년과 1986년의 전북 시·군별 경지율과 단률을 나타낸다.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북 시·군의 경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畢率은 1975~86년 사이에 거의 10%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경지율과 단률에 의한 지대구분의 결과를 보면 〈表 5-2〉

表 5 - 1 지역별 경지율과 담률

단위 : %

	경 지 율		담 률	
	1975	1986	1975	1986
전 주	43	32	62	71
군 산	39	27	73	78
이 러	68	64	75	76
완 주	22	22	37	68
진 안	15	14	51	59
무 주	13	13	44	49
장 수	17	16	59	64
임 실	20	20	58	61
남 원	24	24	74	77
순 창	24	24	40	71
정 읍	42	41	67	75
고 창	40	41	72	71
부 안	42	43	66	79
김 제	59	57	76	86
옥 구	49	49	87	88
익 산	58	58	77	85

表 5 - 2 경지율과 담률에 의한 지대구분

	지대구분		1975	1986
경 지 율	산 간 지 대	15 %	진안, 무주	진안, 무주
	준산간지대	15~25%	원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원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준평야지대	25~40%	군산, 고창	전주, 군산
	평 야 지 대	40 %이상	전주, 이리, 정읍, 부안, 김제, 옥구, 익산	고창, 이리, 정읍, 부안, 김제, 옥구, 익산
담 률	전 작 지 대	40 %이하	원주, 순창	
	혼 작 지 대	40~70%	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전주, 군산, 이리, 남원, 원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담 작 지 대	70 %이상	고창, 군산, 이리, 남원, 정읍, 부안, 김제, 옥구, 익산	순창, 정읍, 부안, 김제, 옥구, 익산, 고창

圖 5 - 1 경지율에 의한 지대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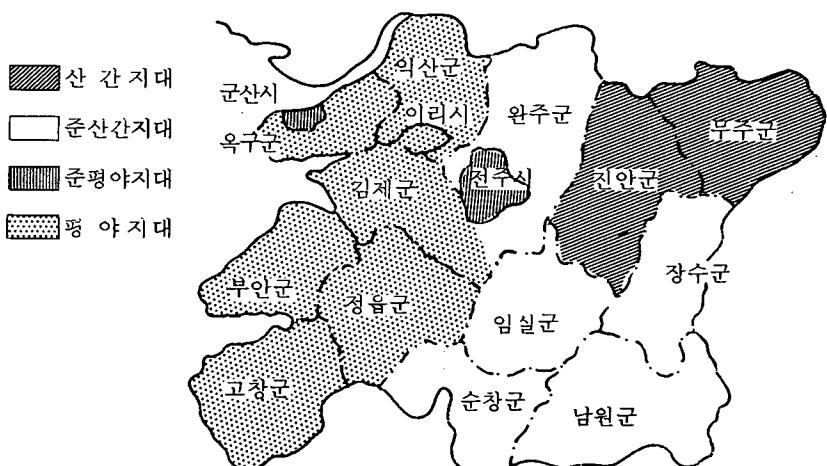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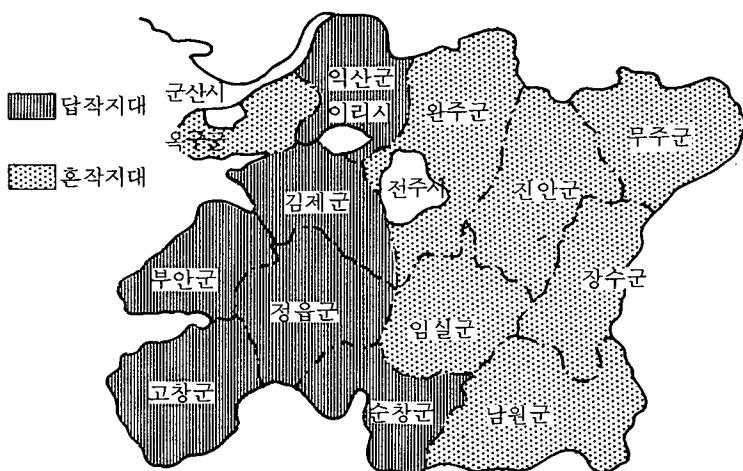


圖 5-2 담률에 의한 지대구분



와 <圖 5-1>에서 산간지대는 진안, 무주, 준산간지대는 완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준평야지대는 군산, 고창, 평야지대는 전주, 이리, 정읍, 부안, 김제, 옥구, 익산으로 구분되며, 1985년은 전주가 준평야지대로, 고창이 평야지대로 각각 변화했을 뿐이다. 전주의 변화는 耕地率의 변화가 단순한 행정구역변경에서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畠率에 의한 지대구분에 의하면 1975년 완주, 순창은 田作地帶에, 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混作地帶에, 나머지 군산, 이리, 남원 등 9개 시·군은 畦作地帶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1986년에는 <圖 5-2>에서 완주는 混作地帶로, 순창은 畦作地帶로 변동하였으며, 전주는 混作地帶에서 畦作地帶로 변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창은 1986년의 담면적이 1975년 14,655ha에 비해 2,931ha가 증가한 17,586ha로 증가했으며, 전주와 완주의 변화는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耕地率과 畠率에 의한 農業地帶區分은 농업경영형태가 自給農위주에서 商業農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축산이나 시설원예 등 複合營農으로 농업경영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현실에는 지대구분의 기준으로 적절하

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농업생산 구조에서 전북 농업성장은 미곡생산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미곡이외의 성장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 농업의 지대구분에 있어서 소박한 耕地率이나 畢率에 의한 자연적 지역특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2. 經營條件에 의한 農業地帶 區分

농업지대구분은 自然的, 經濟的, 社會的, 技術的 要因의 복합적 효과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여러 요인을 計量化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과 같은 空間的 성격이외에 투하노동 등 경영적 성격에 의거한 지대구분이 필요하다. 더구나 오늘날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조건의 변화와 소득효과가 상업농화를 촉진시키고 이농에 따른 농업노동감소가 농업생산을 제약하는 농업현실은 농업경영면에서 본 농업지대구분의 實效性을 보이기도 한다.

전북지역의 시·군별 농업경영면에서 본 농업지대구분은 Coppock 方式에 의하여 가능하다. Coppock 방식은 작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몇 가지 作目別로 분류한 후 投下勞動時間 을 加重值로 하여 地域別, 品目別 投下勞動時間 을 算出한다. 그 지역 전체의 총 투하노동시간에 대한 품목별 투하노동시간의 구성비에 대한 이론적 標準型(Standard measurement)을 다음과 같이 計測한다.

單作(Monoculture)=單一작물에 총 투하노동시간의 100 %

2作目結合(2-Crop combination)=各作目에 50 %

3作目結合(3-Crop combination)=各作目에 33.33 %

:

9作目結合(9-Crop combination)=各作目에 11.11 %

10作目結合(10-Crop combination)=各作目에 10 %

이론적 標準型에 대하여 실제로 어느 지역의 구성비에 대한 표준편차(S

表 5-3 지역별 총투하노동시간에 대한 품목별 구성비 및 그 순위, 1975

전주	25.40(미)	21.73(채)	18.28(파)	16.39(매)	11.62(가)	3.14(서)	1.73(두)	1.57(특)	0.13(잡)
군산	33.12(미)	22.37(백)	20.29(채)	11.85(가)	5.73(파)	4.11(서)	1.57(두)	0.61(특)	0.34(잡)
이리	44.87(미)	19.60(백)	12.10(가)	8.64(채)	8.10(서)	2.81(특)	1.95(파)	1.85(두)	0.08(잡)
완주	39.19(미)	27.45(백)	11.08(채)	7.26(파)	5.91(가)	4.43(두)	3.34(서)	0.82(특)	0.52(잡)
진안	35.68(미)	20.54(백)	15.85(채)	13.07(두)	5.56(서)	5.27(가)	2.40(특)	0.85(파)	0.78(잡)
무주	29.98(미)	25.51(백)	18.25(채)	14.14(두)	5.26(가)	2.79(서)	2.15(특)	1.26(잡)	0.66(파)
장수	38.71(미)	23.25(백)	12.20(채)	9.11(두)	7.11(가)	4.25(서)	2.73(특)	2.18(파)	0.46(잡)
임실	34.58(미)	22.73(백)	21.51(채)	6.53(두)	5.74(가)	3.37(파)	3.24(서)	1.62(특)	0.67(잡)
남원	44.87(미)	26.01(백)	8.45(채)	8.28(가)	5.74(두)	4.30(서)	1.27(파)	0.72(특)	0.35(잡)
순창	38.83(미)	27.60(백)	10.34(채)	8.84(두)	7.60(가)	3.28(서)	1.64(특)	1.55(파)	0.33(잡)
정읍	43.43(미)	26.35(백)	8.70(채)	7.28(가)	5.83(서)	4.19(두)	2.56(파)	1.22(특)	0.45(잡)
고창	38.99(미)	28.72(백)	8.22(채)	7.11(두)	6.17(가)	5.15(서)	2.64(특)	2.29(파)	0.72(잡)
부안	43.24(미)	27.24(백)	7.23(서)	6.72(채)	6.23(가)	4.08(특)	3.77(두)	1.19(파)	0.30(잡)
김제	53.90(미)	19.30(백)	8.23(채)	7.01(가)	3.43(서)	3.23(파)	2.89(두)	1.84(특)	0.16(잡)
옥구	55.39(미)	21.32(백)	8.66(채)	8.17(가)	3.09(서)	2.08(두)	0.73(특)	0.42(파)	0.13(잡)
익산	48.97(미)	18.93(백)	10.32(채)	8.36(서)	8.16(가)	2.21(두)	1.58(파)	1.24(특)	0.22(잡)

表 5 - 4 지역별 총투하노동시간에 대한 품목별 구성비 및 그 순위, 1986

전주	33. 08(채)	32. 09(가)	21. 75(미)	10. 92(파)	0. 61(백)	0. 59(서)	0. 49(특)	0. 43(두)	0. 04(잡)
군산	29. 98(미)	21. 59(가)	20. 97(채)	15. 46(파)	9. 54(특)	1. 20(백)	0. 68(두)	0. 52(서)	0. 06(잡)
이리	45. 18(미)	35. 88(가)	9. 95(채)	4. 92(백)	1. 29(특)	1. 08(파)	0. 86(서)	0. 79(두)	0. 05(잡)
원주	33. 53(채)	32. 37(미)	13. 76(가)	12. 29(파)	2. 63(두)	2. 23(특)	1. 55(서)	1. 54(백)	0. 11(잡)
진안	43. 44(미)	35. 62(채)	7. 49(가)	4. 58(특)	3. 84(파)	2. 32(두)	1. 25(서)	0. 89(백)	0. 58(잡)
무주	31. 72(미)	31. 43(채)	10. 22(두)	10. 02(파)	6. 71(가)	6. 47(특)	2. 04(서)	0. 97(잡)	0. 42(잡)
장수	47. 03(미)	26. 47(채)	7. 71(두)	7. 30(가)	3. 14(파)	2. 96(백)	2. 49(특)	2. 24(서)	0. 65(잡)
임실	41. 77(미)	30. 63(채)	8. 88(두)	5. 70(가)	4. 59(파)	3. 68(백)	2. 24(서)	1. 88(특)	0. 64(잡)
남원	49. 03(미)	20. 01(채)	13. 84(가)	5. 60(두)	5. 01(백)	2. 49(파)	2. 25(특)	1. 49(서)	0. 28(잡)
순창	48. 52(미)	21. 77(채)	9. 20(두)	7. 75(가)	6. 28(백)	2. 31(서)	2. 22(특)	1. 50(파)	0. 45(잡)
정읍	48. 94(미)	26. 34(채)	10. 57(가)	5. 13(파)	3. 34(두)	2. 65(백)	1. 63(특)	1. 19(서)	0. 21(잡)
고창	33. 62(미)	23. 89(채)	20. 32(채)	16. 38(특)	2. 04(두)	1. 73(파)	1. 25(백)	0. 54(서)	0. 22(잡)
부안	52. 62(미)	22. 00(채)	9. 66(가)	4. 86(파)	4. 51(특)	3. 20(두)	1. 96(백)	0. 85(서)	0. 34(잡)
김제	54. 74(미)	19. 51(가)	13. 74(채)	3. 95(파)	2. 51(두)	2. 35(백)	1. 67(특)	1. 39(서)	0. 13(잡)
옥구	57. 79(미)	15. 94(채)	14. 20(가)	4. 16(파)	3. 34(백)	2. 67(두)	0. 97(특)	0. 88(서)	0. 05(잡)
익산	68. 69(미)	13. 15(채)	5. 02(가)	3. 63(두)	3. 22(특)	3. 08(파)	2. 27(서)	0. 91(백)	0. 03(잡)

D) 를 다음과 같이 구하고

$$S \cdot D = \sqrt{\frac{d^2}{n}}$$

d : 어느 지역의 작목별 구성비와 표준형 작목별 구성비와의 편차

n : 주어진 결합작목수

이렇게 산출한 표준편차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作目結合型을 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 농업지대로 보는 것이다.

전북 농업의 경영면에서 본 농업지대구분을 위한 대표적 結合型을 찾기 위하여 전북의 16 개 시·군별 9 개 항목의 작목별 수확면적과 단위면적당 노동투하시간, 가축의 飼育頭數와 頭當 노동투하시간을 이용하여 총투하노동시간과 각 항목별 구성비를 산출하였다. 資料는 1975년과 1986년의 작목별 수확면적과 가축 사육두수를 全北「統計年報」 및 市·郡「統計年報」에서 얻고 作目別 投下勞動時間은 農村振興廳에서 발표한 地域別 農畜產物 標準所得資料를 이용하였다.

〈表5-3, 5-4〉는 1975년과 1986년의 전북 16개 시·군별 9개 항목(米穀, 麥類, 雜穀, 豆類, 薯類, 果樹, 菜蔬, 特作, 畜產)의 총투하노동시간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를 나타낸다. 表에서 알 수 있듯이 全北地域은 1975년은 米穀, 麥類 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1986년은 米穀, 菜蔬 부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雜穀, 特作, 薯類 등 기타부문의 비중이 1~2% 정도 밖에 안된다. 따라서 도시근교 등 여러 작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야지대에서는 Coppock 方式에 의한 농업지대구분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비중이 작은 항목수가 많을수록 標準型의 비중도 작아져서 편차가 작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중이 작은 항목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本分析에서는 1975년은 맥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米穀, 麥類, 家畜, 果樹, 菜蔬의 5 항목이 외의 雜穀, 特作, 豆類, 薯類 등 其他作物은 田作으로서 作付體系에 있어서 비슷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함께 묶어 其他作物로 한 6 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986년은 麥類의 대폭적인 감소와 特作의 상대적 증가를 반영하여 米穀, 菜蔬, 果樹, 畜產 및 特作의 5 개 항

목에 麥類, 雜穀, 豆類, 薯類 등 其他作物을 한 항목으로 추가한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Coppock 方式에 의하여 전북의 16개 시·군별 특성을 나타내는 作目의 結合型을 算出한 결과 <表 5-5>와 같이 나타나 있다.

1975년 전북의 각 시·군별 작목의 결합형을 보면 米穀과 麥類를 基本으로 한 4작목과 5작목 결합형이 대부분이며, 고창과 부안은 3작목, 완주와 김제는 6작목의 결합형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도시근교지역은 미곡, 맥류에 가축과 채소의 결합을 보이는 근교농업의 특성을 보이고 평야지대에서는 6개 작목이 모두 결합된 다양화된 결합형을 보인데 반하여 산간지대에서는 미곡, 맥류에 기타작물이 결합되어 자연적 농업지대구분과 어느 정도 연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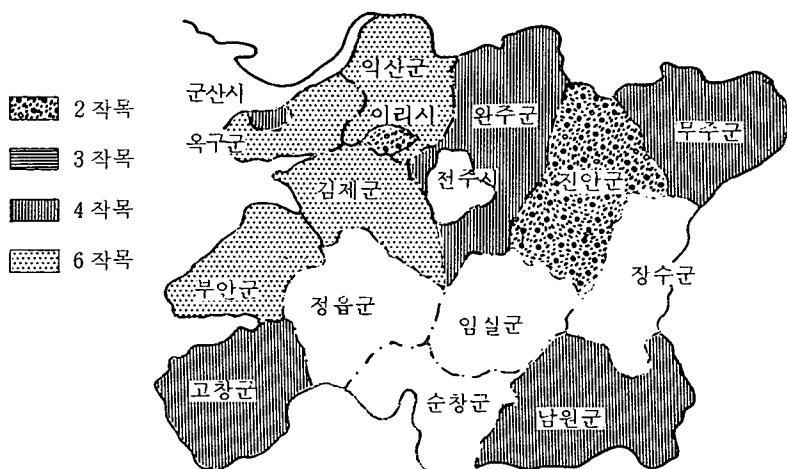
그러나 2개년도를 비교할 때 1986년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1975년에 비해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결합형이 보다 뚜렷해진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미곡을 주축으로 하여 가축과 채소가 주된 결합이 되고 있으며 부안 김제, 옥구, 익산 평야지대의 6개 작목 결합형을 제외하고는 3작목이나 4작목 결합형으로 1975년의 다양화된 5작목, 6작목 결합형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결합유형이 뚜렷해 졌다는 것이다 <圖 5-3>.

이것은 경지면적이 넓고 기계화율이 높은 김제, 옥구, 익산 등 평야지대의 농업노동이 용에 비해 다른 지대에서는 농업노동이 2~3개작목에 집약적으로 이용되거나 보다 소득작목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을

表 5-5 대표적 작목결합에 의한 지역구분

작목결합	1975	1986
2작목 결합형		이리, 진안
3작목 결합형	고창, 부안	전주, 장수, 임실, 순창, 정읍
4작목 결합형	군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군산, 완주, 무주, 남원, 고창
5작목 결합형	옥구, 익산, 전주, 이리, 남원, 정읍	
6작목 결합형	완주, 김제	부안, 김제, 옥구, 익산

図 5 - 3 작목별 결합에 의한 지대구분



것이다. 특히, 전주, 원주, 이리 등 도시근교에서는 미곡보다도 채소를 주로 하는 결합형으로 나타나 1976년에 비해 보다 시장지향의 성장작목 결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Coppock 方式에 의한 농업경영의 측면에서 본 농업지대구분은 항목에 따른 결과의 불일치라는 접근방법 자체의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하노동이나 총이윤에 따른 경영형태의 변화를 작목결합의 변화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갖는다. 따라서 전북 농업경영의 특성도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성장작목 결합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 할 수 있다.

3. 農業生產에 의한 全北地域 農業特化 分析

가. 農業生產의 地域農業持化 分析

농업생산의 지역적 분화는 자연적 조건이나 개별농가의 영농경영 조건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만 반드시 다른 지역보다 자연적, 경영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서 특화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자연조건이나 자원배분 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시장관계, 생산기술조건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농업생산은 이러한 복합적 관계의 최종적 결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물의 식부면적이나 노동투하시간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가격조건까지 포함된 전북 농업생산액의 시·군별, 품목별 구성에 의한 농업지대구분은 농업성장 구조변동에 대한 지역농업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다.

전북 농업생산에 대한 지역적 연관성분석은 품목별 지역구성비에 의하여 포착할 수 있다. <表5-6>은 1975년과 1986년의 각 품목별 생산액의 시·군지역 구성비를 나타낸다. 지역연관계수는 전북 총생산액의 지역구성비와 품목별 지역구성비의 편차에 의하여 얻어진다. 지역연관계수는 품목별 지역구성비의 분포가 전북 총생산액의 지역구성비의 분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100.00은 전북 총 생산의 지역분포와 품목별 지역분포와의 완전한一致를 뜻하고 0.00은 완전한不一致를 나타낸다. 지역연관계수가 100.00에 가까워 질수록 해당 품목의 생산은 지역적 연관성이 크고 모든 지역이 동일한 비중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100.00에서 멀어질수록 지역적 불균형 생산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전북 농업생산의 품목별 지역연관계수는 다음 <表5-8>, <表5-9>에 1975년과 1986년의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다. 1975년의 전북농업생산의 지역적연관성은 미곡과 맥류는 94.84와 90.37로 어느 시·군에서나 비슷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두류, 잡곡, 특작은 각각 72.72, 69.10, 65.59로 지역적 불균형을 보이나 다른 기타품목은 80.00을 상회하여 어느 정도의 지역적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1986년은 미곡과 축산은 90.00 이상으로 큰 변화는 없으며, 다른 부문도 1975년에 비하여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적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특작은 1975년 80.81로부터 1986년 39.63으로 급격한 저락을 보여 극심한 지역적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북 지역에서는 고창군 1개 지역에 땅콩과 같은 특작생산이 편재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表 5-6 전북 농업생산의 품목별 지역 구성비, 1975

단위 : %

	미곡	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총계
전 주	1. 45	1. 82	1. 02	0. 91	1. 63	4. 08	1. 55	16. 98	2. 27	1. 96
군 산	0. 81	0. 76	2. 98	0. 35	1. 00	1. 46	0. 29	3. 05	0. 95	0. 89
이 리	1. 33	1. 21	0. 25	0. 50	3. 17	1. 05	1. 55	1. 22	1. 32	1. 35
완 주	7. 64	9. 52	14. 43	6. 38	4. 50	8. 20	5. 17	20. 24	8. 80	8. 00
진 안	3. 52	2. 97	10. 25	10. 15	3. 81	7. 56	5. 16	0. 69	6. 13	4. 14
무 주	2. 09	2. 84	5. 64	8. 68	1. 48	6. 43	3. 35	0. 85	4. 27	2. 85
장 수	3. 05	2. 90	1. 45	6. 52	2. 50	4. 84	5. 24	3. 20	5. 17	3. 43
임 실	4. 25	4. 79	6. 78	5. 78	2. 99	11. 83	5. 80	7. 00	7. 57	5. 27
남 원	8. 20	6. 43	4. 53	11. 70	6. 46	6. 01	3. 86	3. 65	10. 21	7. 82
순 창	4. 51	5. 13	2. 93	9. 20	3. 59	4. 44	5. 88	3. 56	6. 84	4. 85
정 읍	10. 61	13. 65	9. 85	8. 25	14. 47	7. 66	7. 39	14. 01	10. 21	10. 89
고 창	8. 48	11. 91	21. 22	12. 89	10. 64	7. 95	13. 17	9. 43	9. 61	9. 28
부 안	8. 34	10. 65	6. 68	5. 40	10. 56	5. 52	18. 43	3. 01	4. 87	8. 24
김 제	15. 34	9. 88	3. 69	6. 86	7. 34	8. 45	10. 33	8. 96	8. 08	12. 71
옥 구	8. 43	7. 14	2. 50	2. 71	4. 47	4. 59	2. 06	0. 72	4. 24	7. 11
의 산	11. 95	8. 39	5. 80	3. 73	21. 39	9. 93	10. 76	3. 44	9. 45	11. 20

表 5-7 전북 농업생산의 품목별 지역 구성비, 1986

단위 : %

	미곡	백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총계
전 주	1. 37	0. 69	0. 47	0. 40	0. 86	2. 23	0. 21	6. 69	2. 75	1. 69
군 산	0. 66	0. 38	0. 25	0. 17	0. 22	0. 59	0. 18	2. 96	0. 59	0. 67
이 리	2. 24	3. 55	0. 42	0. 46	0. 29	1. 29	0. 64	0. 58	1. 93	1. 99
완 주	6. 33	6. 64	6. 40	6. 51	8. 65	14. 98	2. 40	26. 58	8. 04	8. 05
진 안	2. 99	0. 91	6. 92	1. 99	1. 44	5. 21	1. 30	2. 05	4. 82	3. 37
무 주	1. 81	0. 37	7. 84	7. 01	2. 67	4. 23	0. 96	5. 88	3. 80	2. 47
장 수	2. 62	3. 60	5. 73	5. 57	2. 30	2. 86	0. 34	1. 31	3. 31	2. 70
임 실	3. 49	5. 94	9. 44	7. 91	4. 53	5. 94	0. 49	4. 14	4. 24	3. 96
남 원	7. 53	13. 91	6. 59	9. 82	5. 48	6. 71	1. 42	3. 82	7. 71	7. 35
순 창	4. 66	10. 28	6. 92	9. 85	4. 64	3. 67	0. 71	1. 41	4. 37	4. 51
정 읍	11. 71	12. 21	13. 21	10. 64	8. 82	11. 85	1. 89	11. 07	12. 06	11. 51
고 창	9. 17	10. 59	6. 96	13. 03	25. 98	14. 68	71. 97	4. 01	11. 19	11. 60
부 안	9. 48	7. 33	20. 45	7. 48	9. 06	6. 60	5. 91	5. 88	4. 69	8. 37
김 제	15. 45	11. 13	4. 54	8. 03	8. 38	9. 78	5. 28	11. 48	12. 06	13. 78
옥 구	8. 70	9. 72	1. 87	4. 28	1. 01	2. 75	0. 51	5. 88	5. 49	7. 22
익 산	11. 80	2. 75	2. 00	6. 86	15. 69	6. 62	5. 81	6. 25	12. 94	10. 75

表 5-8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연관계수, 1975

단위 : %

	미곡	백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전 주	0.51	0.15	0.95	1.05	0.33	- 2.11	0.42	- 15.02	- 0.31
군 산	0.08	0.13	- 2.09	0.54	- 0.11	- 0.57	0.60	- 2.16	- 0.06
이 리	0.03	0.14	1.11	0.85	- 1.82	0.30	- 0.20	0.13	0.04
완 주	0.36	- 1.52	- 6.43	1.62	3.50	- 0.20	2.83	- 12.23	- 0.79
진 안	0.62	1.17	- 6.12	- 6.01	0.33	- 3.43	- 1.02	3.45	- 1.99
무 주	0.76	0.01	- 2.79	- 5.83	1.37	- 3.58	- 0.50	2.00	- 1.42
장 수	0.38	0.53	1.98	- 3.09	0.93	- 1.42	- 1.81	0.23	- 1.74
임 실	1.02	0.48	- 1.51	- 0.51	2.29	- 6.56	- 0.53	- 1.73	- 2.30
남 원	- 0.38	1.39	3.29	- 3.88	1.36	1.81	3.96	4.17	- 2.39
순 창	0.33	- 0.28	1.92	- 4.35	1.26	0.41	- 1.03	1.29	- 2.00
정 읍	0.27	- 2.76	1.03	2.63	- 3.59	3.23	3.50	- 3.12	0.68
고 창	0.80	- 2.63	- 11.94	- 3.61	- 1.36	1.33	- 3.90	- 0.15	- 0.33
부 안	- 0.10	- 2.41	1.57	2.85	- 2.32	2.72	- 10.19	5.24	3.38
김 제	- 2.63	2.82	9.02	5.85	5.36	4.25	2.38	3.74	4.63
옥 구	- 1.31	- 0.02	4.62	4.41	2.65	2.52	5.06	6.40	2.87
익 산	- 0.75	2.81	5.41	7.48	- 10.19	1.28	0.44	7.76	1.76
편 차	5.16	9.63	30.90	27.28	19.38	17.87	19.19	34.41	13.33
연관계수	94.84	90.37	69.10	72.72	80.62	82.13	80.81	65.59	86.67

表 5-9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연관계수, 1986

단위 : %

	미곡	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전 주	0.32	1.00	1.22	1.29	0.84	- 0.54	1.48	- 5.00	- 1.06
군 산	0.01	0.29	0.42	0.50	0.45	0.08	0.49	- 2.29	0.08
이 리	- 0.25	- 1.56	1.58	1.54	1.71	0.70	1.35	1.42	0.07
완 주	1.72	1.41	1.64	1.53	- 0.60	- 6.93	5.65	- 18.53	0.01
진 안	0.38	2.46	- 3.55	1.38	1.93	- 1.84	2.07	1.32	- 1.45
무 주	0.66	2.10	- 5.36	- 4.54	- 0.19	- 1.76	1.52	- 3.41	- 1.33
장 수	0.09	- 0.90	- 3.03	- 2.87	0.40	- 0.16	2.37	1.39	- 0.61
임 실	0.47	- 1.98	- 5.48	- 3.95	- 0.57	- 1.98	3.47	- 0.18	- 0.28
남 원	- 0.18	- 6.56	0.76	- 2.47	1.87	0.64	5.93	3.53	- 0.36
순 창	- 0.15	- 5.77	- 2.41	- 5.34	- 0.13	0.84	3.80	3.10	0.14
정 읍	- 0.20	- 0.71	- 1.70	0.87	2.69	- 0.34	9.62	0.43	- 0.56
고 창	2.43	1.01	4.64	- 1.43	- 14.38	- 3.08	- 60.37	7.59	0.41
부 안	- 1.11	1.04	- 12.08	0.89	- 0.70	1.77	2.46	2.49	3.68
김 제	- 1.66	2.65	9.25	5.75	5.40	4.00	8.51	2.30	1.72
옥 구	- 1.48	- 2.50	5.35	2.94	6.21	4.47	6.72	1.34	1.73
익 산	- 1.05	8.01	8.75	3.89	- 4.94	4.14	4.95	4.50	- 2.19
편 차	6.08	19.98	33.61	20.6	21.51	16.63	60.37	29.41	7.84
연관계수	93.92	80.02	66.39	79.4	78.40	83.37	39.63	70.59	92.16

表 5-10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별·품목별 특화계수, 1975

단위 : %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전 주	0.74	0.93	0.52	0.46	0.83	2.07	0.79	8.65	1.16
군 산	0.91	0.85	3.35	0.39	1.12	1.64	0.33	3.43	1.07
이 리	0.98	0.90	0.18	0.37	2.34	0.78	1.15	0.90	0.97
완 주	0.95	1.19	1.80	0.80	0.56	1.02	0.65	2.53	1.10
진 안	0.85	0.72	2.48	2.45	0.92	1.83	1.25	0.17	1.48
부 주	0.73	0.99	1.98	3.04	0.52	2.26	1.18	0.30	1.50
장 수	0.89	0.85	0.42	1.90	0.73	1.41	1.53	0.93	1.51
임 실	0.81	0.91	1.29	1.10	0.57	2.24	1.10	1.33	1.44
남 원	1.05	0.82	0.58	1.50	0.83	0.77	0.49	0.47	1.31
순 창	0.93	1.06	0.60	1.90	0.74	0.92	1.21	0.73	1.41
정 읊	0.97	1.25	0.91	0.76	1.33	0.70	0.68	1.29	0.94
고 창	0.91	1.28	2.29	1.39	1.15	0.86	1.42	1.02	1.04
부 안	1.01	1.29	0.81	0.65	1.28	0.67	2.24	0.36	0.59
김 제	1.21	0.78	0.29	0.54	0.58	0.67	0.81	0.71	0.64
옥 구	1.18	1.00	0.35	0.38	0.63	0.65	0.29	0.10	0.60
익 산	1.07	0.75	0.52	0.33	1.91	0.89	0.96	0.31	0.84
① Mean	0.95	0.97	1.15	1.12	1.00	1.21	1.00	1.45	1.10
② S.D	0.14	0.19	0.95	0.83	0.52	0.60	0.50	2.11	0.32
① + ②	1.09	1.16	2.10	1.95	1.52	1.81	1.50	3.56	1.42

表 5-11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별·품목별 특화계수, 1986

단위 : %

	미곡	백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전 주	0.81	0.41	0.28	0.24	0.51	1.32	0.13	3.96	1.62
군 산	0.99	0.57	0.37	0.25	0.32	0.88	0.26	4.42	0.88
이 리	1.12	1.78	0.21	0.23	0.14	0.65	0.32	0.29	0.97
완 주	0.79	0.83	0.80	0.81	1.07	1.86	0.30	3.30	1.00
진 안	0.89	0.27	2.05	0.59	0.43	1.55	0.39	0.61	1.43
무 주	0.73	0.15	3.17	2.83	1.08	1.71	0.39	2.38	1.54
장 수	0.97	1.33	2.12	2.06	0.85	1.06	0.12	0.49	1.23
임 실	0.88	1.50	2.38	2.00	1.14	1.50	0.12	1.04	1.07
남 원	1.02	1.89	0.90	1.34	0.75	0.91	0.19	0.52	1.05
순 창	1.03	2.28	1.53	2.18	1.03	0.81	0.16	0.31	0.97
정 읍	1.02	1.06	1.15	0.92	0.77	1.03	0.16	0.96	1.05
고 창	0.79	0.91	0.60	1.12	2.24	1.27	6.20	0.35	0.96
부 안	1.13	0.88	2.44	0.89	1.08	0.79	0.71	0.70	0.56
김 제	1.12	0.81	0.33	0.58	0.61	0.71	0.38	0.83	0.88
우 구	1.20	1.35	0.26	0.59	0.14	0.38	0.07	0.81	0.76
익 산	1.10	0.26	0.19	0.64	1.46	0.62	0.54	0.59	1.20
① Mean	0.97	1.02	1.17	1.08	0.85	1.07	0.65	1.35	1.07
② S.D	0.15	0.63	0.98	0.97	0.53	0.43	1.49	1.37	0.28
① + ②	1.12	1.65	2.15	1.87	1.48	1.50	2.14	2.72	1.35

表 5-12 전북 농업생산의 작목별 특화지역

미곡

1975	1986		
	핵심 지역	주산지역	비 특화지역
핵심 지역	김제, 옥구		
주 산 지 역	이리, 부안	남원, 정읍, 익산	완주
비특화지역		군산, 장수, 순창	전주,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맥류

1975	1986		
	핵심 지역	주산지역	비 특화지역
핵심 지역		정읍	완주, 고창, 부안
주 산 지 역	순창	옥구	
비특화지역	이리, 남원	장수, 임실	전주, 군산, 진안, 무주, 김제, 익산

잡곡

1970	1986		
	핵심 지역	주산지역	비 특화지역
핵심 지역		진안	군산
주 산 지 역	무주, 임실		완주
비특화지역	부안	순창, 장수	정읍, 고창, 전주, 이리, 남원, 김제, 옥구, 익산

두류

1986 1970	핵심지역	주산지역	비특화지역
핵심지역	무주		진안
주산지역	장수, 순창	남원	고창
비특화지역	임실		전주, 군산, 이리, 완주, 정읍, 부안, 김제, 옥구, 익산

서류

1986 1975	핵심지역	주산지역	비특화지역
핵심지역		익산	이리
주산지역	고창	정읍, 부안	군산
비특화지역		완주, 무주, 임실 장수, 순창	전주, 진안, 남원, 김제, 옥구

채소

1986 1975	핵심지역	주산지역	비특화지역
핵심지역	진안, 무주, 임실	전주	
주산지역			군산, 장수
비특화지역	완주	고창	이리, 남원, 순창, 정읍, 부안, 김제, 옥구, 익산

表 5 - 12 전북 농업생산의 작목별 특화지역 (계속)

특작			
1986 1975	핵심지역	주산지역	비특화지역
핵심지역		부안	
주산지역	고창		이리,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비특화지역			전주, 군산, 완주, 남원, 정읍, 김제, 옥구, 익산

과수			
1986 1975	핵심지역	주산지역	비특화지역
핵심지역	전주, 군산, 완주		
주산지역			
비특화지역		무주	이리, 순창, 옥구, 진안, 정읍, 익산, 장수, 고창, 임실, 부안, 남원, 김제

축산			
1986 1975	핵심지역	주산지역	비특화지역
핵심지역	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주산지역			완주, 남원, 순창
비특화지역		익산	군산 이리, 정읍, 부안, 김제, 옥구, 고창

나. 農業生產의 作目別 地域持化 分析

어떤 作目이 어느 地域에서 가장 特化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指標로 特化係數(Location quotient)를 이용할 수 있으며, 特化係數 LQ는 다음과 같이 얻는다.

$$LQ = \frac{X_{ij}/X_{it}}{X_{tj}/X_{tt}}$$

X_{ij} : i 地域의 j 作目 생산액

X_{it} : i 地域의 총생산액

X_{tj} : 전지역의 j 作目 생산액

X_{tt} : 전지역의 총생산액

地域의 特化度는 特化係數 1로부터의 偏倚度에 의하여 결정되며, 係數가 1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그 作目이 特化된 地域을 나타낸다.

1975년과 1986년 全北의 農業生產을 기초로 한 9개 항목의 시·군별 特化係數는 다음 <表 5-10>, <表 5-11>과 같다. 特化係數가 1보다 큰 地域이 그 作目的 特化地域을 나타내지만 特化係數와 그 標準偏差의 결합에 의하여 各地域을 核心地域, 主產地域 및 非特化地域으로 구분하여 分析할 수 있다.¹⁾

核心地域 : $LQ \geq Ma + S \cdot D$

主產地域 : $Ma \leq LQ < Ma + S \cdot D$

非特化地域 : $LQ < Ma$

LQ = 特化係數

Ma = 特化係數의 平均值

$S \cdot D$ = 特化係數의 標準偏差

<表 5-10>을 기초로 한 작목별 지역구분과 1975년과 1986년 사이의 核心地域, 主產地域과 非特化地域으로의 移動상황이 다음의 <表 5-12>

1) 姜奉淳外, 「主要生產調整指向作目的 地域特化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 7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12. 참조.

에 나타나 있다. <表 5-12>에서 보면 米穀, 離穀, 果樹 등의 地域移動은 主產地域으로부터 核心地域으로, 非特化地域으로부터 主產地域으로 이루어 진다. 예컨대 米穀에 있어서 이리는 1975년의 主產地域으로부터 1986년에는 核心地域으로 이동했으며 군산,²⁾ 장수, 순창은 非特化地域에서 主產地域으로 移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米穀, 豆類, 薯類 등 정체부문은 核心地域으로부터 主產地域으로, 또 主產地域으로부터 非特化地域으로 移動하는 地域이 많아서 生產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農業生產의 地域別 特化作目 分析

全北 農業生產의 作目別 特化係數를 중심으로 核心地域, 主產地域, 非特化地域으로 分類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市·郡別 地域을 基準으로 어떤 作目이 特化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를 再構成하여 地域別 特化와 마찬가지로 作目別 特化에 따른 核心作目, 主產作目, 非特化作目으로 分類할 수 있다. 다음 <表 5-13>은 각 시·군별 1975년과 1986년간의 特化作目과 非特化作目 및 그 移動을 나타내고 있다.

表에서 전주, 군산, 이리, 완주지역은 이리의 미곡이외에는 채소, 축산, 과수가 핵심작목이나 주산작목으로서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등 산간지대나 준산간지대에서는 잡곡, 채소, 축산, 두류가 핵심작목이나 주산작목으로 나타나 있다. 남원은 미곡이 주산작목으로 되어 있으며 진안과 무주, 장수에서는 특작이 주산작목에서 비특화작목으로 이동하였다. 순창에서는 서류, 잡곡이 비특화작목에서 주산작목으로 바뀌었으며 임실에서는 두류, 서류가 비특화작목에서 각각 핵심작목과 주산작목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평야지대나 준평야지대를 나타내는 김제, 옥구, 부안, 정읍, 고창지역에서는 대부분 고창을 제외하고는 미곡이 핵심작목이나 주산작목에 속하고 기타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전작물은 비특화작목으로 남아 있다. 이

2) 이리는 행정구역개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특화작목이나 비특화작목의 특징은 앞서 본 도시근교지역이나 산간지역과는 달리 대부분 1975년과 1986년간에 걸쳐서 급격한 변동이 이루어 지지 않고 미작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이 안정적으로 호남평야의 답작전형인 농업경영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表 5-13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별 특화작목

전주

1986 1975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파수, 축산	채소	
주산작목			미곡, 맥류, 잡곡,
비특화작목			두류, 서류, 특작

군산

1986 1975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파수		잡곡
주산작목			서류, 채소
비특화작목		미곡	맥류, 두류, 특작, 축산

이리

1986 1975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서류
주산작목	미곡		특작
비특화작목	맥류		잡곡, 파수, 두류, 축산, 채소

表 5-13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별 특화작목(계속)

완주

1975 \ 1986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과수		맥류
주산작목			축산, 미곡, 잡곡
비특화작목	채소	서류	두류, 특작

진안

1975 \ 1988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채소, 축산	잡곡	두류
주산작목			특작
비특화작목			미곡, 맥류, 서류, 과수

무주

1975 \ 1986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두류, 채소, 축산		
주산작목	잡곡		특작
비특화작목		서류, 과수	미곡, 맥류

장수

1975 \ 1986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축산	
주산작목	두류		채소, 특작
비특화작목		미곡, 맥류, 서류, 잡곡	과수

임실

1986 1975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채소		축산
주산작목	잡곡		특작
비특화작목	두류	맥류, 서류	미곡, 과수

남원

1986 1975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주산작목		미곡, 두류	축산
비특화작목	맥류		잡곡, 특작, 채소, 과수, 서류

순창

1986 1975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주산작목	맥류, 두류		특작, 축산
비특화작목		미곡, 서류, 잡곡	채소, 과수

정읍

1986 1975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맥류	
주산작목		미곡, 서류	
비특화작목			두류, 축산, 과수, 특작, 채소, 잡곡

表 5 - 13 전북 농업생산의 지역별 특화작목 (계속)

고창

1986 1975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멥류
주산작목	서류, 특작		두류
비특화작목		채소	잡곡, 미곡, 축산, 과수

부안

1986 1975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특작	멥류
주산작목	미곡	서류	
비특화작목	잡곡		두류, 과수, 채소, 축산

김제

1986 1975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특화작목
핵심작목	미곡		
주산작목			과수, 맷류, 서류,
비특화작목			축산, 잡곡, 채소, 두류, 특작

옥구				
1975	1986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 특화작목
핵심작목	미곡			
주산작목		맥류		
비 특화작목				잡곡, 두류, 서류, 과수, 특작, 채소, 축산

익산				
1975	1986	핵심작목	주산작목	비 특화작목
핵심작목			서류	
주산작목			미곡	
비 특화작목			축산	맥류, 잡곡, 두류, 과수, 특작, 채소

第 6 章

全北地域 農業發展戰略 提示

1. 全北地域 農業 開發方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全北地域農業의 問題는 地域農業自體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서 비롯된 農業問題가 全北地域에 심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成長據占에 의한 都市化, 工業化 開發戰略은 全北農村人口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와 農村勞動力不足 뿐만 아니라 오늘날 農村社會문제로 發展되고 있다. 1970년이래 전주, 군산, 이리의 도시지역을 제외한 13개 군 전체가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였다. 이것은 미국위주의 전북 농업구조가 경제성장에 따른 농산물수요의 多樣化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이나 조정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의 저위와 농외소득의 기회가 거의 없어 농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농이나 탈농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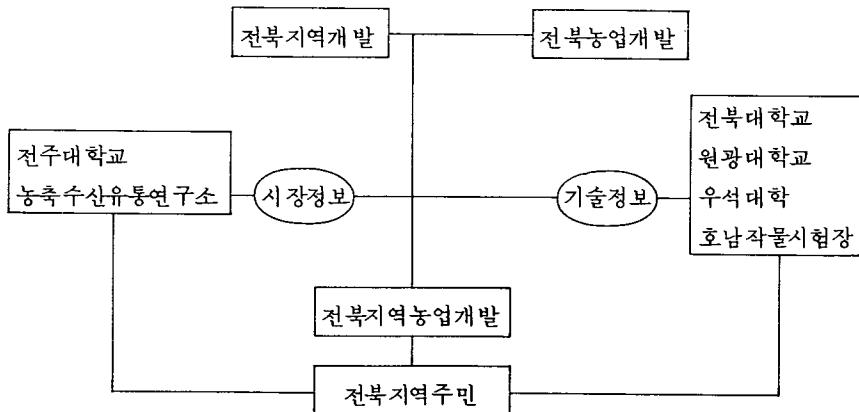
특히, 1980년 이래 低農產物價格과 複合營農政策의 실패로 인한 農家負債의 누중은 김제, 익산, 부안 등 서부 畜作平野지대보다 무주, 장수, 임실 등 산간부 농촌인구 감소를 더욱 크게 하였다. 이것은 전북 지역농업의 성장이 미곡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북의 지역개

발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지역개발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미곡위주의 전북 농업은 경제작물, 소득작물의 개발이나 농촌공업화, 부업단지, 관광개발 등에 의한 농외소득증진에 의하여 농가소득을 높여야 하지만 농업소득 중 미곡의 비중이 커서 농가소득은 농산물가격정책 등 일반농업정책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지역농업개발은 전북 지역개발과 농업개발의 태두리에서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북 농업개발은 지역농업으로서의 특성보다 한국의 일반농업정책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미곡을 중심으로 한 식량정책, 농산물가격정책, 농산물유통정책, 농업금융정책에 의해서 전북 지역농업개발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전북 농업정책은 관개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보관·저장·가공시설 등 농업유통사업 등 자본집약적 하부구조정비 뿐만 아니라 토지보전, 곡물·축산방역시설, 농업통계, 교육서비스확충, 농업금융, 연구소와 시험장 등 사회적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의 농과대학과 호남작물시험장 등 지역농과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 전주대학교 지역개발대학, 농축수산유통연구소 등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농업개발수요를 수용한 지역정보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그림 6-1**〉).

그림 6-1 전북지역 농업개발체계



전북 지역 농업 개발 방향은 농업 지대 구분에 따른 권역 설정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권역에 따라 전북은 주곡 생산과 복합 영농을 중심으로 한 식량 작물의 생산, 지역적 비교 우위에 따라 특화 작목의 주산 단지 설정,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외 소득 기반으로서 농공 단지 조성과 부업 단지, 관광 개발과 산지 개발을 근간으로 한 관광 농업 지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2. 全北 地域 農業 圈域 別 開發 方向

全北의 定住生活圈은 전주권, 정주권, 남원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農業 地域圈은 완주와 정읍을 포함한 서쪽의 성장 지역과 진안, 임실, 순창 등 동쪽의 비 성장 지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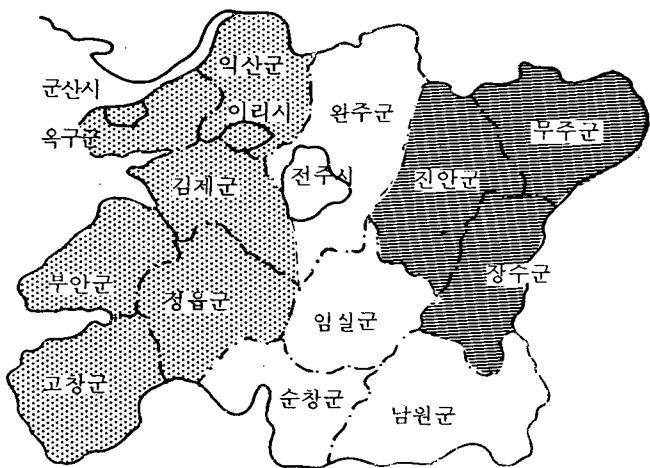
그러나 자연 조건을 감안할 때 익산, 김제, 정읍, 부안, 고창의 서부 평야 지대와 무주, 진안, 장수의 동부 산간 지대, 그리고 완주, 임실, 순창, 남원의 중부 준 산간 지대의 3大圈域으로 나눌 수 있다 <圖 6-2>.

가. 서부 평야圈

서부 평야 지대는 미곡 생산이 주종을 이루며, 대표적 작목 결합 유형이 6작 목의 복합 영농을 지향하기 때문에 주곡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한 다각 영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개별 경영의 측면에서 복합 영농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소득의 계절적 평균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평균 소득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나 미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농업 경영 형태에서는 미작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작목 간 일정 수준까지는 자원의 배분이 보합 적이기 때문에 미작을 중심으로 한 다각 경영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 경영은 소규모 생산으로 시장 판매 목적보다 자급적 성격이 커서 농가 소득 증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전북의 토지 이용률의 저하는 해외 농작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이농에 의한 농촌 노동력 감소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미곡 생산에 있어서 기계화를 위한 경제 사회적 여건 변동과 맥류, 두류 등 기

圖 6 - 2 전북지역 농업의 3대권역



타 식량작물의 가격보장에 따라 자원배분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전북 지역농업 개발정책 방향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미곡의 자급달성을 따라 미곡생산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통일벼 계통의 신품종개발로 주곡자급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米質에 따른 소비자 기호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농업연구투자가 미곡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미곡생산의 중심지인 전북에 위치한 裡里 湖南作物試驗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주곡자급달성을 국가의 지상목표였기 때문에 미곡연구비 배분은 지역적 배분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에 편중되었으며 <表 6 - 1>, 최근에 이르러서야 호남지방의 쌀 생산비중과 연구비 배분이 균형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집중적인 투자로 湖南米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유통과정에서 불이익을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자연조건에 알맞는 良質의 미곡품종이 개발되어 湖

表 6 - 1 호남지방 쌀 생산량과 쌀 연구비의 비중

	쌀 生 산	쌀 연구비
1966	32. 3	7. 6
1970	29. 6	20. 8
1975	30. 1	21. 8
1980	36. 5	27. 9
1984	32. 6	31. 7

南米의 상품가치를 높힐 수 있을 때 전북 서부평야지대 뿐만 아니라 전북 농업성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지역의 농과대학과 작물시험장 등 연구소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계와 계속적인 미곡연구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 中部 準山間圈

전북 중부의 준산간지대는 순창과 남원은 담률이 높아 미곡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임실을 포함한 준산간지역은 잡곡, 맥류, 두류 등 기타식량작물의 생산과 초지개발에 의한 축산발전이 가능하다. 도시근교농업의 성격이 강한 완주는 과수·채소 등 성장작물이 주를 이루어 산간·준산간지대를 포함한 중·동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성장지역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완주는 전주 뿐만 아니라 전주를 통한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소비지 판매중심의 성장작물의 특화가 가능하다. 남원, 임실, 순창 등은 전체농업소득 중 미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미곡생산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낮고 농외소득이나 미곡이외의 부문에 특화함으로써만 농가소득증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부 평야지대와는 달리 농가소득 중 미작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잡곡, 두류, 맥류 등 미작을 중심으로 3작목이나 4작목 결합유형을 보이며, 보다 특화된 농업경영을 지향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 소득증진을 위해서는 서부 평야지대보다 이 지역이 오히려 미곡생산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며, 생산성을 높히기 위한 수리시설,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요청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평야지대에 비해 열악한 자연조건으로 인한 농업 투자의 저위성으로 개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지역은 최근 농산물수입 개방과 맥류, 잡곡, 두류 등 가격의 저위로 이들에 대한 생산은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문의 특화지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농업개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보이며, 1970년대 이래 급성장한 축산부문이 1980년대 소파동 이후 급격히 몰락하거나 최근의 고추 등 채소재배에 의한 피해가 극심한 것은 이 지역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시장생산에 가장 신축적이면서도 가장 불안정한 농업 생산을 보이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완주를 제외한 춘산간중부지역의 지역 농업개발 방향은 맥류, 두류, 잡곡에 대한 가격지지와 땅콩, 참깨, 마늘, 양파 등 가격 불안정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에 의해서만 농업 소득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다. 東部 山岳圈

전북의 동부 산간지대인 무주, 전안, 장수는 미곡생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잡곡, 두류 등 기타식량작물의 생산이 높다. 또한 초지조성에 의한 육우의 번식과 비육우나 인삼, 고냉지채소, 벼섯 등 특작을 미작과 결합시킨 특화작목 중심의 농업경영이 유리하다. 따라서 전북에서 가장 농가소득이 낮고 농업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의 정비, 포장 등 하부구조확충과 관광시설, 산지개발 등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의 잠재력은 오히려 풍부하다고 본다.

축산개발의 적지를 나타내는 초지면적에 있어서 장수는 60% 이상 개발 가능지로 분류되는 2級地의 면적이 6,274 ha, 40% 이상의 3級地가 4,638 ha로 총 10,912 ha이며, 무주는 2級地 3,298 ha, 3級地 704 ha로 총 4,002 ha, 전안은 1級地 22,781 ha, 3級地 317 ha로 총 23,098

ha로서 전북 총축산개발적지 68,102 ha의 56 %인 38,012 ha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산악권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의 동부 산악권은 초지조성과 이타리안라이그라스, 青刈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딥리작 재배를 통한 축산개발의 가능성과, 무주구천동, 덕유산 국립공원, 진안 마이산, 운일암, 반일암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 및 관광농업에 의한 지역개발방향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3. 全北地域 農村工業 開發方向

농촌공업화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계획으로서 공업의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가소득증진을 위한 농외소득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전북지역의 농촌공업개발은 미곡편중인 전북 농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농촌경제의 고도화·다양화를 위하여 1984년 남원동면을 시발로 하여 농공지구가 지정되어 조성을 완료하고 1987년 12월 말 현재 총 10개 지구가 지정되어 조성중이다(表 6-2)。

表 6-2 전북 농공지구 현황

單位 : 千坪, 億원, 個

地區名	指定年度	規 模	事業費	入住業體	備 考
남원동면	1984	15	589	7	造成完了
임실신평	1985	18	809	6	"
김제황산	"	22	991	9	"
정주농소	1986	56	3,880	4	90 % 工程
순창가남	"	25	1,133	6	60 % "
옥구성산	"	41	1,934	4	40 % "
완주이서	1987	116	2,146	3	設計中
진안연장	"	16	460	.	企業誘致中
정읍북면	"	64	3,900	.	"
익산삼기	"	46	2,673	.	"

농공지구개발의 과급효과는 아직 그 실증적 분석이 어려우나 지역내의 고용효과와 소득효과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부족이나 원자재확보의 어려움, 판매시장문제 등이 농공지구개발의 원천적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농공지구개발은 정책금융특혜나 지가상승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실경영업체의 입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전북의 농공지구개발은 전북 지역농업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업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농업정책의 제반조건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농촌이 농업소득의 안정에 바탕을 두어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이 지양되고 농촌공업이 노동, 자본, 원자재 등 투입물이나 생산물시장에 있어서 농촌경제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질 때 비로소 농촌의 공업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북의 농촌공업과 농외소득의 실태분석¹⁾에 기초한 전북지역 농촌공업의 기본방향은 공업용수의 의존도가 낮고 기술집약적이며, 단순작업을 필요로 하는 부문과 생산물에 비해 比價가 큰 半導體나 電子產業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정책적 농공지구조성 뿐만 아니라 중부 춘산간지대와 동부 산간지대의 축산개발을 전제로 육가공, 유가공공장과 같은 농작물 가공공장, 진안의 인삼, 고창의 땅콩 등 특작을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업, 남원의 목기, 전주의 韓紙와 합죽선, 익산의 石工藝, 장수의 石器 등 지역내 부존자원을 이용한 전통적 특산물 개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통적 특산물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전후방 연계효과를 가져와 부가가치를 전북 경제내에서 실현시킬 수 있고 전통적으로 토착화할 수 있는 농업연관공업의 활성화가 농공지구 못지 않게 중요할 것이다.

1) 심상선, 장재우, 「農村工業과 農外所得에 관한 실태조사분석」, 日海研究所, 1987. 12. p. 80.

4. 全北地域 農業의 流通 改善方向

오늘날과 같이 資源위주의 自給的 영농에서 科學技術위주의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되면 투입물과 산출물이 시장과 연결되어 가격에 대한 시장정보와 유통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는 特化作目이나 特化地域이 地域的 比較優位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시장조건에 따라 기술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작목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비닐하우스에 의한 시설원예, 수입사료에 의한 가축사양 등은 전통적인 영농의 입지성을 약화시키고 시장정보와 유통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북 농업의 특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끈생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쌀의 시장유통과정에서 전북이 쌀 도매 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전국적으로 정부미 이외의 쌀은 대부분 유사도매시장에서 위탁도매상에 의하여 취급되며 그 지역적 분포는 서울 다음 전북이 수를 차지하고 있다(表 6-3). 따라서 전북이 쌀의 도매시장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穀物都賣市場을 전북에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²⁾ 이와 같이 쌀을 중심으로 한 도정, 가공, 보관, 운송, 포장산업 등 쌀과 연관된 산업을 발전시켜 그 부가가치를 전북 경제내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미곡 뿐만 아니라 최근 과수, 채소, 특작 등 성장작물의 급성장에서 보인 전북 농업의 전문화, 다양화에 의한 物量의 급상승에 청과물, 채소 등의 도매시장이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많은 物量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없다. 따라서 대규모 공영도매시장을 전주에 건설하여 서울과 광주로 반출되는 전북 농산물의 전북지역내 유통권 흡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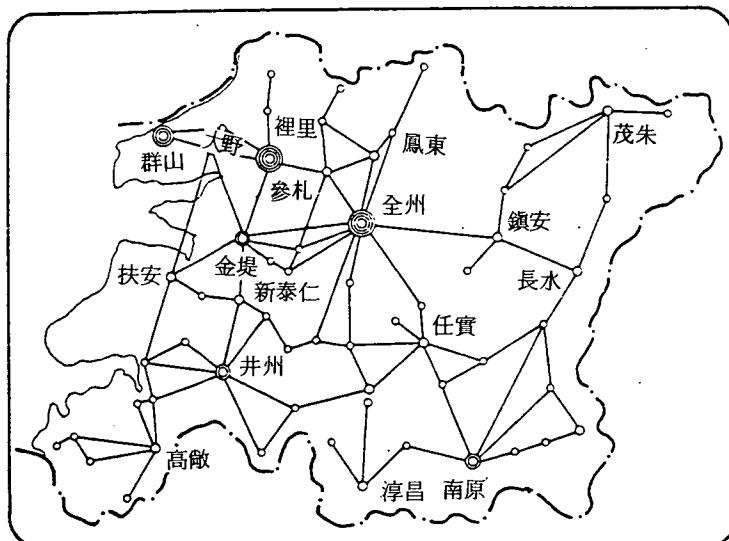
2) 崔洋夫, 「2000年代를 향한 全北圈 地域開發 심포지움 報告書」, 전국청년회의 소, 1984, pp. 55 ~ 77.

表6-3 양곡 위탁도매상의 지역별 분포, 198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0	13	27	8	25	19	23	32	102	26	22	15	1	333
141				4			3	9	4	5			166
161	13	27	8	29	19	23	35	111	30	27	15	1	499

資料：成倍水，「農水產品市場分析」，研究報告16，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5.p.251.

圖 6-3 전북 정기시장 유통권



資料：전라북도 「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1982~91)」, 1982.

서는 전주권, 남원권, 정주권의 3대 정주생활권을 중심으로 군산의 수산 시장, 전주의 공영 도매시장, 남원의 가축시장과 정주의 상설시장 확충에 따른 시장유통권이 전북지역내에 형성되는 유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圖 6-3)。

이러한 대도시의 배후에 있는 농촌지역 중심의 產地流通개선을 위해서는 協同出荷班의 조직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전북지역의 협동출하반은 23개 품목, 1,129개반에 이르지만 그 운영실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순회수집을 통한 공동수송에서부터 주 산지의 作目班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도입과 이의 共同選別, 共同計算에 까지 이르는 산지협동조합의 유통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근래 원주를 중심으로 직장별 회원제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產地直去來도 앞으로 推移가 주목된다. 지금은 시험단계지만 앞으로 보다 더 확대하여 대도시와 농촌을 직접 연결하는 產地直去來를 강화하여 유통마진의 감축 뿐만 아니라 도시인들의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

식과 직접적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유통의 능률화는 체계적인 유통정보에 의한 신속한 정보전달과 이에 따른 적절한 물량조절이다. 이를 위해서 全北地域은 道廳, 農協道支會, 道統計事務所, 農協郡支部와 읍면지역 4개소를 잇는 전 산터미널 45대가 설치되어 양곡정보, 가격정보의 전달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망의 확대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농수축협, 농수산통계사무소, 유통연구소를 통하여 마을단위까지 연결된 전산망 시스템에 의한 종합농산물유통정보체계의 확립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5. 全北地域 所得作物의 開發育成과 關聯產業의 連繫

전북 지역농업개발은 지역개발과 농업개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농업기술정보와 시장유통정보의 종합적 체계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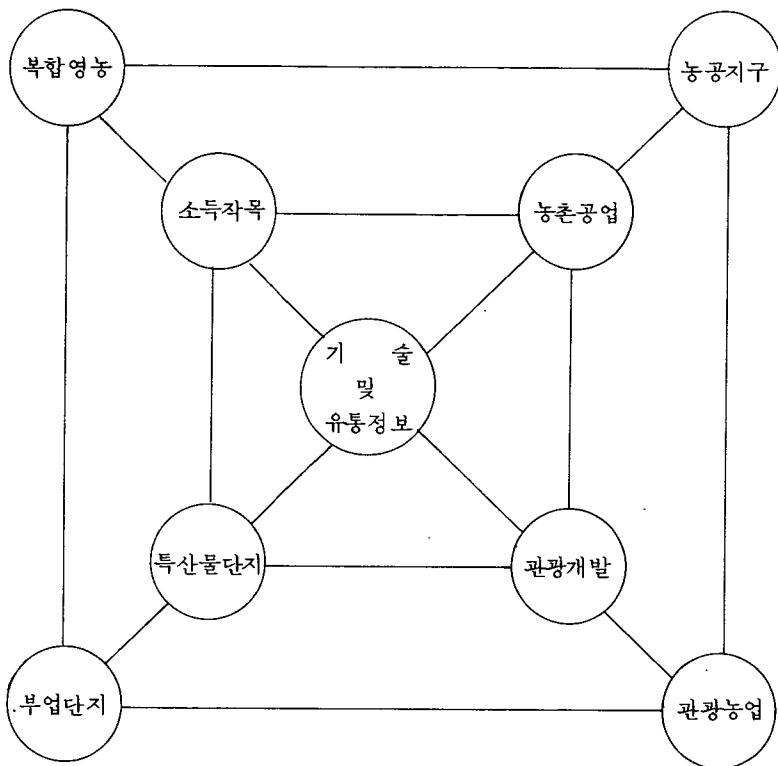
서부 평야지대의 복합영 농지역은 노동력 이용면에서, 중부준산간지대의 소득작목 특화지역은 가공원료면에서 농촌공업단지나 부업단지와 연계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지역농업기술체계에 포함되어 지역조건에 알맞는 작목과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특화작목으로 한 주산단지에서 생산하여 규격화, 등급화로 표준화하여 유통과정에서 지역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湖南作物試驗場이나 全北의 地域大學에서는 전북특성을 지닌 良質의 湖南米를 開發하고 무주등 동부 산간지대에서 적합한 고냉지채소, 원주 등 중부 준산간지대의 과수를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는 상품으로 표준화하여 전북특산물의 聲價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전북 지역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전북지역의 연구소, 대학과 유통정보를 담당하는 유통정보기관, 실제로 생산에 종사하는 특화지역의 영농단지, 부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상호 유기적 연관을 갖고 전북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圖 6-4>.

또한 관광개발과도 유기적 관계를 가져 이러한 특산물 생산이 관광의 유

圖 6 - 4 전북 지역 농업개발의 유기적 연계



인이 되거나 전북 지역 관광지 확대에 따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산물을 중심으로 관광농업을 개발하고 부업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다.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특화작목과 같이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농업기술 그 자체가 시장가격에 연계되어 투입물시장과 생산물시장의 가격효과가 기술을 유발시키고 마침내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기술, 생산, 유통, 소비에 반영될 수 있는 시장조직과 독점에 의하여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는 데 지방정부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第 7 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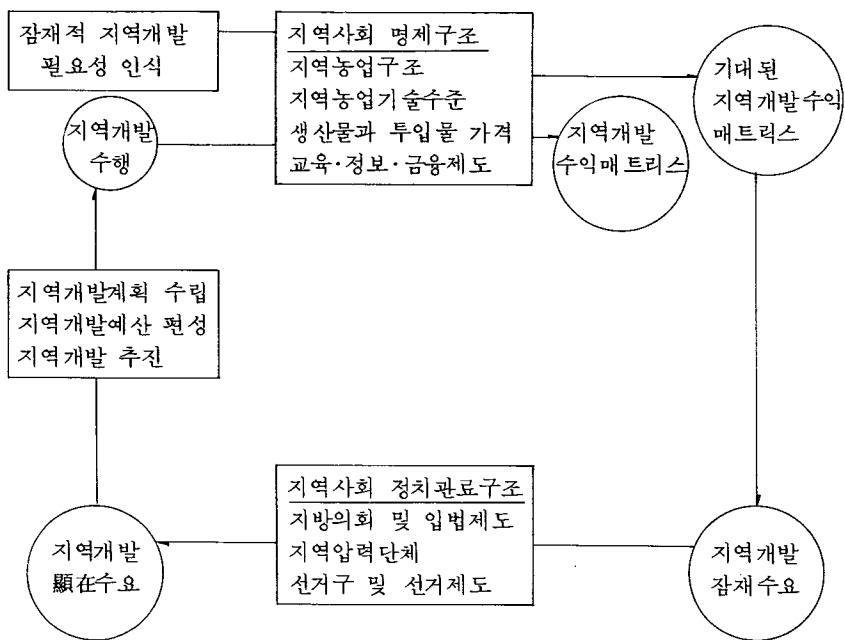
全北地域 農業發展을 위한 全北地方政府의 機能 再定立

1. 農業開發의 地域社會 構造的 麥카니즘

지역농업개발계획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향식 개발사업을 郡 단위 사업으로 종합연계하여 투자효율을 높이는 농촌종합개발의 테두리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 지역사회 의 구조적 메카니즘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때에 비로소 어떻게 지역개발계획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와 민주사회를 전제로 한 지역개발전략은 지역 사회의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圖 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지역농업구조 기술수준, 시장가격, 교육·금융에 대한 기회등 지역사회 의 경제구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기대수익의 매트릭스가 지역개발에 대한 잠재수요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개발수요는 그 지역의 정치관료구조나 그 지역 주민들의 정치행태에 따라 밖으로 表出된다.

圖 7-1 地域개발의 사회구조적 메카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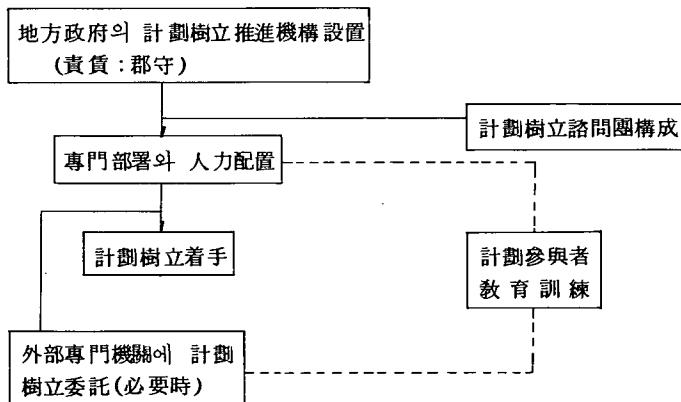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선거구 유권자들의 반응, 농축수협등 생산단체와 지역내 利害集團의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潛在的 지역개발수요가 顯在化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지역개발계획수립, 추진 및 집행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와같이 지역개발전략은 지역주민간에 지역개발에 대한 각각 다른 예상수익을 가져오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역개발에 대한 잠재수요가 顯在수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각 利害集團의 의지가 모아져서 전달될 수 있는 그 지역의 정치구조와 지역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하다.

지방자치에 의하여서만 지역여론이 수렴되어 정치적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으며 지역내 각집단의 경제적 利害關係가 조직화되고 정치관료기구를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지역사회구조적 메카니즘에서 지방정부의 기능은 지역주민의

圖 7-2 계획수립 준비단계의 주요작업



資料：崔祥夫·李正煥，「產業社會의 農村發展戰略」韓國農村經濟研究院 .
1987, P. 209.

현재화된 개발수요에 대하여 지역개발계획수립, 조정, 집행등 추진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내에 구성되어 준비관계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행한다. 이러한 추진기구는 계획수립과 집행에 관한 일체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농업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개발계획은 단계별로 볼 때 다음과 같은 〈圖 7-3〉의 순서에 의하여 8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단계는 상호의 존적이며 疑似試驗(simulation)에 의하여 보다 완벽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개발계획수립은 단계와 순서에 따른 시간적 배열보다 역할과 기능에 따라 계획수립, 계획수행, 자료제공 및 계획승인의 4개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기관의 역할분담과 기능의 재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각 개발계획단계에 따른 4개부문의 역할도 하나의 체계로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요인에 따라 서로 피드백(feed-back)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圖 7-4〉와 같이 체계화된다. 여기서 계획수행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며 계획수립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계획수립을 담당하거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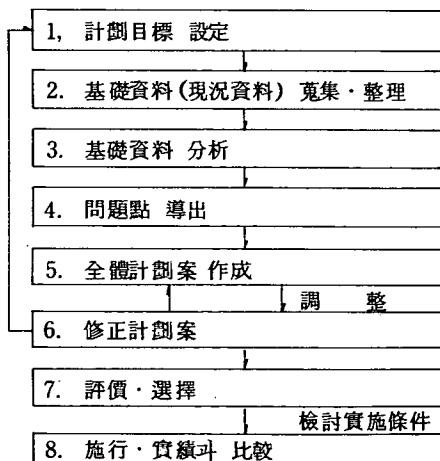
학, 연구소 등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계획수립자와 계획수행자 사이에는 지역개발목표나 예산에 대한 사전 의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수립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시장정보, 실험데이터 등을 시험장,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이나 농협, 축협 또는 유통기관이나 단체와 같은 자료제공부문을 통하여 제공받아 구체적인 개발방법, 개발구조, 예상결과를 정리한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의 가정, 추정치, 예측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계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계획승인자로서 예산의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폭넓은 지역개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시장정보체계가 연구소, 대학등 지역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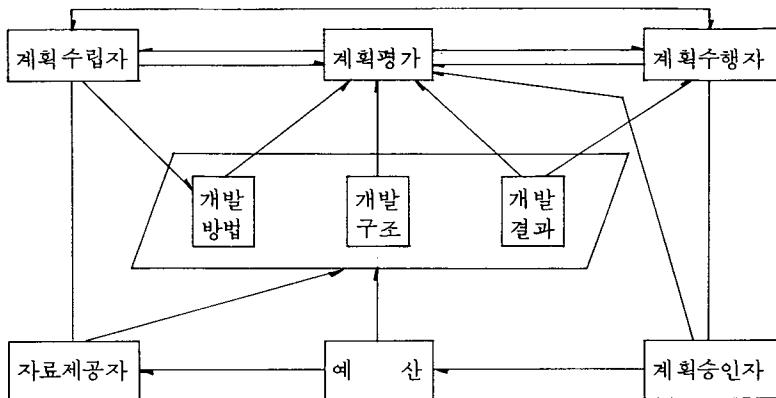
이러한 상호의존체계를 통하여 계획수행은 역할이 분담되고 하향식이 아닌 지역국민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圖 7 - 3 地역농업 개발계획의 순서



資料：崔洋夫等，地域農業開發模型과 計劃樹立에 관한 研究，研究報告 151，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7, P. 90.

圖 7-4 地域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상호의존체계



2. 全北地域 農業開發을 위한 全北地方政府의 役割

지역경제가 시장경제에 의하여 주도되면 개별기업의 시장신호(Market signal)에 따른 경제행위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지만 시장 경제가 미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부문은 지방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지역투자기반을 조성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시장경제를 민간중심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행정적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그 주체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북지역 농업개발에 있어서 전북지방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세가지 기능의 측면에서 다른지역에 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전북지역은 시장경제에 가장 적응이 어려운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고 그 중에서도 미곡생산이 커서 한국과 같은 소농경영 형태에서 자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신호에 의한 경제행위는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전북지역 농업개발에 대한 전북지방정부의 역할은 수리·관개 및

농업기계화를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통하여 미곡생산의 기틀을 다질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로 소득작목부문이 시장경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밀 받침해야 한다. 또한 전기, 수도, 교통,통신 등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적 간접자본형성과 교육, 관광, 의료, 문화사업 등 공공시설투자, 농촌금융시설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전북지방정부는 지역사회구조의 메카니즘에 따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수렴하여 지역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지방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과제는 첫째, 전북지역 통계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북농업통계는 현실적으로 농수산부 산하의 농업통계사무소에 의한 표본조사통계와 시군별 행정통계로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시군별행정통계와 표본통계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기초통계자료의 불명확성이 지역경제계획수립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킨다.

둘째, 전북지방정부는 전북지역 농업개발을 위하여 전북지역의 기술 및 시장정보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지역 대학과 연구소 및 유통정보기관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고 이들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제시장개방에 따라 해외농산물의 생산변화가 전북지역 개별농가나 마을의 영농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북종합전산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신속하게 시장정보나 기술정보가 마을단위까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북지방정부는 계속적인 전북농업경제의 예측을 통하여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농업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第 8 章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를 전제로 한 地方化 時代에 부응하여 全北地域 農業發展을 위한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지역 농업구조의 특성을 밝히고 이에 따른 開發戰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북지역 농업구조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앞서 전북농업 생산여건과 변화동향을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전북농업 발전수준을 가늠하고 전국 농업에 있어서 전북농업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전북 농업 구조의 특성은 전북농업 생산성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성장구조를 Shift - share 방법에 의하여 분석하고, 지대구분에 따른 圈域設定과 특화작목, 특화지역에 의한 전북농업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전북지역 농업개발계획의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본연구의 主要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북지역은 전체적으로 농업 중심의 경제이며 미국생산에 편중되어 있어 한국의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식량공급의 중추적 소임을 담당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전반적 전북경제의 침체를 보인다.

2) 전북지역 농업의 변화동향을 보면 1970년대 이래 농가호수, 농업인

구의 감소가 전국평균감소율보다 빠르게 진행하여 왔으며, 경지면적의 추세는 전국과 대체로 같으나 답면적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3) 전북지역농업의 발전수준을 성장면에서 전국과 대비하여 볼 때 미곡을 제외한 농산물간, 생산요소간 모든 부문에서 전국평균수준에 미치지 못 한다. 농가소득면에서도 전국평균수준보다 뒤떨어져 있고 전북지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4) 전북농업의 성장지역은 서부평야를 중심으로 한 답작지대이며 성장이 늦은 지역은 동부산간을 중심으로 한 동부산간지대인데 전체적으로는 미곡생산이 전북농업성장의 안정적 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수, 축산, 책소, 특작 등 성장작물의 성장속도는 빠르나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비중이 큰 미곡생산성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5) 원주와 김제는 전북평균성장보다 성장이 빠른 성장부문의 영향이 지역성장에 크게 작용하여 성장지역으로 나타난다.

6) 이리, 정읍, 고창, 옥구, 익산, 부안은 전북성장부문의 영향보다 지역성장이 빨라 성장지역으로 나타난다.

7) 순창은 지역성장부문보다도 전북의 성장이 낮은 부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지역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8) 전주, 군산, 남원, 무주, 장수, 임실은 지역성장부문이 전북평균성장보다도 낮아서,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전북의 부문별 성장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9) 전북의 자연조건에 의한 지대구분은 경지율에 의하여 서부평야지대, 중부 준산간지대 및 동부 산간지대로, 담률에 의하여 서부의 답작지대와 동부의 혼작지대로 나눌 수 있다.

10) 농업경영조건에 의한 Coppock 방식에 의하면 전북지역농업은 서부평야지대는 6작목결합에 의한 복합영농, 중부준산간지대는 3~4작목 결합, 동부산간지대는 2~3작목결합유형으로 나타나 미곡의 비중이 작을수록 소득작목에 특화한다.

11) 전북지역농업의 지역적 연관은 미곡, 맥류는 비슷하게 나타나며, 두

류, 잡곡, 특작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고, 과수, 채소, 축산 등은 성장작목으로 지역적 연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12) 도시근교에서는 채소, 축산, 과수가 핵심작목이거나 주산작목이며, 산간지대에서는 잡곡, 채소, 축산, 두류가 핵심작목이며, 평야지대에서는 미곡이 특화작목이나 나머지 대부분의 작목이 비특화작목으로 나타난다.

13) 전북지역 농업개발 방향은 호남작물시험장이나 지역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호남미의 질을 높이는 연구투자를 확대하고, 양곡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전북이 미곡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호남미의 상품가치를 높여야 한다.

14) 축산개발을 전제로한 육가공, 유가공과 같은 농산물가공공장, 남원의 목기, 익산의 石器, 전주의 한지등 지역의 전통적 특산물과 연결된 농촌공업, 부업단지, 관광농업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15) 전북지방정부는 지역농업개발계획의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수용하고 전북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 지역대학 및 유통정보기관, 특화지역의 영농단지, 부업단지, 농공단지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지역농업 및 경제통계의 정비, 전북지역기술 및 시장정보체계를 위한 종합전산망, 전북지역농업경제의 예측에 의한 개발방향제시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북농업구조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전북농업은 미곡생산을 축으로 하여 고도성장하의 경제구조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개발의 한계를 일반농업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북지역농업은 지역대학과 연구소의 연계뿐만 아니라 기술정보 및 유통정보를 체계화하여 농공단지, 복합영농단지, 부업단지, 관광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때 전북지역농업개발의 제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奉淳外, 「主要生產調整 指向作目에 地域特化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 7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姜昌容, “Shift-Share Analysis에 의한 地域農業分析”, 全北大學校 碩士論文, 1985. 2.
- 卑리깊은나무, 「韓國의 發見(全羅北道)」, 1983.
- 潘性納, 「韓國農業의 成長(1918 ~ 1971)」, 韓國開發研究院, 1974. 5.
- 朴正根, “地域農業成長과 構造分析：全北農業生產의 成長을 中心으로,”
 「農業經濟研究」, 第 19 輯, 1977a.
- _____, “全北農業構造의 地域別 關聯性分析,” 全北大學校 農大論文集 第
 7 輯, 1976a.
- _____, “全北農業生產의 成長分析,”「全北大學校 論文集」, 第 19 輯, 人文
 社會科學篇, 1977b.
- _____, “地域農業의 巨視的 構造分析：全北地域의 農業經營刑態別 農家
 構成의 變化를 中心으로,”「農業經濟研究」, 第 18 輯, 韓國農業
 經濟學會 1976b.
- 成培永, 「農水產品市場分析」, 研究叢書 1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
- 蘇淳烈, “農地賣買와 農家所得規模變化：全北 4 個地域의 事例,”「全北大
 農大論文集」, 第 16 輯, 1985.
- _____, “全北經濟의 構造와 問題點,”湖南社會研究會 第 1 回 심포지움 보
 고서, 1988.
- 심상선·장재우, 「農村工業과 農外所得에 관한 實態調查分析」, 日海研究所
 研究報告書, 1987.12.
- 윤근섭, “농촌인구의 이출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87.
- 李東鎬, “全北地方 農業資源의 合理的 利用에 關한 研究,”「全北大學校
 論文集」, 第 17 輯, 人文社會科學篇, 1975.

- 李東鎬, 張在右, 「農漁村 工業開發效果의 調査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8. 3.
- 李貞煥, 「한국농업의 여건변화와 發展戰略」, 연구보고 73,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983. 12.
- 全羅北道, 「농수산업무현황」, 1985. 6.
- _____, 「地域發展의 課題」, 1986.
- _____, 「2000 年代를 지향한 전북개발의 方向」, 1988.
- _____, 「2000 年을 향한 地域長期發展目標」, 1986.
- _____,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1982 ~ 91)」, 1982.
- _____, 「農業과 氣象」, 1985.
- 전주문화방송, 「全北人の 意識構造: 價値觀 및 地域社會開發에 관한 調査
研究」, 全北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7.
- 전주청년회의소, 「2000년대를 향한 全北圈地域開發 심포지움報告書」, 1984.
- 丁安聲, 李東鎬, “多變量分析法에 의한 地域農業의 類型化 : 全北 農村地域
에의 適用,” 「農業經濟研究」, 第 29 輯, 1988.12.
- 崔洋夫, “地方化時代의 地域經濟發展과 農村經濟開發,” 「農業經濟」, 10
권 3 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7. 9.
- 崔洋夫外,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연구보고 74, 1983. 12.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2000 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 1986.
- 한국은행 전주지점, 「87 年 우리經濟의 回顧와 88 年展望」, 1988.
- _____, 「88/ 1/4 分期中 道內經濟動向」, 1988.5.
- 劉冰鳳, “韓國經濟發展と 農業生產構造: 1955 ~ 84 年 時期別 地域別
マワロ分析,” 東京學 修士論文, 1987.
- Chalmers, James A, Shift and Share and the Theory of
Industrial Location, *Regional Studies*, (10), 15 ~ 23, 1976
- Herzog, Henry W. Jr., and Olsen, Richard J., “Shift-Share
Analysis Revisited: The Allocation, Effect and the
Stability of Regional Structur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7 (3) : 461 - 454, 1977.

- Lestie Symons, *Agricultural Geography*, New York, Washington Praeger Publishers, 1969.
- Maki, Wilbur R. *Regional Economic Forecasts for Water and Land Resources Planning*, I, Forecast Series. Department of Ag. and Applied Economics, University of Minnesota, Staff Paper, pp. 79 ~ 33. 1979.
- _____, *Regional Economic Forecasts for Water and Land Resources Planning*, V, Forecast Series. Department of Ag. and Applied Economics, University of Minnesota. Staff Paper, pp. 79 ~ 87, 1979.
- Nguyen, D. T. and Martinez Saldivar, M. L., "Pattern of Agriculture Growth in Mexican States, 1960 ~ 71: A Shift and Share Analysis," *Regional Studies*, 1979.
- Shaffer, Ron, 1979. Dunford, Rich and Langrish, Phil. Changes in Wisconsin's Nonfarm Private Employment 1962 ~ 1972 : A Shift and Share Analysis. R 2806 *Research Bulletin*, University of Wisconsin, 1976.
- Stilwell, F. J. B., Regional Growth and Structure Adaption, *Urban Studies*, 6 : 162 - 178, 1969.

研究報告 174

地域農業構造의 特性과 發展戰略 ②

全北地域 農業事例

1988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録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式會社 文 范 社

電話 739-3911~5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